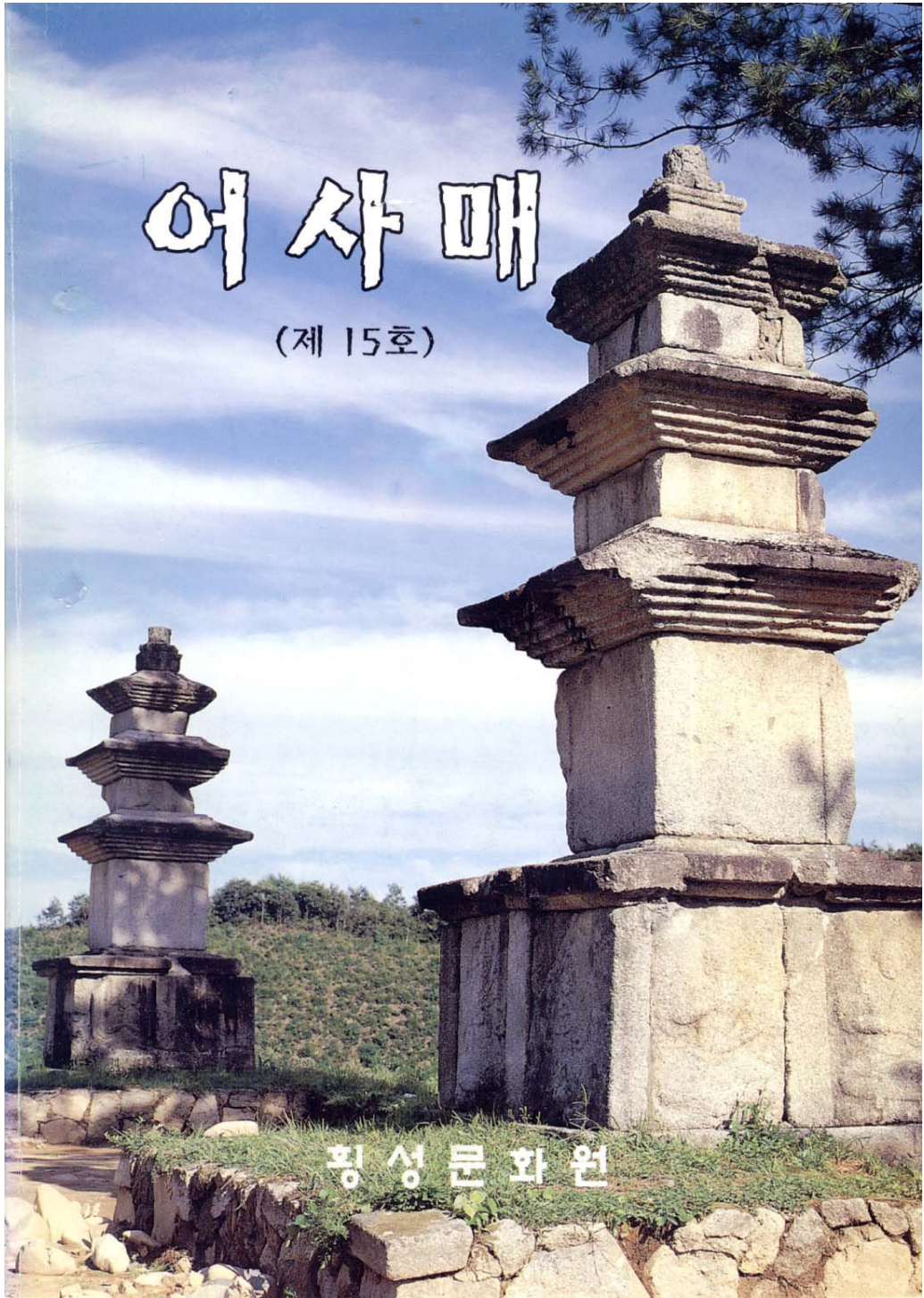


어사매

(제 15호)



황성문화원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황성의 상징



군기
 21세기를 향한 황성군민의 무한한
 도약과 인간 중심의 밝고 희망찬
 삶을 뜻한다.



군의새 / 백로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의꽃 / 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군의나무 / 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황성군을 뜻한다.



- 발 간 사 ----- 심진황
- 축 사 ----- 조태진
- 축 사 ----- 함종국
- 축 사 ----- 김광기

I. 오랜 역사의 고장

형성, 그 미래의 테마 ----- 이병열 · 13

II. 강원문화인을 선양

조충장군의 현대적 재조명 ----- 박한설 · 21
 문무겸진 3원수 ----- 25

III. 연구 문

형성지방의 노동요 연구 ----- 정재영 · 33
 형성의 동족마을 -----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 101

IV. 어사매 문화마당 (수필, 시, 현시, 기행문)

이젠 창가에서 ----- 권용환 · 107 주부 가을나들이를 다녀와서 --- 김미애 · 115
 김장하는날 ----- 이순자 · 119 태종대 ----- 박순호 · 121
 가을 ----- 박현숙 · 122 이산의 슬픈 노래 ----- 정금자 · 123
 축 신천년 ----- 송인석 · 125 유적답사기행문 ----- 손선철 외 · 126

V. 향토문화행사 입선작

제17회 태풍문화제 입선작 ----- 137
 제14회 태기문화제 입선작 ----- 148
 이연승시비건립 3주년기념 입선작 ----- 156

VI. 문화원소식 및 안내

문화원소식 ----- 167
 임원 및 회원 명부 ----- 172

發 刊 辭



심 진 향
황성문화원원장

고장의 郷土史를 發掘 再照明 하며서 군민여러분과 출향 인사님들께 愛郷의 消息誌로 자리하고 있는 어사매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 「제15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郷土史에 대한 關心을 북돋우고 愛郷心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본지는 郷土의 文化史料를 체계적으로 收錄 정리하며 문학적 자질이 뛰어난 文學同好人의 작품발표공간으로 군민의 文化力量을 結集하는 역할에 所任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호에는 본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위원이신 정재영 선생께서 오랜시간에 걸쳐 우리고장의 民俗資料를 發掘 集大成한 “황성지방의 노동요 연구문” 전문을 收錄하여 면면히 이어온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고 傳承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어 여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고 명실상부한 地域文化의 求心點이 되고자 郷土誌 어사매는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 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제15호가 우리 군민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고 文化欲求를 충족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文學人 그리고 出郷人事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關心과 愛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조 태 진
황 성 군 수

환희와 설렘으로 맞았던 새 천년의 첫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 지는 21세기를 맞아, 우리의 향토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사료가 될 어사매의 1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창조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계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와 산업문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그로인한 삭막감과 공허함은 자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허탈감을 보상해 줄 것은 순수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적 정서에 근거한 감성의 개발을 통해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고장도 황성문화원을 정점으로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 새로운 천년의 지방문화를 선도하는 향토문화의 중심이 되어 주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어사매 발간을 계기로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祝 辭



함 종 국
황성군의회의장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어사매 15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역문화의 중심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신 심진황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와 더불어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수준이 한나라의 이미지와 경제적인 가치창출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적 감각과 문화예술의 창조에는 전통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전통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의 문화를 더욱 아름답게 다듬고 우리것의 가치를 찾는 노력을 부단히 하면서 세계속에 우리만의 독특하고 멋드러진 문화예술을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통성이 담긴 어사매가 향토사의 소중한 사료로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문화수준향상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어사매 15호 발간에 정성을 다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김 광 기
황성교육청 교육장

향토지「어사매」제15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이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심진황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황성은 상고시대부터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인심을 바탕으로 독특한 지역 문화와 전통을 이어 온 희망의 땅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건전해야 할 정신적인 면은 오히려 퇴보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곧, 도덕과 윤리적 가치의 상실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문화의 주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곧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사상이며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 속에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이끌고 내려온 것도 축적된 문화의 힘이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성지방의 문화를 찾고 가꾸는 일은 바로 우리 황성군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사는 고장의 문화와 얼을 가꾸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세에게 길이 남겨줄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향토지「어사매」는 바로 우리 황성군민의 생활사와 문화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거울을 깨끗이 손질하는 일이야말로 내 고장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향토지의 계속적인 발간을 통하여 조상의 슬기와 긍지를 일깨우고 향토를 사랑하며 우리 고장의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황성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향토지「어사매」가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 15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어사매 (제15호)

1. 오랜 역사의 고장

횡성, 그 미래의 테마



횡성, 그 미래의 테마



이 병 열 (예비역 장군)

억겁(億劫)의 세월속에 어사매를 상징하며 동서를 가로 지르며 흐르던 물줄기에 문명의
괴력이 만들어낸 커다란 물웅덩이 하나가 생겼다. 갑천 횡성담이 바로 그것이다. 횡성은
한때(신라시대) 물웅덩이 황(潢)자에 내 천(川)자를 써서 황천(潢川)이라고 부른적이 있
었다. 그러나 횡성 어느곳에서도 「물웅덩이내」라고 상징할 만한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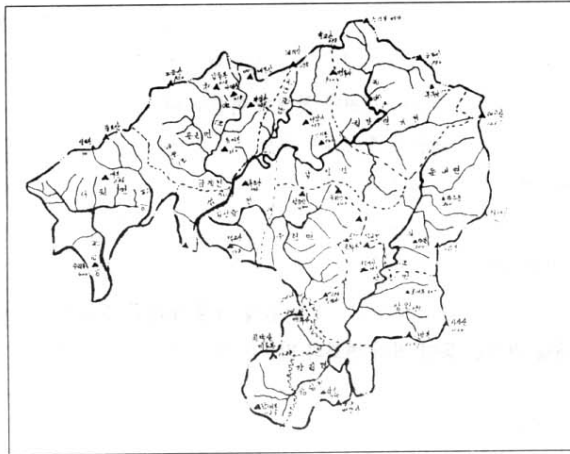
그런데 그 지명의 뜻이 담긴 황천이 새천년 첫해에 현실로 나타난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횡성은 또 무엇이 얼마나 변해 있을까.

봄에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게 하여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자연의
섭리요, 인간사의 이어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하고 무엇을 가꾸
고 거두어야 하는 건가. 새천년으로 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횡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연결해 보게 한다. 횡성은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전통의 고장이면서도,
격변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거의 변화와 발전이 없었던 고장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미래를 향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선진 테마(Theme)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횡성은 오랜 역사의 고장

횡성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들이 여러곳에 남아있다. 둔내의 현천
리와 둔방내리, 갑천의 중금, 화전리, 횡성 목계리, 안흥의 안흥리 등지에서 발견된 석기와
토기 유물과 고인들은 이미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철기시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이 살아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3년도에 둔내면 둔방내리에서 발견된 3개의 집터흔적은
이미 이 지역에 초기 철기시대(기원전후 100년)부터 마을 형태의 취락(聚落)구조를 이루
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이어오면서 횡성은 그 지명이 상징하듯

이 백두대간의 정기가 태기산으로 이어져 여기서부터 東에서 西로 2개의 물줄기(섬강, 주천강 수계)를 따라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취락형태를 이루고 살아왔다. 북쪽 섬강 수계에는 청일, 갑천, 횡성, 공근이 그리고 남쪽 주천강 수계로는 둔내, 안흥, 강림으로 이어지는 취락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우천만이 유일하게 이 수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천을 결모퉁이 우(隅)자에 내천(川)자를 썼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고대원시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어지면서 강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열매를 따며 냇가를 연한 평지에서는 경작이 용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토록 오랜 역사의 고장이면서 세월의 변화에 외면이라도 한 듯이 거의 변화가 없었을까?



횡성군의 산지와 수계분포

산업 시대에 거의 변화하지 않은 고장

다음의 몇가지에서 그 실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취락구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횡성의 취락구조는 선사시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가옥의 형태나 모양만이 세월따라 바뀌었을 뿐이지 취락의 규모나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근본적인 변화의 요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가지는 상주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60년전(1940년, 강원

도지)만해도 황성인구는 77,139명이었고 화전(火田)까지 일구어가며 농촌재건운동을 활발히 펼쳤던 68년 전후에는 무려 9만8천여명 수준이었던 것이 그후 급속한 산업시대의 열풍으로 이농향도(利農向都)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천년의 첫해를 넘고 있는 지금, 황성 인구는 겨우 4만8천여명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수십년전에 비해서도 절반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그동안 전국의 인구는 3천만 겨례를 부르짖던 시절보다 배(倍)이 사 늘어난 것에 비하면 더욱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옛부터 되는 집안에는 사람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살던 사람마저 떠나가 버리는 자리에서 활기가 넘치는 변화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그토록 황성사람들은 떠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희망적인 비전이나 황성에 살아야 할 뚜렷한 테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생활환경은 물론이요, 소득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생업 수단이나 교육여건 등 그 모든 것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권 모두를 부지중(不知中)에 흡수당해 온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시대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적 테마가 없다는 이야기다. 황성은 옛부터 자급수준의 농업에 의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면적이 황성전체면적에 불과 15%(논 6%, 밭 9.2%) 정도여서 그 규모자체부터 소득성과 경쟁력을 다질 수준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농업 지역이다. 제조업이나 유통, 관광서비스업이 번성한 지역에 비해 지역기반이나 사회적기능, 소득수준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있던 사람도 떠나게 되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의 노령화된 농촌인력마저 끝날 때 쯤이면 심각한 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역황폐론이나 지역주의(Localism)를 새삼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오랜 역사를 이어온 황성의 미래를 위해 그 주체적 독립성과 테마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앞에 필연으로 다가오는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황성의 생존과 존립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황성이 (서울) 4대문 밖에서는 개성, 안성과 더불어 제일가는 시장경기를 누린적도 있었다.

그 당시만해도 시장경기는 곧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세월의 변화속에 침잠(沈潛)해버린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역사의 주인공

은 늘 변화에 앞장선 사람들이고 모범적으로 변화를 수용한 사람들이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벤처형 인간(Venture man)들이 썸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과 문화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사회가 펼쳐질 21세기에는 미래를 향한 황성의 테마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나,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편리함을 한껏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다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복지를 실현한 나라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연적인 자원과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남기는 유산중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유산은 그 평가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연유산은 인간이 만들수도 없고 억만금을 주고 살수도 없으며 한번 파괴되면 되살릴수도 없는 실로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겸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한하고도 영구적으로 물려가야할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황성은 살아있는 자연환경의 보고

황성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산과 테마는 자연환경이다. 동해일출(日出)과 태백정기(精氣)를 가득담은 백두대간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생기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

둔내 삼교리(雲橋里)에서 서원 석화리(石花里)까지 동서 27km와 강림 부곡리(釜谷里)에서 청일 봉명리(鳳鳴里)에 이르는 남북 33km로 이루어진 황성은 78%가 산지로 형성되어 사방이 700~1000미터가 넘는 거봉들로 둘러쌓여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양지를 이루고 크고 깊은 산세들이 만들어 낸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면서 북으로는 섬강, 남으로는 주천강 수계를 이루어 남한강에 이르고 있다. 이보다 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고장도 드물다. 그래서인지 황성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한반도 동서남북의 중심지로서 5,6번 국도가 이곳에서 만나고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를 가로질러 옛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오가는 사람, 상주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럴만한 매력과 테마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테마로 변화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 3지대(Triple zone)개념의 구조를 형성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지대(Zone-1)는 황성읍내의 시장기능중심지대로써 이 지대의 구조와 상업적 여건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갈수록 전자 상거래가 보편화되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시장기능이 바뀌다보면 현재의 재래 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축산물과 임산물같은 지역특산물을 주 테마 상품으로한 토속적인 시장을 접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지대(Zone-2)는 그린(Green)생활중심의 주거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황성에 가장 큰 인구유입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면서 친(親)황성적 분위기를 외부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3지대(Zone-3)는 황성외곽지역을 연하는 지역으로 등산, 스키, 산악자전거, 대중골프 등과 같은 레포츠 단지과 실버타운, 자연휴양지, 야생화 감상단지, 청소년수련 및 야영파크 등 환경친화적인 테마 단지들을 벨트화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21세기형 선진구조가 되면서 새로운 문화형성과 고부가 가치의 테마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이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 시대 황성인들 모두의 의지가 담긴 종합적인 계획(Master plan)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황성은 변해야 한다

황성은 변해야 한다. 그것은 산천을 뒤엎는 일이 아니요,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황성적이고 황성만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테마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이제야말로 황성 사람들은 고정된 관념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증상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테마와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황성인의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황성인의 강한 원심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황성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에너지요, 누덕누덕 찌든 때를 빼내는 힘이 때문이다. 기나긴 역사속에 오늘을 이어가는 어사매 사람들이야 말로 지나온 세월보다도 긴 먼 훗날을 위해 황성만의 테마가 담긴 변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는 고장이 아니라 가장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황성의 미래를 향한 테마이고 황성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어사매 (제15호)

II. 강원문화인물 선양

趙冲장군의 現代的 재조명
文武兼全三元帥



趙冲장군의 現代的 재조명

박 한 실 (강원대학교 교수)

1. 고려시대의 잦은 외침

918년에 건국하여 1392년에 멸망한 고려왕조는 475년간 존속하는 동안 무수한 외침을 당하였으니 북쪽의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한족과 남쪽 일본족의 침입이 그것이다.

북쪽으로부터의 외침도 10수차례에 이르지만 특히 고려 후말기 남쪽으로부터 일본 외구의 침략은 수백회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는 삼남지방 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서해안의 모든 해안지방에 상륙하여 거의 전국을 침략하였는데 이들은 관위나 조창과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가까지도 닥치는대로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살인과 방화를 자행하며 부녀자의 겁탈과 인물의 납치도 서슴치 않는 만행을 저질러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민심은 소동하고 사회는 혼란하게 되며 인구는 감축되고 경제는 파탄나게 되었다. 또한 세수가 제대로 안되어 정부의 재정은 궁핍하게 되었으며 외구가 개경 부근에 출몰하게 될 때는 수도에 계엄을 내리기도 하고 심할 때는 천도론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의 무수한 문화재가 무수히 파괴되던가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므로 고려가 문화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반면 일본의 문화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고려가 잦은 외침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군비를 튼튼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고려가 군비를 튼튼히 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건국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고려는 태조 왕건에 의하여 건국된 나라인데 왕건은 신라말 - 후삼국 시대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지방세력, 즉 호족의 유력자 중 하나였다.

호족이란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행정권·사법권·징세권·징병권을 행사하는 영주와 같은 것인데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요새말로 「군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유력한 군벌의 한 사람인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자 왕건의 수많은 호족들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군사를 거느린 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려가 국가제도를 마련할 때에 무관을 견제하고 문관을 우위에 두는 문치주의를 택하게 되었으니 예를 들면 무관은 정삼품인 상장군까지 밖에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전쟁 수행시에 원수와 부원수는 모두 문관이 임명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지방에는 「주현군」이라고 부르는 지방군이 있었지만 소규모인데다가 서로 연계가 없어서 효율성이 없었고, 결국 정부군은 「이군육위」라 하여 중앙에 두게 되었는데 변방에 전쟁이 터졌을 경우 비능률적인 지방군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고, 중앙군이 변방에 도달할 때는 이미 많은 시일이 걸려서 고려는 피해를 입을대로 입은 다음이던가 심하면 외적이 이미 수도에 접근한 뒤였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국방 체제였다.

이와 같은 고려왕조의 문치주의와 군사견제 체제 및 비효율적인 군대제도가 결국 고려의 국방이 허술하게 된 배경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고려가 많은 외침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2. 거란의 침입과 조충장군의 활약

거란족이 흥기한 것은 10세기 초로서 고려태조 5년(922)과 7년에 사신을 주고 받았지만 국교가 열리지는 않았고 성종 12년(993), 현종 원년(1010), 현종 5년(1014), 6년, 7년, 8년, 9년(1018) 등 거란(요)의 침입으로 양국이 서로 승패를 거듭하다가 국교가 성립된 후 약 100년간 거란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는데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흥기하여 금나라를 세우고, 1125년에 요(거란)를 멸망시키고 1127년에 북송을 멸망시켜 중국 동북부에서 세력을 떨치게 되면서 약 100년간 고려와 국교를 유지했으며 13세기 초에 다시 몽고족이 흥기하여 서북쪽으로부터 금나라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1216년에 서요국은 몽고에 항복하고 금의 포선만노는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켜 동진국을 세우게 되자 이 기회에 몽고가 요동으로 깊이 진격하게 되니 이때에 그곳의 거란 유종인 대요수국의 무리가 몽고병에게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 고려서북계로 침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외침을 당한 고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외침을 수습하고 국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조충 장군이
었다.

조충선생은 고려의 문신으로서 본관이 황성조씨인데 시중 영인의 아드님이었다. 1171
년(명종 1)에 나서 1220년(고종 7)에 돌아갈 때까지 50년동안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는데
특히 1216년부터 1219년까지 4년 동안 거란족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공적을 이루
고 역사에 이름을 빛내게 되었다.

선생은 태학에 들어가 공부한 후 명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고 1209년에 국
자제주가 되고 1211년에는 대사성한림학사로서 동지공거를 겸하고 이어 동북면병마사·
예부상서를 거쳐 1216년(고종 3)에는 추밀원부사한림학사승지로서 상장군을 겸임하니
이는 선생의 재주와 능력이 문무를 겸비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해 8월에 몽고군에게 쫓긴 거란인이 고려로 침입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3군을
보내어 이를 막게 하였는 바 9월에 김치만의 군은 연주에서 거란병을 크게 격파하였으나
10월에 삼군이 위주성외에서 패군하였으므로 거란병은 12월에 남진하여 황주를 함락시키
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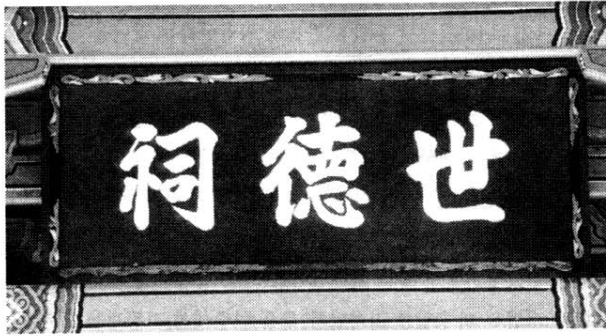
이 때에 조충장군은 행영중군부원수가 되어 출정하였는데 이듬해 봄에 신주에서 적병을
격파하고 안주의 태조탄까지 추격하다가 불의의 반격을 받아 패하게 되었고 거란병이 5월
에는 동주를 함락시키고 원주까지 진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해 10월에는 또 여진족의 황기자군이 압록강을 건너 린주·용주·정주 등지
에 침입하자 조충장군은 서북면병마사가 되어 이를 크게 격파하였으므로 다음해(1218)에
수사공상서좌복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해 8월에 거란병이 또 침입하였으므로 조충장군은 다시 서북면원수가 되어 김
치만·정통보 장군 등을 거느리고 나가 9월에 거란군을 대파하니 거란군이 강동성으로 들
어가 농성하게 되었고 고려군은 이를 포위하였는데 이 때에 몽고원수 합진이 동진병과 함
께 와서 돕겠다고 하므로 이듬해(1219) 정월에 조충장군은 몽고군·동진군과 함께 강동
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의 난을 완전히 수습하였다.

조충장군이 개신하자 고종은 장군을 정당문학·판예부사를 시키고 끈이어 수태위동중
서문하시랑평장사수국사를 더하였는데 조충 장군은 다음해(1220) 9월에 갑자기 돌아감
으로써 인생의 전성기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가 돌아가자 고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개부의동삼사문하시중을 추증하였고 뒤에 고종의 묘정에 배향하고 문정이란 시호를 내리니 신하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지위에 오른셈이다.



3. 조충 장군에 대한 현대적 조명

사람이 문과 무의 어느 한 면이라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문·무 양면에 탁월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조충 장군은 위에서 본 바대로 문·무 양면에 모두 뛰어난 능력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어 분발 노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역사상 외침을 당할 때마다 많은 충신·열사들이 나와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바 조충 장군은 고려 중기 거란의 침입을 당하여 이를 수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써 우리 역사상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셋째로는 우리 역사상 잦은 외침을 당하는 것을 반성하여 앞으로는 군비를 확충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교훈을 주어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조충 장군의 역사를 재조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에 조충 장군을 강원도의 「이달의 자랑스런 강원 문화 인물」로 선정할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文武兼全三元帥

橫川(橫城)趙氏 始祖諱翌 又 諱昱은 平章事 趙瞻의 子라한다.
公의 七世孫永仁

● 조영인(趙永仁 1133~1202)

고려 명종 때의 재상으로 시호는 문경이고 본관은 횡성이다. 상서 시언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재상의 기량이 있었고, 박학하여 글을 잘하였다. 의종 때에 문과에 급제한 후 출사하여 전주의 서기가 되어 선정으로 명성을 떨치고, 명종이 즉위하자 태자의 보도를 맡았으며, 1174년(명종 4)에 좌사원외랑으로 하정사가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승선이 되어서 잘못을 바로잡은 일이 많아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 1185년에 우승선으로 국자감시의 시원이 되어 시·부로 최문목 등, 십운시로 정광우 등을 선발하고 그밖에 명경 5인을 뽑았다. 1190년에 동지추밀원사가 되었고 이듬해 참지정사·정당문학·한림학사 승지가 되었다. 1192년에 동지공거가 되어 손희작 등 29인을 진사로 선발하였다. 1194년에 수태위상주국이 되어 임금을 도와 국사를 돌보니 세상의 여론이 그를 존경하였으며 1196년에 권판이부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판이부사가 되었고 뒤이어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 감수국사가 되었다.

1198년(신종 1)에는 금나라 사신이 와서 전왕(명종)이 양위한 사유를 묻고 직접 만나 보려 하는 것을 “전왕은 남주에서 요양중이나 노정이 30일 걸리는 거리고 만나보려면 2~3개월이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여 금나라 사신을 되돌려 보내서 왕의 폐립으로 야기된 금나라와의 외교문제를 무난히 해결하였다.

1199년(신종 2)에는 전주사록을 보수하였는데 동료들과의 불화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1201년(신종 4)에는 노쇠하여 눈이 어두어 정사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권력이나 관직을 탐하지 않는 고결함을 보였다. 1204년에 문하시중으로 치사하였으며, 이듬해인 1202년(신종 5) 9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

며, 황성의 세덕사에 배향되었다.

조영인의 아들중 장남 준은 신종 3년에 호부시랑우간의대부가 되었다. 그는 충수의 여서인데, 충현이 청요함을 알고 시직에 제수하게 했다.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조충(趙冲 1174 ~ 1220)

고려시대의 무장, 문신이며 자는 담약이고 시호는 문정이다 본관은 황성이고 조영인의 아들이다. 부친인 조영인, 아들 조계순과 더불어 3대가 원수를 지냈다하여 삼원수라 부르며 공근면 상동리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 매년 봄, 가을에 제향을 올려왔고, 이에 이곳 지명을 '삼원수골'이라 부른다. (현재 : 세덕사는 1988년에 황성군 황성읍 정암3리 망백으로 이전 1990년<경진> 음력 9월3일 봉안. 매년 음력 3월3일 춘향제는 후손이 봉행하고 9월3일 추향제는 유림에서 봉행함. 문정공묘지석 도유형문화재 110호 지정)

『고려사』 열전 제16권에 보면 조충은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서 효동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또한 황성조씨 족보에 의하면 그는 상동리 자지봉 아래 있는 굴바위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이 조촌이라 불렀다는 것과 다시 이곳에서 300m 아래쪽에 있었다는 선강정에서 이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충은 음서를 받아 간정도독판관에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조영인으로 인한 입사 즉, 부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태학에 들어가는 고예시에서 여러번 우등을 차지하여 드디어는 상사에 오르게 된다. 1190년(명종 20)에 진사과에 급제하였는데 같이 급제한 인물은 모두 30인이었다. 그 가운데 이규보는 조충 집안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한 듯 하다. 이는 이규보가 30세때 조영인에게 수령직을 구하는 시가 있고 조충의 뇌서를 쓴 것에 알수 있다. 조충은 급제후 내시부에 속직되었다가 이어 각문지후, 상식국봉어에 오르고 다시 호부원외랑, 공부랑중이 된다. 1196년(명종 26)에는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1209년(희종 5)에 국자제주로서 추영수 등 66인을 시취하였다. 1211년에는 대사성 한림학사로서 동지공거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진사과의 강창서 등 28인을 선발하였다. 그 후 동북면병마사, 예부상서를 거쳐 1216년(고종 3)에는 추밀부사 한림학사승지로서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문신으로서 상장군을 겸한 예는 문극겸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조충이 문무를 겸한 인재를 하여 특별히 제수하였다고 한다.

고려 고종 즉위 후 북방 대륙에서는 몽고가 흥기하여 여진족인 금을 제압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만주에서는 거란유종이 일어나 대요수국을 세웠다. 거란의 걸노는 금산등과 더불어 1216년(고종 3)에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참지정사 정숙침을 행영중군 원수로 하고 조충을 부원수로 삼아 경도인 가운데 종군 가능자와 승군을 모아 출정하였다. 그러나 정숙침은 퇴패하고 오직 조충만 군사를 독려하여 정숙시켰다.

고려군은 1217년 초기의 부진을 씻고 7월부터 황려현(지금의 경기도 여주) 전투와 제주(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의 박달현전투의 대승과 명주(지금의 강원도 강릉)에서의 혈전을 통하여 거란족을 여진 지역으로 몰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진의 갈라진 지방에 들어갔던 거란족은 여진의 군사를 얻어 세력을 회복하고, 다시 1217년 10월에 장성을 넘어 침입하여 진군병마사였던 김취려와 예주(지금의 함경북도 정평)의 생전에서 교전하고 일단 물러갔다. 이때 김취려는 갑자기 병이 위독하여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고려는 김취려가 없는 상황에서 거란의 강력한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철령 이북의 땅 대부분을 내주고 말았다.

1218년 3~4월이 되자 거란족은 함경·평안 2도의 분수령을 넘어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고려 조정에서는 좌간의 대부 김군수를 조충에 대신하여 서북면병마사로 삼아 거란족에 대처하려 하였으나, 몇 차례의 승리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이에 고려조정은 7월 다시 군을 정비하여 수사공 상서좌복야 조충을 다시 기용하여 서북면원수로 삼고, 병에서 회복한 김취려를 다시 병마사로 삼았으며 정통보를 전군으로, 오수기를 좌군으로, 신선주를 우군으로, 이림을 후군으로, 이적유를 지병마사로 각각 삼아 거란족 토벌에 나가게 하고, 또 여러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돕도록 하였다. 드디어 조충 등은 1218년 9월 6월에 군사를 발하여 동주에 이르러 동곡에서 거란족을 물리쳐, 그들의 모국, 고연과 맹안 아로를 사로잡고, 성주로 나아갔다. 동주전투에서 거듭 패배한 거란족은 그들의 최후 보루였던 강동성으로 들어가 거칠게 저항하게 하였다.

이때에 1만인의 몽고군과 2만의 동진군이 거란족을 토벌한다고 성언하면서 함경도지방을 거쳐 성천, 강동 등지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몽고의 원수 합진은 태조의 명을 받아 동진을 쳐 신종께 한 다음, 지금의 간도지방으로부터 함흥평야를 거쳐 정평의 장성을 넘고 화주(지금의 영흥), 맹주(지금의 맹산), 덕주(지금의 평안남도 덕천), 순주(지금의 평안남

도 순천) 등 4성을 공격한 뒤 강동성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다. 그런데 폭설로 군량의 보급로가 끊기고 거란족이 굳게 성을 지키자 몽고 원수 합진은 고려의 서북면원수 조충에게 사 람을 보내 충분한 군량미의 보급과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몽고 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눈앞의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군판관 김양경(뒤에 인경)에게 정병 1천을 거느리고 쌀 1천석을 호송하게 하였다. 이듬해 정월 몽고 원수 합진은 강동성의 공격을 위해 다시 고려군의 증파를 요구 해 왔다. 이에 병마사 김취려는 지병마사 한광연과 함께 십장군의 군사와 신기, 대각, 내상 의 정병을 거느리고 몽고군에 합세했으며 뒤에 서북면원수 조충도 가세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의 정병을 비롯하여 몽고, 동진의 연합군이 거란족이 웅거한 강동성을 총 공격하게 되었다. 당시 취한 전략으로는 우선적이 도망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아 래에 너비와 깊이 각 10척의 못을 팠으며, 성의 남문에서 동남문까지는 동진의 완안자연 이 맡고, 동문 이복은 김취려가 맡았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궁지에 몰린 거란족 40여명은 성을 넘어와 몽고군에 항복하고 괴수 함사왕자는 목매어 자살하였다. 그 뒤를 따라 적의관 인, 군졸, 부녀자들이 서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는데, 그 수가 5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때 합진과 조충이 함께 적이 항복하는 상황을 순시하여 거란족 왕자와 처자와 승상, 평장 이 하 주요인물 1백여명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용서하여 군사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 이리하 여 마침내 1219년에 연합군에 의해 강동성의 거란족은 완전히 소탕되어 3년동안 고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거란의 난은 일단락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몽고와 비로소 접촉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맹약으로 인해 몇년뒤 고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몽고의 간섭을 받는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편, 강화 직후 합진은 거란인의 부녀와 동남 7백명만을 고려에 남기고 소수는 전공의 대가로 조충과 김취려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내몽고의 파림에 이주시켰다. 이에 조충과 김취려는 거란인 포로를 모두 고려의 백성으로 삼아 각 도의 주현에 토지를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게 하였는데, 이를 시속에 거란장이라 불렀다. 조충은 개선하여 정 당문학 관예부사에 오르고, 곧이어 수태위 동중서문하시랑평장사 수국사가 더해졌다. 말년에는 독락원을 만들어 사대부들과 금주로써 즐기다가 1220년에 50세로 생을 마쳤다. 그가 죽자 3일간 조회를 철하였으며, 개부의동삼사 문하시중이 추증되고 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고려 태조, 고종, 문종, 원종과 함께 고려 충신 16인 열위의 한분으로 숭의전에 배향되었다.

그의 묘소는 지금 북한방인 개성군 상도면 연동의 태조왕비제능 서편 언덕에 있었던것을 6·25동란 전인 1948년 지금의 황성군 정암리의 망백으로 옮겨 왔다.

조충과 연관된 지명을 살펴보면, 공근면 부창리에 있는 망제 머리는 그의 부음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드린 곳이고 배행고개는 3원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망백은 벼슬에 오른 후손들이 조상께 사린다는 뜻이라고 전해 진다. 조충이 부원수로 출정했다가 패하여 면직된 뒤에 읍은 시에서 그의 한과 애국심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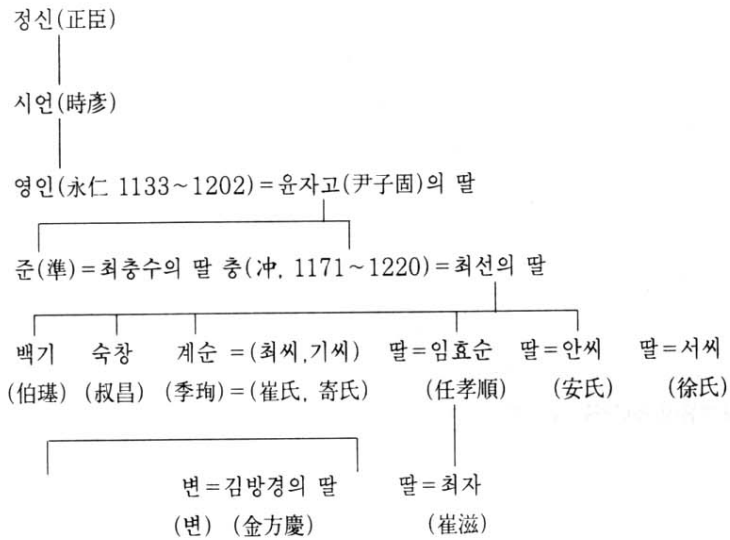
만리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 졌으니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저바뀔 줄 몰랐노라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꺾어나 보자

숭의전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 조계순(趙季珣)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황천이다. 시중 영인의 손자로 조충의 아들이다. 숙창은 형이며, 변은 아들이다. 1215년(고종 2) 3월에 중랑장 추밀원부사를 거쳐서 은청광록대부에 올랐으며 남주에 침입한 황건적을 물리쳐서 그 용맹성을 널리 떨치고 후설(임금의 말을 아래로 전하는 일, 즉 재상을 이름)을 겸하였다. 그는 문신으로서의 활동도 눈부셨지만 무신으로서의 활약이 더 훌륭하여 상장군으로 무신의 벼슬에 올랐다. 1250년(고종 37)에는 좌승선이 있었는데 당시 무인집정자인 최항에게 딸을 출가시켰다. 이해 추밀원부사에 오른뒤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광정이다. 조계순의 처는 우봉최씨로 진강공 최충현의 딸이다. 『고려사』 / 『고려사절요』

〈조충의 가계〉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진단학회』 / 『한국사』 - 중세편(을유문화사) 1961 /
 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 『황성군지』 / 『조충묘지명』 /
 『강원사학』 제4집

어사매 (제15호)

Ⅲ. 연구문(全國鄕土文化 研究 應募作品)

橫城地方의 勞動謠 研究



橫城地方의 勞動謠 研究



정 재 영 (횡성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34
2. 研究史 考察	36
3. 자료 및 연구 방법	40
2) 연구 대상 자료	40
3) 연구 방법 및 문제 제기	41
II. 횡성 勞動謠의 지역적 특징	
1. 지리적 배경	43
2. 역사적 배경	44
3. 문화적 배경	47
III. 횡성 勞動謠의 분류 및 傳承樣相	
1. 횡성 노동요의 자료 개관	51
2. 횡성 노동요의 분류 및 전승양상	57
IV. 횡성 勞動謠의 성격	
1. 횡성 노동요의 思想美學	61
2. 횡성 노동요의 입체적 접근	62
3. 횡성 노동요의 평면적 접근	84
1) 횡성 노동요의 내용분석	84
2) 횡성 노동요의 기능별 실상	92
V. 마무리	96
※ 참고 문헌	98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구전되어 온 노래이다. 여기서 '민중'이란 '서민, 평민, 백성' 등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포괄하는 말이다. 따라서 민요는 지배계층이나 지식층과 같은 소수 상층 계급의 노래가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서민들의 노래이다.

민요는 민중들의 노동현장이나 놀이판에서 불러짐으로써 그들의 흥취나 신명을 돕기도 하였으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력을 증강시키기도 하였다.

지난 날 우리 조상들은 사랑과 리듬이 넘치는 평화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나무하는 초동이 지게 목발을 두드리거나 땅에 코 박고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동작이며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 다듬이 돌을 두드리던 그네들의 동작 하나 하나가 장단이었고, 이에 맞추어 부르던 것이 민요였다. 그러므로 민요는 우리의 핏줄 속에 맥맥히 살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가락이다. 이런 민요야말로 초동으로부터 아낙네들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설움과 기쁨, 사랑과 미움 등의 순수한 인간 감정을 특별한 기교나 수식 없이 솔직하게 읊어 口傳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요 속에는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우리 조상들의 生活觀이나 사상이 거울처럼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민요는 한국의 민중들이 남달리 겪은 생활 감정과 사상을 표출하여 가장 한국적인 양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庶民文學의 대표가 되며 또한 나아가서는 한국문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민요는 민족의 사고방식과 행위가 잘 반영되기도 했지만, 또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컸으므로 민족적 특성의 고취에도 자못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민요는 헤르더(J.G Herder)의 말대로 민족 喜怒哀樂의 內的 생활이 잘 반영된 민족의 기록이요, 역사의 자량이기도 한 것이다.

민요는 그 기능에 따라 勞動謠, 儀式謠, 遊戲謠 등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민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요는 노동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만큼 노동요는 민요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노동요는 민중들이 노동의 고됨을 덜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르는 민요이다.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의 힘듦과 지루함을 잊고 즐거운 가운데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흥이 나서 힘이 적게 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의 경우 노동요를 부름으로서 행동의 통일을 기해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결국 노동요가 지닌 의미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작업 능률을 올리게 한다는 데 있다.

상위의 개념인 민요가 민중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면, 노동요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작업의 독려, 일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일의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 등 노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뿐 아니라, 人生無常, 남녀간의 사랑 등 노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감정까지도 표현한다. 노동요는 민중에 의해 생성, 발전되어 왔고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민중의 노래이다. 또한 노동요는 사람이 땅을 캐며 땅과의 일체감에서 흥겹게 부른 삶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원초적 노동요에는 지적 갈등이나 분열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노동요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生命的인 核을 노래할 수 있으므로 정직한 文學이다.

횡성지방에는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횡성 회다지 소리를 비롯해 우밀어러리 타령(1991.전국대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정금 미나리 타령(1983.대대회 우수상)등 강원도의 순박한 정서가 담긴 傳統民謠가 여러 편 전승 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노래인 노동요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점차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횡성의 민요에 대한 연구는 '횡성회다지 소리'에 대한 연구와¹⁾ '횡성의 전래동요 연구'²⁾ 만 보일 뿐 이렇다 할 연구물이 없는 형편이다.

서민들의 삶과 한을 노래한 庶民文學의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전통 노동요를 發掘하고 총체적으로 文書化하며, 횡성 노동요의 내용과 성격을 고찰해서, 횡성 노동요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노동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고장의 전통 문화

1) 김선풍, "횡성 회다지 연구",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6).
신동원, "강원 횡성지방의 만가 고찰", 『청람어문학』, (한국교원대학교, 1994).
이희동, "정금 회다지 소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2) 정재영, "횡성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 연구", 『제12회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 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 연합회, 1997).

예술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증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요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들을 살살이 살피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을 총망라해서 민요의 종류 단위로 어느 한 종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이다.³⁾

1970년대 이후⁴⁾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요연구는 道 단위 또는 市, 郡단위 지역별 연구나 하위 갈래별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⁵⁾

본 연구는 횡성 지역⁶⁾ 노동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횡성 지역 노동요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 특징과 자료 개관을 통해 횡성 노동요의 傳承樣相을 살펴보고, 횡성 지역에 구전되는 노동요를 노동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횡성 노동요의 기능별 특징과 가사에 담긴 내용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사상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횡성 노동요가 불려지는 구연 현장을 중심으로 그 기능별 실상을 살펴서 횡성 노동요만이 가지는 특징을 찾고자 한다.

2. 研究史 考察

1) 노동요의 개념과 범주

노동이란 인간 생존에 불가결한 것으로서 외부인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물론 육체적 노동을 말한다. 오늘날처럼 신분적인 계층분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라고 하면 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⁷⁾ 노동은 인간의 자연스런 삶의 활동으로 떳떳한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기층민들은 즐거웠으며, 즐거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흥에 겨워 즉흥적 노래

3) 김영돈, "민요연구의 과제와 관점", 『민요론집』 창간호, (서울: 민요학회, 1988), 17p.

4) 임동권은 고정옥에 이어 민요사를 정리했고, 조동일은 영남지방의 서사민요를 수집하여 장르론적 특성, 문체, 유형, 전승론을 체계적으로 다뤄 민요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다카하시가 『濟州道の民謡』, 를 일본 大理大에서 간행했으며 김선풍은 한국의 시가를 민족학적 입장에서 밝히는 듯 자못 민요연구사의 기틀이 마련 된 시기이다.

5) 박창원, "포항 지역의 노동요 연구",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2p.

6) 횡성군의 9개 읍·면(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청일면)

7) 한국의 농촌사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를 불렀던 것이 노동요이다. 노동요는 이렇게 태동된 것이다.

노동요란 일터에서의 민요이다. 노동을 수행하는 민중들은 노동의 고됨을 덜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요를 불렀다. 그러므로 노동요는 민중들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노동요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요는 민중들의 각각 주어진 일에 맞게 형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목도소리』를 부르거나 반대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지경 다지는 소리』를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일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노동요의 형성과 구성은 그 기능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동요들은 노래 하나 하나마다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요가 그렇지만은 않다. 황성 지방의 대표적인 노동요인 『황성어러리』처럼 흔히 농부들이 나무 할 때 주로 부르는 노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낙네들이 산에서 나물을 뜯을 때 부르기도 하고 밭을 매면서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처럼 노동요는 일하는 민중들이 어떤 노동요가 또 다른 일을 하는 데에도 알맞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가져다 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분히 실험적이며 일시적인 의도로 시작하겠지만 그 노래가 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관습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기능 노동요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민중들은 그들의 노동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가창유희요까지도 가져다 노동현장에 쓰곤 한다. 황성 지방에서 아낙네들이 밭을 매 때 많이 부르는 『시집살이 노래』는 원래 노동요가 아닌 歌唱遊戱謠다.

그러나 밭을 매 때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 가슴 속 응어리진 恨을 풀기 위해 그네들은 그 노래를 가져다 즐겨 불렀다. 노동요의 범주는 이와 같이 일의 공동체가 일의 도구로써 정해둔 노래에 한정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념상 문제일 뿐 일시적으로 일의 필요에 의해 전용된 노래라 할 지라도 노동요로서 상황적 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노동요 研究史 考察

우리 나라의 민요 채집은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으며 고려시대는 채집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세종 때 박연은 노래와 악전을 정리하면서 군신의 도에 합하는 것, 부자의 思惠가 깊은 것, 부부의 절의와 형제의 우

애, 朋友의 신의를 읊은 것 등으로 윤리적인 분류를 하였다.⁸⁾

서지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甲午更張 이래 최초의 민요수집은 J.S.Gale의 『Korean Songs』(1898)에서 이룩됐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두 차례 이어졌고⁹⁾, 지송옥¹⁰⁾, 엄필진¹¹⁾ 등에 의해 기초가 잡혔으며 김소운¹²⁾과 임화, 이재옥¹³⁾ 등의 발전 단계를 거쳐서 임동권¹⁴⁾, 한국정신문화연구원¹⁵⁾, 문화방송¹⁶⁾ 등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화방송에서 펴 낸 『한국민요대전』에는 전국의 민요들이 악보와 함께 CD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괄목 할 만하다.

강원도의 민요 수집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조선총독부의 작업에서 구체적인 수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開闢』誌에서 “조선문화 기본 조사 : 강원도 편”이라는 특집을 꾸며서 민요와 약간의 동요를 수록한 바 있다.¹⁷⁾ 최근에 와서 임동권의 『한국민요집』과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에 대대적인 수집이 이루어 졌으며 부분적이지만 이소라의 『한국의 농요』에도 강원도 일부 지방의 민요가 악보와 함께 실려 있다. 횡성 지방의 민요에 대한 수집은 앞서 말한 『한국민요집』, 『한국구비문학대계 2-6, 2-7』, 『한국의 농요』에 일부 실려 있고, 그 밖에도 강원도에서 발행한 『민속지』, 『횡성군지』, 송진규의 민요기행집 『한 소리 삶의 노래』(1994)에 몇 편씩 실려 있을 뿐 총체적인 횡성군 민요집은 아직 없다.

研究史 쪽에서 보면 민요 연구의 효시로 꼽히는 고정옥¹⁸⁾의 탁월한 업적과 이를 보완한 임동권¹⁹⁾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8) 이청학, “강원도 민요연구(1)”, 제9집 (강원민속학회, 1991) 76p.

9) 1912년 수집된 39편 182수와 1933년, 1934년에 수집된 2편 2수가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Ⅱ(집문당, 1981)』에 수록되어 있음.

10) 지송옥, 『新舊時行雜歌』, (경성: 新舊書林, 1914)

11) 엄필진, 『조선동요집』, (경성: 彰文社, 1922)

12) 김소운, 『조선민요집』, (동경: 岩波書店, 1933)

_____, 『조선구전민요집』, (경성: 第一書房, 1933)

_____, 『구전민요집』, (경성: 박문서관, 1939)

_____, 『조선민요선』, (경성: 박문서관, 1940)

13) 임화, 이재옥, 『조선민요선』, (경성: 學藝社, 1939)

14) 임동권, 『한국민요집 I ~ Ⅱ』, (서울: 집문당, 1961~1881)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서울: 정문연, 1980~1988)

16)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서울: 문화방송출판부, 1996)

17) 개벽 제4권 20호(경성: 개벽사, 1923. 12)에는 강원도 민요 4편(5수)과 동요 2편(3수)가 수록되어 있다.

18) 고정옥, “조선민요의 분류”, 『春秋』, 2권 3호(경성: 춘추사, 1941. 4.)

19)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74)

노동요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송석하의 “남방이앙요”²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일부의 移秧謠를 남방이앙요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김사엽은 “농민과 민요”²¹⁾라는 논문에서 민요를 노동 민요와 오락민요로 나누고 노동민요는 다시 農歌, 移秧歌, 積麻歌로 오락민요는 쾌지나, 의식이, 지신밟기로 분류하고, 민요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한 뒤, 결론으로 향락주의의 사상과 도피적인 도교 내지 불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

노동요의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김무현의 『한국노동민요 연구』²²⁾가 있다. 그는 논문에서 민요의 중심을 노동요로 보고, 노동요를 思想美學的 觀點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의 육체적 삶의 기본 조건인 노동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호흡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증시하는 태도로서 노동요의 개별적 연구와 함께 보편적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는 한국 노동요의 분류이론으로 노동의 생산목적에 따른 기준, 노동의 공간을 따른 기준, 노동의 구체적 기능에 따른 기준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며 일반 분류로는 의, 식, 주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특수분류로 9가지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노동요 연구는 아니지만 서사민요의 대표격인 길쌈노동요를 주로 다룬 조동일의 『서사민요 연구』²³⁾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서사민요는 길쌈노동으로 생겨났으며 길쌈 노동에 임하는 여성들의 인물의 특성과 성격, 사건 그리고 남성들로부터 억압받는 여성들의 항거와 여성 해방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이소리는 『한국의 농요』에서 노래의 배경뿐만 아니라 가창 방법, 노랫말, 장단, 선율 등 민요를 음악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정리했다.

강원도 지방의 민요에 대한 연구는 김창록²⁴⁾이래 얼마간의 논저들이 뒤를 이었으나 다양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²⁵⁾

또한 강원도 민요 연구는 정선 아리랑 연구(서병하, 강등학, 장관진, 정우택)라든가 강릉지방의 민요 연구(김선평, 이동철)처럼 특정 지역이나 특정 노래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다.

20) 송석하, “남방이앙가”, 『신조선』, 3호, 1932.

21) 김사엽, “농민과 민요”, 『조광』, 7권 4호, 1941.

22) 김무현, 『한국노동민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6. 6.

23)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24) 김창록, “영동지방의 민요고찰”, 『文湖』, 창간호(서울: 건국대, 1960)

25) 이동철, “강원도 동해안 지역 민요고” 『관동민속학』, 10.11합지비(강릉관동민속학회)

강원도의 노동요연구는 강등학의 “강릉, 명주 지역의 농요에 관한 서설적 연구”²⁶⁾ 김선풍의 “강릉 지방의 농요고”²⁷⁾, 김진순의 “강원도 지역 ‘소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²⁸⁾ 등이 눈에 띄나 강원도 노동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중 김진순의 연구는 강원도 전역을 발로 뛰며 소몰이 소리를 채록하고 현장론적 연구 방법으로 소몰이 소리의 구연 상황과 구연 현장에 따른 사설의 특징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강원도 노동요 연구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횡성 지방의 민요 연구물로는 의식요인 횡성지방의 회다지 소리를 연구한 김선풍의 ‘횡성 회다지 연구’(1986)와 이회동의 ‘정금 회다지 소리 연구’(1996), 신동원의 ‘강원횡성지방의 만가 고찰’(1994)등이 있고 횡성지방의 전래동요만 연구한 정재영의 “횡성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 연구”가 있다. 이처럼 횡성지방의 민요 연구는 아직 미진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노동요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물은 한편도 없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어느 지방 못지 않게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물씬 풍기는 노동요들이 다수 구전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연구가 따르지 못함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자료

본 연구에 사용할 노동요 자료는 횡성 관내 9개 읍·면에 구전되는 노동요 중 문헌에 수록된 노동요를 원칙으로 하며 그 동안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한 노동요 작품과 방송매체에 의해 소개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문헌으로는 한국정신문화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횡성군편>』(1984), 문화방송에서 펴낸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1996), 이소라의 『한국의 농요』(1993)²⁹⁾, 송진규의 『한국의 소리, 삶의 노래』(1994)³⁰⁾, 횡성군의 『횡성군지』(1986)³¹⁾, 강원도의 『민속지』

26) 강등학, “강릉, 명주 지역의 농요에 관한 서설적 연구”, 『인문학보』, 제6집(강릉:강릉대 인문과학 연구소, 1988).

27) 김선풍, “강릉지방의 농요고”, 『임영문화』, 제2집(강릉:강릉문화원, 1978).

28) 김진순, “강원도 지역 ‘소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 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29) 이소라, 『한국의 농요』, (서울:민속원, 1993)

(1989)³²⁾, 황성근과 강원향토문화연구회에서 펴낸 『황성근의 역사와 문화 유적』(1995)³³⁾,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의 『강원문화연구』(1990), 정재영의 연구물이 실린 『전국향토문화 연구 발표회 <수상논문집>』(1997), 둔내면에서 펴낸 『둔내면지』(1998)³⁴⁾, 강원도의 『강원의 전통 민속 예술』(1994)³⁵⁾에 수록 된 황성의 노동요만을 발췌해 연구 자료로 삼았으며, 정금 민속예술 보존회에서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던 노동요와 1994년 원주 문화 방송에서 연구자와 일년동안 황성 지방의 전래소리를 영상으로 담은 '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방영된 소리들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2) 연구 방법 및 문제 제기

노동요의 연구목적은 과거의 한국 기층문화 예술의 이해를 깊게 하고 그 인식을 옹기하기 위함에 있다. 노동요 연구란 바로 그 고장의 노동요를 연구하고 아울러 그 고장 문학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민요연구는 원심적 목표로 집중되고 구심적 연구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료 나열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연구와 질의 연구를 통한 구체적 자료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그리하여 황성 노동요 하나 하나에 내재 해 있는 생명체적 호흡을 思想美學的 측면에서 탐구 해 보겠다.

민요는 지금까지 문학, 민속, 음악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왔는데, 民謠學 이라는 학문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민요학은 민요에 관한 문학적, 민속학적, 음악적 연구 방법을 두루 포괄할 때만 진정한 학문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唱子가 구연하는 노래는 사설, 기능, 가락을 갖추고 있는데, 사설을 중심에다 놓고 다루는 것은 문학적 연구이고, 기능에다 중심을 두고 다루는 것은 민속적 연구이며, 가락을 위주로 다루는 것은 음악적 연구이다. 물론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며 총괄적 연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가 되겠지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

30) 송진규, 『한 소리, 삶 노래』, (원주:북원출판인쇄사, 1994)

31) 황성근지편찬위원회, 『황성근지』, (황성근지편찬위원회, 1986)

32) 강원도, 『민속지』, (춘천:강원일보사 출판국, 1989)

33) 황성근, 『황성근의 역사와 문화 유적』, (춘천:강원문화사, 1995)

34) 둔내면지 편찬위원회, 『둔내면지』, (춘천:도서출판 산택, 1988)

35) 강원도, 『강원의 전통 민속 예술』, (춘천:강원일보사, 1994)

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문학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일에 따른 노동요의 기능면과 병행하여 횡성 노동요에 접근하려고 하며, 음악적인 면은 연구자의 음악적 식견이 너무 일천해 후일로 미룰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횡성 노동요에 접근 하려고 한다.

제Ⅱ장에서는 횡성 노동요의 배경이 되는 이 고장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문헌을 통해 고찰 해 보고 횡성 9개읍, 면에 口傳되는 노동요를 개관 해 보려고 한다.

제Ⅲ장에서는 횡성 노동요를 일의 기능에 따라 농업노동요, 벌목 노동요, 채취 노동요, 토목 노동요, 길쌈 노동요, 가사 노동요, 수공업 노동요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채록된 136편의 노동요를 기능별, 지역별로 분류해 횡성 노동요의 전승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횡성 노동요의 총체적인 기록화 문서화에 주안점을 둔다.

제Ⅳ장에서는 횡성 노동요의 개별적 조명을 통해 노동요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요 각편에 내재 해 있는 내용들을 사상미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횡성 노동요의 성격을 살펴보고, 노동요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기능별 실상을 탐구해 보려는 게 연구자의 의도이다.

제Ⅴ장에서는 제Ⅱ,Ⅲ,Ⅳ장의 연구를 토대로 횡성 노동요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의를 밝혀 보려고 한다.

Ⅱ. 橫城 勞動謠의 지역적 특징

1. 지리적 배경

횡성군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남쪽으로는 원주시, 영월군, 북쪽으로는 홍천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횡성군은 태백산맥과 연계된 지역으로 도내 다른 곳과 같이 주로 山地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대인데 비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최저지대가 횡성읍의 표고 110m이고 둔내면은 평야지가 500m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그 격차가 크며 東高 西低의 지형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1993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에 시작 된 횡성 다목적 댐이 1999년에 완공되어 담수가 시작되면 농경지 3,279필지 621만 5,000㎡가 수몰되며 갑천면 부동리, 중금리, 화전리, 구방리, 포동리등 5개리 253세대가 물 속에 고향을 두고 떠나게 된다.

횡성군의 총면적은 97년도말 현재 997.7km²로 도내에서 8번째이며 강원도 전체 면적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이용별 구성비를 보면 임야가 78%를 차지하고 있고 논이 6%, 밭이 9%로 밭이 논보다 약간 많다.

옛부터 횡성은 사통 팔달의 고장으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독특히 해 왔으며 중앙고속도로(건설중)와 영동고속도로가 郡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공근면과 홍천을 잇는 5번국도,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잇는 42번 국도, 그리고 서원면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가 횡성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횡성에는 철도가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

횡성군은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50%가 넘는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구조가 농업을 중심으로 관련지어져 있다.

농민들은 식량작물을 주로 재배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이 높은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 재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횡성군의 인구는 1965년에만 해도 10만명이 넘었으나 8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현

상으로 인해 현재는 약 4만 7천명 밖에 안 된다.

이처럼 횡성군은 산지가 대부분이고 전형적인 農業郡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산지를 중심으로 벌채 노동요가 많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평야 지대에는 미작 중심의 농사와 관련되는 논농사 소리가 발달했고, 산지의 경사가 낮은 곳을 이용한 밭농사 지대에는 소모는 소리가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다와 큰 강이 없는 본 군에서는 어업 노동요는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80년대 들어 급격한 離農化는 민요의 전승기반을 빼앗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횡성군은 우리 나라 중부 내륙인 강원도 영서 지방에 위치한 육로 교통의 중심지로 郡民性이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며 영동과 영서문화를 혼합하여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 침략기 때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삼일 만세 운동을 일으켜 일제 침략에 거세게 항거했으며 일본 상인들이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상권을 형성하지 못했던 애국의 고장이자이다.

언제부터 횡성에 사람들이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82년 둔내면 현천리와 1994년 갑천면 부동리 계천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대개 2~3만년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까지의 횡성의 地名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지명은 於斯買(어사매)였다. 橫城이라는 지금의 지명의 근원이 되는 橫川이란 지명은 고구려 시대부터 불리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 橫川이란 이곳의 강물이 남 - 북으로 흐르는 다른 고장과는 달리 동에서 서로 즉, 가로(橫)로 빗겨 흘렀기 때문에 가로 橫자와 내 川자를 썼다고 한다.

조선시대 들어 태종 13년에 횡천에 현을 두게 되었으며, 그 다음해 태종은 횡천이란 지명이 이웃에 있는 흥천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횡성으로 고쳐 부르게 되어 그 지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횡성은 임진왜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고을이었으나 인조 5년인 1627년 횡성 둔내면에 살던 이인거가 반란을 일으켜, 횡성현을 검거하고 무기를

탈취 해 서울로 진격하려고 원주로 향하다가 원주목사에게 대패해 난은 실패하고 이인거는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횡성은 10년동안(1626~1636)현이 철폐되고, 원주목에 합쳐지는 수난을 겪었다. 10년 후 현이 다시 복구되고 고종때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횡성현이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명칭인 횡성군으로 바뀌게 된 것은 1895년 전국을 23부로 나누었던 을미년의 지방 행정 개혁 때였다.

그리하여 횡성군은 횡성, 우천, 정곡(지금의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의 8개 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3부로 나눈 행정개혁은 단 일년만인 그 이듬해(1896) 다시 13도로 통합되었다.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대원군에 의해 이곳까지 피신 해 온 다수의 천주교인들은 이곳 산골을 은거지로 삼고 숲과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살얼음판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으며, 서원면 유현 2리에 도내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4번째인 풍수원 성당을 건립했다(1888).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인 성심학원을 풍수원 마을에 세워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옹기를 만들며 즐겨 불렀던 '등치기 소리'나 '옹기 굽는 소리'가 구전되는 것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일제침략기에 들어서 일제는 그들의 침략적 야욕을 채우기 급급하여 여러차례 행정 개편과 정비가 있었으나 횡성군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1930년 邑面制가 실시될 때에도 역시 변함없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횡성은 일제에 의한 행정개편은 없었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 운동은 강원도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기만 했었다.

1919년 3월 12일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 첫 번째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후 4월 1일과 2일에 걸쳐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횡성 읍내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며 수많은 횡성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 날 만세운동으로 애국지사 5명이 피살되고 수십명이 부상했으며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횡성 사람들이 일제 헌병에 잡혀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이 만세운동은 강원도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에 견인차 역할을 함은 물론 횡성 사람들의 애국심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천도교인들이었는데 횡성에는 천도교 대교구가 있을 정도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했으며 그 뿌리는 동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제침략기 때 황성 사람들은 간교한 일제의 경제침략에도 당당히 맞서 일본 상인들을 이곳 황성에서 울고 가게 만들었다. 갖은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인 상점만을 고집했던 황성 사람들의 투철한 애국심에 일본 상인들은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따리를 싸야만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황성군은 8개 면이 계속 유지되었고 행정구역상의 큰 변경은 없었다. 1947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었던 지방자치법이 이듬해에 발발한 6.25로 지연되었다가 1950년대에 와서 실시하게 되어 지방의원 및 면장, 면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특이 할 만한 사항이었다. 1950년대 후반 황성군의 행정구역은 종전대로 8개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面 이름은 황성,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이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따라 군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영월군 수주면에 속해 있던 강림리, 월현리, 부곡리가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그후 1973년 3월 12일에 공포된 大統領令 제6242호에 의해 행정관할 구역이 다시 조정되었는데 홍천군 남면 상창봉리가 본 군에 편입되었으며 황성군 관내 관할구역의 조정이 다소 있었다.

이어 1979년 화전면 이주 정책에 따라 태기리가 없어졌으며 그 해 5월 1일에 황성면이 황성읍으로 승격되어 1읍 7면이 되었다. 그후 1983년 2월 15일 大統領令에 의해 서원면 산현리, 매호리, 압곡리 일부가 원주군 호저면에 이속되었고 우천면 정암리와 추동리가 황성읍에 편입되었다.

또 1989년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되면서 황성읍의 행정구역은 1읍 8면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 해 보면 황성은 아득히 먼 옛날, 구석기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황성 땅에 터 잡고 살아 왔으며,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진취적인 기상과 애국심으로 이 땅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한 郡民性으로 인해 황성에는 황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황성 각 고장에는 나름대로의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어 왔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한 화전정리 사업으로 인해 山地의 전통문화가 해체되면서 그네들이 즐겨 불렀던 민요도 그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며,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불어닥친 離農化 현상과 기계화 영농으로 상당수의 농업 노동요도 우리들 곁에서 사라져 갔을 것이라 추측된다.

3. 문화적 배경

이 중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³⁶⁾에서 횡성을 '횡성현은 두메속에 터가 활짝 열려서 한하게 밝고 넓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평평하여 형용하기 어려운 별스런 맑은 기운이 있다. 또 지경안에는 여러대를 살아 온 사대부가 많다.'고 했으며, 정조때 발간된 『輿地圖書』에는 횡성을 '효도가 지극하며 노인들을 공경한다. 농사일에 힘쓰며訟事가 없는 고장'³⁷⁾이라고 했다.

이처럼 강원도 영서 내륙에 위치한 횡성은 옛날부터 미풍양속의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전통적인 농경마을이다.

한편 횡성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서 3.1운동 때 선도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제 침략기 때도 일본상인들이 밭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횡성 가서 잘난 체 하지마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똑똑함을 인정받았으며, 강한 민족정신을 겁내 일본인들 사이에서 '횡성가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횡성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래서 횡성을 제2의 개성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었다.

『輿地圖書』³⁸⁾에는 횡성의 전통 신앙 제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현의 서쪽 3리에 사직단, 동쪽 3리에 文廟(문묘), 북쪽 3리에 성황당, 남쪽 3리에 여제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향교에 있는 문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찾을 길이 없다. 이 제단들은 군민의 평안과 時和年豊을 빌어 주던 곳으로 오늘날에는 이를 이어받아 매년 10월 전군민이 참여하는 '泰豊文化祭'³⁹⁾가 열리는데 전야제 날 저녁 횡성군청 옆 태풍루에서 군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문화제가 시작되며 각종 민속놀이와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어우러져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 해 주고 있다. '정금 민속예술보존회'에서는 '정금 회다지 소리'와 '우밀어러리타령' 같은 횡성 고유의 민요를 군민들에게 시연해 횡성민요의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 해 민속 마을인 우천면 정금리에서는 "泰崎文化祭"가 열리는데 전국에서 里(리) 단위 문화제는 이곳밖에 없을 듯하다. 정금 향토 민속관 놀이

36) 이중환 著, 이익성 譯, 『택리지』, (서울: 율유문화사, 1993) 56p.

37)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281p.

38) 『輿地圖書』, (1759),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07p에서 재인용.

39) 1981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10월 중순경 횡성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당에서 이틀동안 펼쳐지는 이 행사는 옷놀이, 연날리기, 짚신 삼기, 사물놀이, 농악놀이, 남사당패 공연 등 향토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민속행사와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선보이며 아울러 주최측인 '정금민속예술 보존회'의 민요 시연도 큰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횡성의 민속마을에는 '우천면 정금 마을'과 강원 민속촌이 있는 '청일면 춘당리민속 마을', 천주교 마을로 유명한 '서원면 풍수원 마을'이 있다.

정금리 민속 마을은 1995년 1월 문화체육부로부터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 문화마을로 지정 받은 곳으로 국비와 道郡費를 합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문화마을의 면모를 일신했다.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만경두레'라는 일종의 품앗이 제도가 발달하여 70~80여명이 모여 공동작업을 해왔으므로 농사에 관련된 다량의 민요들이 생기거나 전래되고 있다. 이 마을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민요로는 소모는 소리, 미나리, 단호리, 상사데이, 어러리, 회다지 소리 등이 있다.

정금리는 강원도 및 전국적인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횡성군을 대표하는 민속팀을 구성 거의 매년 출연을 해서 횡성 전통 예술의 진수를 선 보였다. 1984년에는 '회다지 소리'로 강원도 민속예술대회에서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마침내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횡성군 뿐 아니라 강원도 민속예술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 후 횡성 회다지 소리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으며 선소리꾼인 양중환은 무형문화재 제4호 기능보유자로 지정 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금리에는 전국 리 단위로는 유일한 향토 민속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 민속관에는 전통민속품 보관은 물론이고 정금소리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청일면 춘당2리에 있는 강원 민속촌은 평소 민속에 관심이 많았던 김재홍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민속품 10만 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부근에는 민속품 뿐 아니라 강원도의 전통 가옥인 움집, 귀틀집, 너와집, 돌 농애집, 새집(역새풀로 이엉을 엮은 집), 기와 집 등이 20여 채 들어 서 있고, 우리 나라의 모든 솟대와 장승 유형이 총망라되어 전시 되고 있다. 또한 민속촌 마당에는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혼례 터가 있고 민속공연을 열 수 있는 공연 터가 마련 돼 있다.

서원면 풍수원 천주교 마을은 신유박해를 피해 산골에 숨어 신앙 생활을 영위하던 천

주교인들의 마을이다. 이 곳에서 강원도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4번째로 세워진 고딕 양식의 풍수원 성당이 있다.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외진 강원도 산골로 숨어 들었고, 생계 유지 수단으로 솥을 굽거나 옹기를 구워 팔았다.

1886년 신앙의 자유가 선포 되면서 비로소 그들은 떳떳하게 그들의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열악한 처지라 신도들은 일일이 등짐을 져서 건축 자재를 운반해야만 했다. 지금도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인이고 이 마을에서는 신부가 자그만치 21명이나 배출되었다.

무형 문화재로는 1984년 대통령 상을 수상한 '횡성 횡다지 소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고 양중환이 선소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공근면의 장송모가 전통도자기 도공으로 역시 도지정 무형 문화재 6호로 지정되었다.

옛날부터 농촌 지역 최대의 문화적 공간은 시장이었다. 시장 본래의 기능인 상거래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문화의 전파 통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 과거 횡성 지역에는 5일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5일장이 개설되고 상당히 번성했으나 교통이 발달하고 대형 상점들의 상권 잠식으로 영세 이동 상인들은 그 터전을 잃었고 그에 따라 5일장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 횡성에는 유일하게 횡성장만이 그 기능을 유지 할 뿐 기타 면소재지의 5일장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 횡성장은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데 강원도에서는 양양장 다음으로 크게 열리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기 시장이다. 상인들은 전국에서 오며 소비자도 횡성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원주, 홍천, 평창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봄철에는 산나물, 가을철에는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기 때문에 서울 등지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횡성의 우시장도 규모나 거래면에서 전국적이다.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육우만 취급하며, 1일 평균 거래두수가 447두이다.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해 소를 운반하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갑천이나 멀리는 둔내에서 새벽 소를 끌고 4,50리를 걸어서 우시장엘 오곤 했다.

자연히 그런 사람들에 묻어 그 지역 특유의 문화도 정기적으로 牛市場(우시장)으로 물려들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횡성 지방의 전통민속놀이로는 용줄다리기, 횡성 회다지 소리, 정월 대보름 놀이등이 전승되고 있다. 신라 때부터 행해졌다는 용줄다리기는 칩이나 벗짚을 사용해 용의 형상을 한 용줄을 만들어 횡성읍 읍하리와 읍상리를 경계로 全郡民이 참여하여 수일을 두고 줄을 당기며 겨루었다.

이 놀이는 대개 정월 보름부터 말까지 계속됐으며 해방 전까지만 해도 매년 연례행사로 행하여졌으나 그 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0년부터 재현되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횡성의 회다지는 儀式謠(의식요)인 동시에 勞動舞로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두발차기와 세발차기의 연화가 있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 달이 올라오기 전 餵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달을 향해 그 해의 자신과 가내의 소원 성취를 빌었으며 달을 보고 그 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달맞이 행사가 끝나고 마을간에 餵싸움이 있곤 했는데 싸움에서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에 餵싸움은 때론 격해져 石戰으로 바뀌어 지기도 했다.

횡성의 구비전승도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있으며, 특히 태기왕과 관련된 전설은 갑천면과 청일면, 둔내면 지역에 고르게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횡성에는 많은 수의 전래동요가 구전되고 있는데⁴⁰⁾ 이는 그만큼 민요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횡성 지방의 문화적 기반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층문화 내지는 민중문화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 민요의 전승기반이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 해 주고 있는 것이다.

40) 정재영은 그의 논문 "횡성에 구전되는 전래동요 연구"에서 횡성의 고유 전래동요를 123편이나 발굴, 채록해 놓고 있다.



Ⅲ. 횡성 노동요의 분류 및 傳承樣相

1. 횡성 勞動謠의 資料 概觀

횡성의 노동요는 연구자가 1998년부터 2년에 걸쳐 현장론적 접근 방법과 문헌에 수록된 자료를 조사해 기능별로 정리해 연구에 임하였다.

조사 지역은 횡성군 9개 읍,면으로 모두 221편의 민요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유희요와 의식요를 제외하고 지방마다 같은 형태로 불려진 것을 제외한 순수한 횡성 지방의 노동요는 최종 136편이 남게 되었다. 전체 민요중 노동요는 60%가 넘게 채록되어 횡성지방에 노동요가 의식요나 유희요보다 월등히 많이 전승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136편의 노동요는 가급적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채록된 노동요가 문헌에 기록되어 文書化 된 작품만을 정선하여 사용했다.

노동요의 기능성을 중시해 분류도 일의 기능과 내용을 고려해 농사의 과정 순으로 체계화시키고 각각의 노동요에다 코드를 부여해 자료를 이용하기 쉽게 했다.

위와 같은 분류원칙에 입각해 횡성의 노동요를 아래표와 같이 분류했다.

표) 1

횡성의 勞動謠 분류표

분류명	일의 내용	제 목	코 드	부른사람	체록자	出 典	부른곳
A. 농업 노동요	가. 논갈이	논 가는 소리	A-가-1	김영배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천면
		논가는 소리	A-가-2	김영복	서대석	구비문학대계	횡성읍
	나. 논살기	논 삶는 소리	A-나-1	엄영태	최상일	"	"
		"	A-나-2	홍진수	최상일	"	공근면
		씨래질 소리	A-나-3	양중환	양중환		우천면
		논 삶는 소리	A-나-4	심운택	김재숙	구비문학대계	청일면
	다. 모찌기	모찌는 소리	A-다-1	신명순외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청일면
		모심는 소리(미나리)	A-라-1	엄영태외	"	"	우천면
	라. 모심기	"	A-라-2	신승달외	"	"	횡성읍
		모내기 소리	A-라-3		송진규	한의소리-	감천면
		미나리 타령	A-라-4			횡성군지	횡성군
		모심기 소리	A-라-5	김정복	서대석	민속지(강원도)	횡성읍
		모내기 소리	A-라-6			횡성군의 역사	횡성군
		모심기 소리(미나리)	A-라-7	엄영태외	이소라	횡성농요집	우천면
		모심기 소리	A-라-8	강갑룡	이소라	횡성농요집	공근면
		모내기 소리	A-라-9	전운수	서준섭	강원문화연구	횡성읍
		모심기 소리(미나리)	A-라-10	최태운	서대석	구비문학대계	횡성읍
		"	A-라-11	권영복	김대숙	"	청일면
		"	A-라-12	서구화	이수자	"	공근면
		"	A-라-13	강갑룡	이수자	"	공근면
		마. 초벌 논매기	논매는 소리(단허리)	A-마-1	엄영태외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논매는 소리(단호리)		A-마-2		송진규	한의소리-	감천면
	" (단오리)		A-마-3			민속지(강원도)	횡성군
	" (단호리)		A-마-4	권영복	김대숙	민속지(강원도)	청일면
	논매는 소리(단허리)		A-마-5	안광수의	이소라	횡성농요집	둔내면
	논매는 소리(달월이)		A-마-6	김용화	김순진	둔내면지	둔내면
	논매는 소리(단오리)		A-마-7	김용화	김순진	"	둔내면
	애벌 김매기 소리		A-마-8	이도선	서준섭	강원문화연구	감천면
	애벌 김매기 소리		A-마-9	전운수	서준섭	강원문화연구	횡성읍
	논매는 소리		A-마-10	김종철	강문순	구비문학대계	서원면
	논매는 소리		A-마-11	김근식	강문순	"	서원면
	논매는 소리(단허리)		A-마-12	최태운외	서대석	"	횡성읍
"	A-마-13		권영복외	김대숙	"	청일면	
"	A-마-14		김춘남외	이수자	"	공근면	
"	A-마-15		서해순외	이수자	"	공근면	
"	A-마-16		함재필외	강진옥	"	안흥면	

분류명	일의 내용	제 목	코 드	부른사람	채록자	出 典	부른곳	
A. 농업 노동요	바. 두벌 논매기	논매는소리(상사데이)	A-바-1	엄영태외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천면	
		" (방아타령)	A-바-2	시승달외	최상일		황성읍	
		" (상사소리)	A-바-3	김용복	김대숙	민속지(강원도)	갑천면	
		논매는 소리	A-바-4	강갑룡외	이소라	황성농요집	공근면	
		" (짜른 방아소리)	A-바-5	엄영태외	이소라		우천면	
		두벌 논매기 소리	A-바-6	우영진의외	이소라		우천면	
		" (긴방아 소리)	A-바-7	엄영태외	이소라		우천면	
		논매는소리, 멩이소리	A-바-8	김용화	김순진	둔내면지	둔내면	
		두벌김매기소리	A-바-9	이도선	서준섭	강원문화연구	갑천면	
		" (상사다야)	A-바-10	전운수	서준섭	강원문화연구	황성읍	
		" (상사데이)	A-바-11			민속지	황성군	
		" (상사소리)	A-바-12	김용복	김대숙	구비문학대계	갑천면	
	사. 세벌 논매기	논매는소리, 멩이소리	A-사-1	양중환외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천면	
		"	A-사-2	김종역외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황성읍	
		김매기소리, 세벌소리	A-사-3	권영복	김대숙	민속지(강원도)	청일면	
	아. 새쫓기	새 쫓는 소리	A-아-1		정재영	전국향토문화-	황성군	
	자. 타작소리	벼 타작 소리	A-자-1	권영복	이소라	황성농요집	청일면	
	차. 밭가는 소리	소물이소리, 호리소리	A-차-1	이선행	정재영	황성군지	황성읍	
		밭가는 소리(겨리)	A-차-2	김인환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청일면	
		" (겨리소리)	A-차-3	신명순	"		청일면	
		"	A-차-4	허성구	"		청일면	
		"	A-차-5	김영배	"		우천면	
		소물이 소리	A-차-6		송진규	한의소리-	갑천면	
		" (겨리소리)	A-차-7	이선행	정재영	황성군지	황성읍	
		밭갈이소리, 겨리소리	A-차-8			민속지(강원도)	황성군	
		"	A-차-9	권영복	김대숙	민속지(강원도)	청일면	
		저리소 모는 소리	A-차-10	윤양수	이소라	황성농요집	우천면	
		"	A-차-11	우영진	이소라		우천면	
		"	A-차-12	엄영태	이소라		우천면	
		"	A-차-13	김정복	서대석	구비문학대계	황성읍	
		밭갈이 소리	A-차-14	심운택	김대숙		청일면	
	카. 밭매기	시집살이 노래	A-카-1				황성군지	황성군
			A-카-2				황성군지	황성군
			A-카-3		정재영	전국향토문화-	황성군	
A-카-4			왕성균	정재영	MBC-	갑천면		
A-카-5			서재희	정재영	소리를 찾아서	공근면		
A-카-6			최일록	이수자	구비문학대계	공근면		
A-카-7			김양순	강진욱	구비문학대계	안흥면		

분류명	일의 내용	제 목	코 드	부른사람	채록자	出 典	부른곳
A. 농업 노동요	타. 기타 밭 일	수박 따기 노래	A-타-1	김양순	정재영	MBC-	공근면
		소 모는 소리	A-타-2	한덕교	강진옥	구비문학대계	안흥면
	파. 갈래기 풀베기	갈 꺾는 소리	A-파-1	심운택의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청일면
		풀 베는 소리	A-파-2	변형근의	최상일		청일면
		풀 베는 소리	A-파-3	양중환의	양중환		우천면
	하. 기타 농사소리	황성정금	A-하-1	정금민속	이종호	민속경연대회	
		농가월령가		보존회		출품작	황성군
B. 벌목 노동요	가. 나무하러 가는소리	나무꾼소리	B-가-1		정재영	전국향토문화-	우천면
		황성어러리	B-가-2	윤양수	이소라	황성농요집	황성군
		통성명	B-가-3			황성군지	안흥면
		꼬리따기 노래	B-가-4	정인숙	강진옥	구비문학대계	청일면
	나. 나무하는 소리	황성 아라리	B-나-1	신명순의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황성읍
		자진 아라리	B-나-2	신승달의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천면
		우밀어러리 타령	B-나-3			강원전통민속-	우천면
		황성 어러리	B-나-4	양중환의	양중환		우천면
		황성 우밀 어러리	B-나-5	김영배의	이종호	민속경연출품-	서원면
		서원 아라리	B-나-6	김종철	강문순	구비문학대계	황성읍
		아라리	B-나-7	김태순의	서대석	구비문학대계	
			B-나-8	한재순	강진옥	:	안흥면
			B-나-9	함재필의	강진옥	:	
			B-나-10	심성수	강진옥	:	
			B-나-11	주한윤	강진옥	:	
	다. 목재 운반하기	운재소리	B-다-1	양중환의	양중환		우천면
	라. 목도하기	목도소리	B-라-1	양중환의	양중환		우천면
C. 채취 노동요	가. 나물캐기	황성아라리	C-가-1	김연순의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천면
		나물뜯는 소리	C-가-2		송진규	한소리-	갑천면
		나물캐는 소리	C-가-3	김연순	이소라	황성농요집	우천면
		나물캐는 소리	C-가-4	김근식	강문순	구비문학대계	서원면
		나물캐는 소리	C-가-5	안옥순	이수자	구비문학대계	공근면
		아라리	C-가-6	이순녀	이수자	:	공근면
			C-가-7	최일록	이수자	:	공근면
			C-가-8	이순녀	이수자	:	공근면
			C-가-9	정인숙	강진옥	:	안흥면
			C-가-10	김양순	강진옥	:	안흥면

분류명	일의 내용	제 목	코 드	부른사람	채록자	出 典	부른곳
D. 토목 노동요	가. 지경 다지기	집터 다지는 소리	D-가-1	이옥균업	김대숙	민속지(강원도)	갑천면
		지경 다지는 소리	D-가-2	영태	이소라	황성농요집	우천면
			D-가-3	양중환외	양중환		우천면
			D-가-4	김정복	서대석	구비문학대계	황성읍
E. 길쌈 노동요	가. 물레질	물레 소리	E-가-1	김연순	이소라	황성농요집	우천면
		물레 소리	E-가-2		양중환		우천면
	나. 베짜기	베틀 노래	E-나-1	손홍연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황성읍
		베짜는 소리	E-나-2	김연순	이소라	황성농요집	우천면
		베틀가	E-나-3	한양숙	김순진	구비문학대계	둔내면
	베틀 노래	E-나-4	이옥균	김대숙	구비문학대계	갑천면	
F. 가사 노동요	가. 아이 어르기		F-가-1	권소남	송진규	한의소리-	서원면
			F-가-2	권소남	송진규		서원면
			F-가-3		양중환		우천면
		아이 어르는 소리	F-가-4	이종하	정재영	MBC	청일면
			F-가-5	최근하	정재영		서원면
			F-가-6	권소남	송진규	한의소리-	서원면
			F-가-7	권소남	송진규		서원면
			F-가-8			황성군지	황성군
	나. 아기 재우기		F-나-1	문무희	송진규	한의소리-	서원면
			F-나-2	권소남	송진규		서원면
		아이 재우는 소리	F-나-3	박을순	김순진	둔내면지	둔내면
			F-나-4		양중환		우천면
			F-나-5	왕성균	정재영	MBC	황성읍
	다. 재분일	맷돌소리,시집살이요	F-다-1	박을순외	김순진	둔내면지	둔내면
			F-다-2		양중환		우천면
우밀 연자매 소리		F-다-3	정금민속	이종호	민속경연출품	우천면	
G. 수공업 노동요	가. 용기굽기	등치기 소리	G-가-1	양중환외	양중환		우천면
		용기 굽는 소리	G-가-2			황성군의 역사-	황성군
		등치기 소리	G-가-3	정금민속	이종호	민속경연출품	우천면
계		136편					

♣ 분류 원칙

- 첫째, 노동요를 일의 기능에 따라 나누고(大분류) 다시 일의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순으로 中분류를 했으며 같은 소리가 여럿일 때는 아라비아 숫자 1,2,3 小분류했다.
- 둘째, 농업 노동요의 中 분류에서는 일년 중 농사일을 하는 순서에 따라 나누었다.
- 셋째, 분류 코드는 세 자리로 만들어 누구든지 코드만 보면 어떤 노동요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다.
- 넷째, 분류표에 出典의 제목이 긴 것은 약칭을 사용했다. 약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비문화대계 - 『한국구비문화대계』 -2-6, 2-7, 황성군편, 1984
 강원전통민속 -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MBC- 1994년 원주 문화방송 제작 다큐멘터리, '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
 민속경연출품 -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 출품작
 전국향토문화 - 제12회 전국향토문화 연구 발표회 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 연구회 1997
 황성군의 역사 -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황성군, 1995
- 다섯째, 大분류에서는 謠로 小분류에서는 소리로 표기했다.
- 여섯째, 두 사람 이상 소리를 했을 경우 가창자는 대표 한 사람만 썼고, 선소리군을 대표 가창자로 표기 했다.

2. 횡성 勞動謠의 분류 및 전승양상

한 지역의 민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채록된 자료의 체계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류는 단순히 자료를 정리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분류는 그 유용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⁴¹⁾

노동요는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실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요의 분류도 학자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의 민요는 김소운의 민요, 동요, 부요를 唱者별로 구분한⁴²⁾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류 기준이 마련돼 왔다.

고정옥은 민요를 唱者에 따라 男謠와 婦謠로 나눈 다음, 남성의 노동요를 '노동요'라 하고, 여성의 노동요를 '작업요'라 이름 붙였다.⁴³⁾ 이를 이어받은 임동권은 노동요를 '남성의 노동요'와 '여성의 노동요'로 구분하였다.⁴⁴⁾

장덕순, 조동일은 노동요를 농업노동요, 토목노동요, 제분노동요, 어업노동요, 채취노동요, 수공업 노동요, 운반 노동요, 길쌈 노동요, 가내 노동요로 분류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민요의 분류에서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는 고정옥⁴⁶⁾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기능에 의한 분류
- 2) 가창 방식에 의한 분류
- 3) 창곡에 의한 분류
- 4) 율격에 의한 분류
- 5) 唱者에 의한 분류
- 6) 시대에 의한 분류
- 7) 지역에 의한 분류

그들의 분류에서 부녀자들의 일인 멧돌질을 하거나 디딜방아를 쪼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별도로 '제분요'라는 항목을 설정해 넣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연구자는 이 항목을 부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판단해 가사 노동요에 포함시켰다.

41) 박창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0p.

42) 김소운, 『조선민요선』, (일문), (서울:태문관, 1929)

43) 고정옥, 앞의 책.

44) 박창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0p.

45) 장덕순외, 『구비문학 개설』, (서울: 일조각, 1985).

46) 고정옥, 앞의 논문.

김무현은 노동의 생산목적, 노동의 공간, 노동의 기능 등 3단계 기준에 따라 노동요를 분류하고, 생산목적에 따라 衣노동요, 食노동요, 住노동요로 크게 나누고, 노동공간에 따라 다시 집 안과 집 밖으로 구분해 노동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노동요분류수를 종전의 최고 29가지에서 76가지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이런 분류 방식은 노동의 생산목적, 노동의 공간, 노동의 기능 등 세가지의 다른 기준을 동시에 같은 민요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또한 그는 어린 아이를 재우는데 필요한 '자장가'를 노동요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손이 딸리는 농번기때 농촌에서 아기를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힘든 일이기에 자장가를 노동요에 포함시키는 그의 주장에 연구자도 공감한다. 이 연구에서도 아이를 돌보면서 부르는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를 묶어 가사 노동요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만가를 노동요에 포함시키는 일에는 연구자는 동의할 수 없다. 회다지 소리로 대표되는 만가는 의식요이지 노동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경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민요자료를 분류하면서 노동요를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잡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로 분류했다.⁴⁷⁾ 그러나 '풀베기 노래', '풀썰기 노래', '물푸는 소리' 등 농사에 관계되는 노동요를 벌채노동요나 운반노동요로 분류하는 등 분류에 있어서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문화방송에서 펴낸 『한국민요대전』에서는 노동요를 농요, 어로요, 기타 노동요로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노동의 종류에 따라 10가지 이상으로 세분되는 '기타 노동요'의 설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⁴⁸⁾

강동학은 농산노동요, 임산노동요, 공산노동요, 토건노동요, 운수노동요, 가사노동요로 나누었다. 이 분류 방법은 박경수의 분류 기준과 비슷하나, 논농사요와 밭농사요에 각각 포함되어야 할 '벼터는 소리', '도리깨질 소리'를 타작요로 분류하는 등 분류기준이 불명확한 곳이 눈에 띄고 농산노동요니 수산노동요니 하는 분류 명칭이 자연스럽게 못한 문제점이 있다.⁴⁹⁾

이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황성의 노동요를 기능별로 분류 원칙과 이 지역 전승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업 노동요, 어업노동요, 벌목노동요, 채취노

47) 박경수,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한국민요, 무가 유형분류집〉,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2)

48) 박창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1p.

49) 박창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1p.

동요, 토목노동요, 길쌈노동요, 가사노동요, 수공업 노동요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노동요의 명칭은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노동요는 소리로, 상위 분류 항목은 諺로 정리한다.

채록된 횡성 노동요를 위의 분류 방식으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노동요는 논농사요와 밭농사요, 기타 농사요가 채록되었으며, 전체 136편중 80편이 농업노동요였다. 이는 이곳 횡성 지방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農業郡이기 때문일 것이다.

논농사 요는 모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 소리(미나리)가 13편, 아이 논 맬 때 부르는 단허리가 17편, 세벌 논 맬 때 부르는 텅이소리가 3편이 채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논 가는 소리, 모찌는 소리, 논삶는 소리, 새쫓기 소리, 벼타작 소리가 채록되었다.

그러나 도리깨질 소리, 가래질 소리, 물푸는 소리들은 채록되지 않았다.

밭농사요는 호리소리와 겨리 소리인 밭갈이 소리가 14편, 밭맬 때 부르는 소리가 7편 채록되었으며 그밖에 소모는 소리, 수박따기 소리, 갈걱는 소리, 풀씨는 소리, 농가월령가등이 채록되었다.

벌목 노동요는 모두 17편이 채록되었는데 나무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4편, 나무할 때 부르는 소리가 11편이 채록되었으며 그밖에 목재를 산에서 끌어내릴 때 부르는 운재소리와 목재를 운반할 때 부르는 목도소리가 채록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나무를 하면서 주류 아라리류의 노동요를 많이 불렀는데 아라리는 다기능요로 나물을 뜯거나 밭을 맬 때도 많이 부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채취노동요는 10편이 채록되었는데 모두 나물 뜯을 때 부르는 소리로 아라리를 즐겨 부르는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목 노동요는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지경다지는 소리 4편이 채록되었다.

횡성 지방의 가사 노동요는 아이를 어르며 부르는 소리가 8편,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요가 5편 채록되었고 맷돌질 소리와 연자매 소리도 채록되었다.

수공업 노동요는 용기를 구울 때 부르는 등치기 소리가 3편 채록되었다.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횡성지방에서는 어업 노동요는 단 한편도 채록되지 않았다.

지역에 따른 노동요의 채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 전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횡성의 노동요의 지역별 채록 현황

노동요		지역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안흥면	청일면	둔내면	서원면	갑천면	횡성군 전역
농업 노동요 80편	논농사	9	12	7	1	7	4	2	6	5
	밭농사	3	6	3	2	7			2	4
별목노동요 17편		2	6		5	1		1		2
채취노동요 10편			2	4	2			1	1	
토목노동요 4편		1	2						1	
길쌈노동요 6편		1	3				1		1	
가사노동요 16편		1	4			1	2	7		1
수공업노동요 16편			2							1
계 136편		17	37	14	10	16	7	11	11	13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횡성 지방의 노동요 채록 상황을 살펴보면 각 읍, 면마다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천면의 경우 136편중 37편이 나 채록돼 가장 적은 둔내면의 다섯배 정도 많이 채록 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천면에는 대통령상에 빛나는 '정금 마을'이라는 민속마을이 있고 민요를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정금 민속 예술 보존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안흥면에서 면으로 승격한 강림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편의 노동요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천면 다음으로는 횡성읍, 청일면 순으로 노동요가 많이 채록 되었다.

Ⅳ. 횡성 노동요의 성격

1. 횡성 노동요의 사상미학

노동이란 인간이 살기 위해 외부인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요란 민중들이 노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땅과의 일체감에서 흥겹게 부른 인간의 삶의 소리이다. 또한 노동요는 땅의 소리이고 민중들의 땅의 소리이며 생명의 소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노동요는 생명과 연결된 水平文化的 소산이기에 수직문화라고 할 수 있는 精神文化와는 葛藤이나 분열을 초기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노동요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生命的인 核(Nucleus)을 노래함으로 正直한 문학이다. 그러므로 노동요에는 잡다한 기교가 없다. 그저 단순한 언어의 再創造일 뿐이다.

요즘 현대문학은 날이 갈수록 난잡하고 難解해지며, 자연이나 인간과 멀어져 가며, 수많은 도덕, 법률, 제도에 의한 虛偽意識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인간의 본질을 뚫으려 몸부림치다 보니 기교만 더욱 발달하여 온통 기교의 터널 속에 스스로가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현대문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그 두꺼운 기교의 터널을 벗어나려 결사적인 노력들을 해봤지만 결국은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그들이 신봉해 마지 않던 서구적 문화비평의 수용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노래한 정직한 문학인 勞動謠에서 현대문학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입체적 접근 방법으로 노동요에 다가간다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틀에 박힌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민중들의 삶이 솔직 담백하게 투영된 횡성 각지방의 노동요를 주관적으로 선택한 뒤 이들 노동요들을 개별적으로 조명해 보고, 다시 집합적 조명을 통해 노동요의 사상미학적 접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의 삶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며 현재적이다. 정신적 삶이니 종교적 삶이니 도덕적 삶이니 하는 것은 관념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진실할 수 없다. 思想美學的 관점이란 인간의 삶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인간존재의 육체적 삶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생명의 호흡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가지고 노동요를 분석하고 총체적 이해와 평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함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횡성 노동요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各 篇들을 개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상 미학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2. 횡성 노동요의 입체적 접근 - 기능별 특징

농업에 관련된 민요를 농업노동요라 하는데, 흔히 농요라고도 부른다. 예전부터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던 횡성에는 많은 수의 농요가 구전되고 있다. 평야지대인 논농사 지대에는 논농사와 관련있는 논농사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산간지역에는 밭농사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농업 노동요는 논농사요, 밭농사요, 퇴비요⁵⁰⁾로 나눌 수 있다.

가. 논농사요

논농사요란 봄에 논을 갈고, 못자리를 하고,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논농사 과정에서 불려지는 노래들로 농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횡성지역에는 『논갈이 소리』, 『논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기 소리』, 『논매는 소리』, 『새쫓는 소리』, 『타작소리』등 비교적 풍부한 농요들이 전승되고 있다.

(1) 논 가는 소리

논갈이는 일년 논농사의 시작이다. 『논갈이 소리』는 이 때 논을 갈면서 부르는 소리인데, 2편이 채록되었다. 논갈이는 흔히 토질이나 경사도에 따라 호리나 겨리로 가는데 다른 밭갈이 소리나 그 사실이 비슷하다.

횡성 논 가는 소리(1)⁵¹⁾

이러 저어디 가자
말래를 슬슬 당겨라
저! 어어디 어디야
말래루 가자
오 어디 우겨서라
어후아 어디여라
저! 어어디 어디여
너무 덤성대지를 말고서
이러! 어디여라 가자
어디여라 이놈의 소야 왔다갔다 하지를 말고서 이러
어디에 어라 이러!
어후아 갈지자로만 가자
이러! 어디에라 오 가자 오호
와!

50) 갈걱는 소리나 풀 썬는 소리를 박경수 등은 채취 노동요로 분류하고 있으나, 풀썬는 일은 논을 기름지게 하는 농사의 일환으로 봐서 농업 노동요에 포함시켰다.

51) 이 번호는 연구자가 횡성의 노동요들을 분류한 일련번호임.

황성 논 가는 소리(2)

이러! 호러마러 호라 더 왜이래 이거
홀러서 저말렷 비키지 말구~
밀구 들어 서저라~ 에이~
너무꿀구 나가지 말구~
웃소리에~ 나도 멀리~
밀구 들어서저래이
너무 꿀구 나가지는 말구~
덤성대지를~ 말어래이~
저 맑에쇠이~
어디여 저~소~
니나 내나 참(먹을 시간) 잊어간다
쪼금 더해구 쉬서 하자
너무 덤성대지 말구~
저 드령(논두렁) 안으루~
밀구 들어 서 게이~
왜그렇게 덤성대나~
저마라 쫓혀서로
한나저을 어이 넘어가리
어려질서어~ 우겨주고
저마라 쫓혀주게
어디 안썸 우겨라 우겨
허 어딜 이질 이렇게
허어 안술 우겨줘이~
저 드령안으루 들어서이~

논가는 소리는' 소를 이용하는 노동으로 소와의 대화가 주조를 이룬다. 일정한 가사나 리듬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소 부리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동작을 소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소에게 하는 대화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은 우리 조상들의 멋스러움을 찾아 볼 수 있다.

(2) 논 삶는 소리

『논 삶는 소리』는 모를 내기 전 바닥을 모가 심기 편하게 평평하게 다듬는 '씨래질' 할 때 부르는 소리로 보통 한 마리의 소가 끄는 호리소가 이용된다.

이 소리도 논 가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소와 사람이 나누는 대화체의 노래이며, 논가는 소리보다 좀 더 빠르고 경쾌하다. 가사에는 씨래질 하는 농부의 모습과 논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논외의 모습이 여러군데 눈에 뜨인다.

횡성 논삶는 소리(3)

이러
 이러 말래로 당겨라
 흙당물을 너무나 텅기느냐 이러!
 이러 저리 피해를 말고서 말래루 당겨라
 드렁 밑에 가서 우둑서게 이후!
 물살이 짹짹 갈라지면서 잘두나 잡아당기네 이러!
 이러저 고개를 꺼덕꺼덕 하면서 잘두나 당긴다
 어깨춤이 나는구나 니가 잘두나 땡기네 이러 어후우!
 웃소리 나가든 말래 서게
 어 잘한다 참 그놈으 소 신명난다 이러! 어후우!
 너무 그렇게 덤성대지를 말고 말래 서라 이러!
 와와!
 쉬어서 삶자

횡성 논삶는 소리(4)

이렇! 어디여 반달같은 닷마지기 다 넘어간다 넘어서라 이놈의 소
 저쪽 넘에로 넘어가서 살아야된다 이놈의 소야 이러 어치
 어디여 잘도간다 채찍질도 잘받고 이러저러!
 어디어디어 어치! 두렁밑에 들어서거라 고만가자 이놈의 소야

(3) 모찌는 소리

모찌는 소리는 횡성에서 유일하게 한 편만 채록되었다. 모는 대개 모내기하기 전 새벽
 참에 하는 일로 이때는 모판의 물이 뼈 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시리다. 농부들은 밭시림
 과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서로서로 노래를 주고 받으며 모를 찢다. 간혹 담배내기
 도 해 가면서.

횡성모찌는 소리 (7)

가: 신명순(남. 1941) 나: 최병원(남. 1931) 다: 정호준(남. 1937)
 라: 허성구(남. 1936) 마: 김인환(남. 1927)

마: 얼쩡하니 세 오름다리 또 한 춤 움켜 내어보세
 라: 거기서 묶으면 여기두 묶네
 다: 얼얼얼 상사대야
 마: 여보시오 농부님네 금년모는 상청일세
 라: 얼쩡야 모가 찢기두 쉽네
 마: 얼쩡하니 한 춤일세
 다: 거기서 묶으며 여기는 추모춤 나간다
 가: 그소리 본 받아 또 한 춤 묶네

마: 세 오름다리를 뭉쳐보세 얼쩡하니 또 한 춤일세
 라: 두 오름짜리루 또 한 춤 췌네
 다: 이 모칸 얼른 들어내고 빨리 또 한 칸 또 찌자
 마: 뒷줄은 멀어지고 앞에 줄이 가까워 온도
 다: 얼른 하더니 또 한 오름
 마: 얼쩡하니 또 한 춤 뭉네
 가: 그 소리 본 받아 또 한 춤 뭉네
 마: 주먹모가 넘어지니 또 한 춤 얼른 찌서 보세
 라: 일등을 하면은 담배는 내걸세
 다: 얼렁얼렁 해 또 한 춤 췌네
 나: 나는 말춤을 췌네
 마: 사실모는 지우지 말고 얼쩡하니 또 한 춤 찌네
 가: 그 소리 본받아 또 한 춤 뭉네
 마: 이 모판을 얼쩡 내고 옆의 모칸을 들어보세

다섯명이서 서로 소리를 주고 받는 교환창이다.

(5) 모심기 노래

『모심기 노래』는 모를 심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우리 나라 민요 연구의 선구자인 고정옥은 “민요의 핵심은 노동요이고 노동요의 핵심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보편적인 모심기 노래”⁵²⁾라고 할 정도로 논농사 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노래로 황성지역에도 9개 읍,면 고루 분포 돼 전승되고 있다.

특히 황성의 『모심기 노래』인 미나리는 황성을 비롯한 강원 영서 지방의 대표적인 노동요로 표준말로는 ‘메나리’라고 사전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나리’라고 부른다. ‘미나리’는 강릉의 ‘오독데기’와 구성이나 표현, 내용이 거의 같다. 그리고 ‘정선아라리’와도 그 형식이 거의 같다. ‘미나리’의 형식은 대개 2행 5음보 22자 내외이다. 더러는 7.5조의 긴 형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모내기 할 때 한 번 허리를 숙이고 모를 심는 동작은 약 50초쯤 된다. 미나리는 이런 동작이나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⁵³⁾ 노래 한 마디 하면 모심는 동작이 대개 끝난다. 일의 진도와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일의 능률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황성에서는 모두 13편의 『모심기 노래』가 채록되었다.

52) 박창원(1997),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53) 송진규(1994), 앞의 책(14p)

황성 모심는 소리(미나리) (8)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쇠꿈 가: 엄영태(남. 1923) 나: 양중환(남. 1936)
다: 윤양수(남. 1927) 라: 우영진(남. 1916)

가: 천하지 에이여 대본은 농사리오
농사 에이 한 철을 지어보세
나: 뒤뜰 에이여 논은 천석지기앞뜰 에이 논은 만석지기
앞뜰 에이 논은 만석지기
가: 심어주게 에이어 심어주게
오종종 에이 줄모로 심어주게
나: 지어가네 에이어 지어가네
점심 에이 참이 지어가네
가: 이 논 에이여 자리에다 모를 심어
점심 에이 검실 영화로다
나: 시화 에이여 연풍 조화키는
우리 에이 마을이 영화로다
가: 봄이면 에이어 진달래요
가을 에이 이면은 오곡일세
나: 오뉴 에이여 월에 흘린 땀이
구시 에이 월엔 열매되네

황성읍 모심기 소리(12)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롱조롱 줄모루 심어주게
지어가네 지어가네
담배참이 지어가네

(6) 논 매는 소리

황성지방에서는 보통 논을 세벌 맨다. 맨처음 아이논을 매고 보름 간격으로 두벌 세벌 맨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논매는 소리』이다. 애벌 매기 할 때는 보통 '단허리'⁵⁴⁾를, 두벌 맬 때는 '상사데이'를, 그리고 세벌 맬 때는 '뎡이소리'를 부른다.

이 소리는 선창과 후창을 할 수 있도록 후렴이 꼭 따르며,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집단적 박자를 철저히 맞춘다. 선소리꾼의 수준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심하고, 선소리의 내용은 즉흥적이다. 선창자가 상층문화의 영향을 받게되면 노래의 내용이 수직화한다. 애벌매기 소리가 16편, 두벌 매기 12편, 세벌매기 3편만 채록되었다.

54) 이곳에서도 단허리, 단호리, 단오리, 달월이 등으로 불려지나 김을 맬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미루어 봐 단허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횡성 논매는 소리(단허리) (21)

어화 열싸 단허리아
어화 열싸 단허리아
여보시오 지호남네
어화 열싸 단허리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화 열싸 단허리아
천하지대본 농사라고
어화 열싸 단허리아
농사 한 칠 지어보세
어화 열싸 단허리아
뒷뜰 논은 천석지기
어화 열싸 단허리아
앞뜰 논은 만석지기
어화 열싸 단허리아

횡성 갑천면 애벌 김매기 소리(28)

- 단호리 -

어화열싸 단호리아
이 논배미 빨리 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어화열싸 단호리아
소리도 하고 춤도 추세
어화열싸 단호리아

단허리는 메기고 받는 방법으로 노래를 시작하며, 맨처음 1인의 메김소리꾼이 반복구(어화열싸 단호리아)를 소리내어 주면 다수의 받음꾼들이 같은 반복구를 비슷한 선율로 따라 부른다. 이어 메김 소리꾼은 노래말을 매번 바꾸어 가며 메겨 나가고 그때마다 받음 소리꾼은 위의 반복구를 받아 준다.

애벌매기는 호미를 사용한다.

횡성 논매는 소리 (상사데이) (38)

어릴러럴 상사데이
어릴러럴 상사데이
오뉴월에 흘린 땀이
어릴러럴 상사데이
구시월에 열매된다

어덜덜덜 상사데야
 여보시오 지호님네
 어덜덜덜 상사데야
 허리잡시 피어보세
 어덜덜덜 상사데야
 상사바람에 신명이난다
 어덜덜덜 상사데야
 덩실덩실 춤을추며
 어덜덜덜 상사데야
 상사대를 불러보세
 어덜덜덜 상사데야
 우리인생 늙어지면
 어덜덜덜 상사데야
 우리인생 늙어지면
 어덜덜덜 상사데야
 오던임도 아니온다
 어덜덜덜 상사데야
 낭구라도 고목이되면
 어덜덜덜 상사데야
 오던새도 아니온다
 어덜덜덜 상사데야
 물이라도 건수가되면
 어덜덜덜 상사데야
 오던고기도 아니오네
 어덜덜덜 상사데야
 어덜덜덜 상사데야
 어덜덜덜 상사데야
 이리저리 갈라서서
 어덜덜덜 상사데야
 갈개머리를 우겨주게
 어덜덜덜 상사데야
 어덜덜덜 상사데야
 아아호오 우후후후 우후후

두벌매기는 보통 손으로 하는데 이때 상사데이를 부른다. 이 노래 역시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로 메김구와 받음구가 모든 2음보씩이다. 또한 두벌 논매기 할 때는 갈개 머리 옥여 씨는 소리라고 하는 '방아소리'를 부르는데 이것은 한 눈을 다 매갈 즈음 농부들이 자연히 한 지점으로 몰리는데 이때 씹을 씨듯 우우 몰려 들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리를 한다.

횡성 우천면 두벌 논매기 소리 - 밭아 소리(김방아) (44)

아~~~(앞소리)
아~~어~ 이이이이요(제창)
아 아 아어 이이 휘이이요(제창)

세벌 논매기도 두벌과 마찬가지로 호미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맨다. 이때는 별로 땀을 풀이 없기에 그저 논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흙물만 지우며 지나간다. 이 때 부르는 소리가 '뎡아소리' 이다.

횡성 논매는 소리(뎡이소리) (50)

이에 아아 아아오
이에이 이이요
이에 아아 아아오
이에이 이이요
이에 아아 아아오
이에이 이이요
이에 아아 아아오
이에이 이이요
우후후후 우후후...
- 세벌에서 흙덩이를 풀며 하는 소리 제창-

(7) 기타 논농사 소리

그 밖에도 횡성 지방의 논농사와 관련있는 노동요로는 『새 쫓는 소리』와 『타작소리』가 있는데 둘 다 동요 형식의 소리이다.

횡성 새 쫓는 소리(53)

황새야 독새야 논집에 불났다
쪽박갔다 불꺼라 워워이

횡성 청일면 벼타작 소리(54)

새벽늦새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울고가면 지나올지 잠든 큰애기 왜깨웠나
푹푹푹푹
새벽늦새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울고가면 지나올지 잠든 큰애기 왜깨웠나

나. 발농사요

횡성지방은 논 보다는 밭이 많은 고장이지만 논농사 소리 보다는 노동요가 많이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발농사 소리로는 『밭갈이 소리』, 『밭매기 소리』, 『기타 발농사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1) 밭가는 소리

소를 이용해 갈 때 부르는 소리로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호리소 부림과 두 마리의 소가 쟁기(연장이라고도 부름)를 끄는 겨리소 부림이 있다. 특히 겨리소 부림은 이곳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농사 방법이다. 강원도 산간지방은 돌이 많고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질이 효과적이다. 소몰이 소리는 소 부리는 사람의 혼자만의 노래이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도 가사도 없다 그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소에게 작업을 알려주면 된다.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소와 사람은 하나가 된다. 친구가 된다.

횡성읍 궁천리 소몰이 소리(호리소리) (55)

이러 어디여 이러 어디여
골계로 들어서라
어디여 돌아서라
이러 어디여 이러 어디여 허~허

한 마리의 소만을 다루는 호리 소리는 겨리 소리에 비해 단순하고 사설도 매우 간단하다. 호리소리는 단 한편만이 채록되었다.

횡성 밭가는 소리(56) -겨리 소리-

이랴!
이러저 어디여
이랴!
이 소야 부지런히 가보자 이러 저라
저 낭구 뚜거지에 뿔 다치지 말고 슬슬 밀어 나가보자 이랴
어디 저 안소
마라소가 우겨서 가자 저 밤나무 가지 다치지 말고 이랴!
저 낭구에 부딪히지 말구 가자 이랴이랴!
해는 석양이 되는데 점شم참도 늦어간다 어 후!
어디 돌아를 서 이랴 이랴!
왜 이리 덩성거리느냐! 이러
목두 마르고 숨도 차니 담배 한대 태우구 가자
와 와!

안쪽에 있는 소를 안소, 바깥쪽에서 쟁기를 끄는 소가 마라소다. 호리 소리에 비해서 사실도 길고 소와의 대화 내용도 다양하다. 쟁기질 소리의 압권이다.

(2) 발매는 소리

발 맬 때 주로 부르는 노동요다. 옛부터 발 일은 부녀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므로 '발매는 소리'는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불렀다.

아무리 매도 늘 그턱인 지루하기만한 발매기를 하며 그네들은 주로 시집살이의 고통을 노래로 불렀다. 횡성 지방에서 채록된 발매기 소리는 7편 모두 시집살이 노래였다.

그네들은 시집살이의 한을 노래로 부르며 한 세월 그렇게 살았었다.

발매기 소리는 주로 독창으로 불려졌다.

횡성 갑천면 시집살이 노래(72)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쩔디까
시집살이 말도말게 고초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가 더맵더라
분질같은 내손길이 각지발이 다되었네
삼단같은 내머리가 피사리춤 다되었네
도화같은 곱던얼굴 외~꽃이 피었구나

횡성 공근면 시집살이 노래(73)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하겠네
눈에가니 거머리 웬수 발에가니 바랭이 웬수
집에 오니 수캐같은 시아버지 암캐같은 시어머니
여우같은 시누이년 보기싫어 못살겠네
세폭짜리 치마뜰어 바람맹글어 짊어지고
간다간다 나는간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시집살이 노래는 2음보의 민요의 전형적인 4.4조의 음수율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3) 기타 발농사 소리

전래 동요의 성격이 짙은 『수박 따기 노래』와 소를 물면서 부르는 『소몰이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수박따기 노래'는 다른 지방에서는 '호박따기' 또는 '마마절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박의 일생을 노래를 통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기지가 엿보이며, 소몰이 소리는 소를 몰고 들로 나갈 때 부르는 소리다.

황성 수박다기 노래 (76)

할멈 문열어주 딸각
개 좃추 지게
수박 하나 주
이제 씨 심었수 널모레 오슈
널모레 동동 널모레 동동
- 이하 생략 -

황성 안흥면 소모는 소리 (77)

이러 축츄츄츄츄츄
어러 축츄츄
어 이러 축츄츄 물러서~
어이 물러서
어야 ~ 어서가자
올러서 나가~
어이취 가자
잘한다 어이취 쉬이

다. 퇴비요

퇴비요는 눈에 넣을 갈을 꺾고 그것을 작두로 썰 때 부르는 소리이다.

요즘이야 많은 비료가 나와 농사를 수월하게 지었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농토를 기름지게 하는 것은 논밭에다 퇴비를 내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농부들은 산에 가서 갈을 꺾고, 퇴비를 쓸 풀을 베어서는 작두에 송송 썰어 논밭에 넣었다.

퇴비요에는 『갈꺾는 소리』와 『풀썰는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황성 갈꺾는 소리 (78)

가: 아리랑 고개루 넘어올 줄 알았음
질림질림 섰더라면은 꼭 만내볼 걸
세상에 만사를 누겨다가 믿고
잠이나 든 듯이 꼭 죽어졌나
나: 해와 달오는 오늘 갔다가 내일날이면 오련만
임자 당신 인제 간다면 원제 한번 오느냔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고개로 날만 넘겨 주오

다: 문전옥답에 광포전지를 왜 다 팔아먹고
 쓸쓸한 북간도는 뭣하러 왔나
 지불 명령에 강지나 김행은 해해년년이 만나도
 술상머리 쓰느네 금전을 아끼지를 마라
 가: 세상에 나 죽거든 천하명당을 찾지말고
 술상에 머리다 날 물어주게
 세상에 못 사굴거는 금전꾼에 남군
 금시날 만났다면은 영이별이로다.
 나: 오늘 같지 내일 같지나 흥수나 흥망인데
 울타리 밑에다 즐봉사는 왜 심었던고

‘갈걱는 소리’는 아라리 가락이다. 갈꾼들은 갈떡 향기가 시크므레한 연록색 갈포기를 뒤지며 아라리 가락을 신명나게 뽑아 올렸다.

횡성 어러리는 같은 강원도 아라리지만 정선 아라리보다 빠르고 밝고 유연하다. 그래서 정선 아라리 보다 더 감칠맛이 난다.

세명이서 교환창으로 부른다.

횡성 풀썩는 소리 (79)

우러리야
 일시두 맘 놓지 말구
 지랭이 갈빳대다.
 한아름 안고 닥쳤다!
 대화 방림 새초거리
 싸릿가지 강릉 꽃감꼬지
 우러리
 둥둥 울렀다 복나무
 우러리 늙은이 방구 복나무
 젊은이 방구 뿡나무
 아 우러리
 한아름 안고 닥쳤다
 일시도 맘놓지 말구
 자 개다리 심 올랐다
 맛보지 말구
 야 안고 닥쳤다
 밀구 다려라
 우러리

일시도 맘놓지 말구
우러리
야 개다리 심 올랐다
광광 단어
대화 방림 새초거리
왜 이래
우러리
조심해
늪은이 방구 뿡나무
젊은이 방구 복나무
등등 올렸다 복나무
대화 방림 새초거리
일시도 맘 놓지 말구
발발 떨었다 사시나무
색시집에 부티나무
올러가 한참
내려가 한참
쉬어가민
개다리 심 올랐다

우러리아
자! 지랭이 갈빗대다
잘 썬다
어 듬뿍
또 들어간다 한아름 안고
아람으로 들어가 점으로 나간다
잘한다
어어
어허
조끔도 맘놓지 말고
안고지고 들어간다
지랭이 갈빗대 궁데이 사테이다
우러리아 우러리
우러리 우러리 우러리
마주 가져와 막걸리 한 잔 먹을때가 돼 간다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어 잘썬다
막걸리 한 잔 먹고 합시다
어 잘 썬다 잘 썰어

풀썰기는 보통 4인 1조가 된다. 두사람은 작두를 디디고 두 사람은 풀을 들이민다. 가사 전반에는 우리 노동요의 해학성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참 웃다 보면 힘든 작두질의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었다.

나. 벌목 노동요

벌목 노동요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목재를 베거나 운반할 때 부르는 노래다.

횡성지방에는 『나무 할 때 부르는 소리』, 『목재 운반 할 때 부르는 소리』, 『목도 할 때 부르는 소리』등이 전승되고 있다.

(1) 나무 할 때 부르는 소리

예전에는 농한기에 나무하는 게 농사꾼 일의 전부였다. 논밭의 일만 끝났다 싶으면 그네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 내렸다. 지혜로운 겨울나기를 위해서.

그들은 잠시도 지계를 등에서 떼지 않아야만 식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소나무 가지를 자르며, 솔잎을 꺾어 모으며, 잡목을 베어 지계에 얹으면서, 그들은 구성진 아라리 가락을 빈 산에 뿜아 올렸다.

나무꾼들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에는 같이 간 동료들과 '나무꾼 소리'나 말놀이 노래의 일종인 '꼬리따기 노래'를 즐겨 불렀고, 나무를 하면서는 구성진 아라리 가락을 주로 불렀다.

꼬리따기 노래 - 나무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85)

뒷집총각 나무하러 가세	배가 아파 못가겠네
무신뻬가	자라뻬세
무신자래	에미자래
무슨에미	술에미
무슨술	밥~술
무슨탈	진지탈
무슨진지	코리진지
무슨코리	버들코리
무슨버들	수양버들
무슨수양	하늘수양
무신 하늘	청~하늘
뉘언 청	대~청
뉘언 왕	임금왕
뉘언 임금	나라임금

뛰언 나라	대나라
뛰언 대	쌀대
뛰언 쌀	보리쌀
뛰언 모리	갈~보리
뛰언 갈	떡갈
뛰언 떡	개떡
뛰언 개	사냥개
뛰언 사냥	평사냥
뛰언 평	장평
뛰언 장	강릉업장

황성 아라리 (86)

가: 청실홍실을 늘인 가장은 범으로나 살고
 오시다 가시다 만나신 가장은 정으로나 살지
 어리고 어리고 아라리요
 얼었다 녹아 지나는 봄철이로구려

다: 내가 가든지 임자가 있든지 무스네 야단이 나아지
 나날이 시시로 애정스러워 나는 못사리라

가: 당신이 잘났나 내가 못났나 인물에 도름 말고
 양지화 수염털석부리 제일 잘났구나

다: 삼사월 양지쪽에 원추리라는 풀은 포름포름한데
 금간산 절구경가가 점점 늦어간다

가: 도랑가새이 까도지딱지가 무수네 죄를 졌는지
 분쩍같은 아가씨 손목에 칼침을 맞나

다: 일락은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은 동녘에두 달만 솟아온다

가: 당신같이야 매정한데다 내가 정을 두느니
 맏가루 콩콩에 콩속이나 넣지

다: 당신은 나를 보면은 본척 만듯하여도
 나는야 당신을 보면은 입맛이 변해진다.

가: 당신이 나를 알기에 흑싸리껍줄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로 공산명월로 알아요

다: 우편수 배달부 아저씨 발병이나 났는지
 정드신 님에 문안편지가 무소식이로다

황성의 아래리 가락은 남녀간의 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요에서 성적 욕구의 표현은 지루하고 힘든 노동에서 육체적 피로를 덜게하는 구실을 한다.

성표현을 금기시 했던 양반과 달리 성을 건강한 삶의 바탕으로 인식하는 서민들의 이러한 성적 요구의 표현은 가장 흥미로운 피로의 해소책이었다.

그들은 노동의 질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꿈꾸었을 것이다. 이것이 노동요의 기능성이다.

(2) 나무 옮길 때 부르는 소리

운재소리는 산에서 베어진 나무를 운반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여럿이 하는 집단 노동요이다. 한 사람이 메기는 소리와 여러 사람이 받는 소리로 되어있다.

목도소리는 운반되어진 나무를 목적지까지 여럿이 어깨에 메고 나를 때 부르는소리로 역시 집단 노동요다. 집단 노동요는 무엇보다도 호흡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들 노동요는 다른 어떤 노동요보다도 기능성이 중시된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가사 내용도 간단하고 단순하다.

'운재소리'는 후렴으로 '어이도 산호'를 '목도소리'는 후렴으로 '이어차 허이'를 외치고 있다.

황성 우천면 운재(運材) 소리 (97)

어이도 산호 (앞소리)

어이도 산호 (뒷소리)

빨리와서 연장잡어

어이도 산호 (뒷소리)

환고향 시켜주마

어이도 산호 (뒷소리)

길가던 여자들이

어이도 산호 (뒷소리)

운재소리 들으면은

어이도 산호 (뒷소리)

길뚫가고 쉬어간다

어이도 산호 (뒷소리)

언제나 돈벌어서

어이도 산호 (뒷소리)

고향산천 찾아갈까
 어이도 산호 (뒷소리)
 빨리하오 돈벌어서
 어이도 산호 (뒷소리)
 처자식 먹여살리자
 - 이하 생략 -

황성군 우천면 목도 소리 (98)

어~ 허 이~ 엉차 어허이	
이엉차 허영 이엉차 허영	
꼬리가 단다 허영 (베기기)	이어차 허영(받기)
앞머리 돌려	이엉차 허이
어허이 허영	이엉차 허이
허영차 허이	이엉차 허이
허영차 하자	이엉차 허이
허거장 하자	이엉차 허이
허거장 하자	이엉차 허이
이어차 허영	이엉차 허이
내리막길 나온다	이엉차 허이
앞머리를 허이	이엉차 허이
슬슬 돌려 허이	이엉차 허이
허영차 하자	이엉차 허이
- 이하생략-	

다. 채취 노동요

채취 노동요는 부녀자들이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채취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황성 지방에서는 『나물캐는 소리』와 『아라리』가 채록 되었는데 이 소리들은 주로 나물 채취가 혼자 하는 작업이기에 독창이 많았다. '아라리'는 다기능요로 김멜 때, 나무 할 때, 나물 뜯을 때 등 언제든지 창자가 흥에 겨우면 부르는 노래였다.

황성 우천면 나물캐러 가는 소리 (101)

달롱캐러 간다고 달루동 달루동 하더니
 눈두랑밭두랑 밑에가 시집갈 궁리만 한다네

횡성 우천면 나물캐는 소리 (103)

나물을 가세 나물을 가세
우리나 삼동세 나물을 가세
무시배참나물 씨러진콜로
봄나물 가자~

횡성 공근면 아라리 (106)

바람은 불수록 먼지풍파만 일구요
정든님은 불수록이나 깊은정만 드노라 좋구나
뒷동산 원추리는 무슨죄를 짓길래
큰아기 손목에 칼집을 맞나
물푸는 소리는 풍당풍당
바람에 청치매는 간들간들
요놈의 총각아 손목을 놓아라
물같은 손목이라두 어질크리지네
술잘먹고야 돈잘쓸때는 금수야강산이더니
돈못쓰고야 병들어지니 고만이로구나
술이라고야 먹거들랑은 취하지를 말고
넘이라고야 생기거들랑 생이별을 말아라
시집살이를 못하구서야 가라면야 가지
오늘날에야 수절을 했는데 못하라고 하나
술집의 주모야 술 따러라
허벅지 돈가방에야 돈쏟아지네
어리어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만 넘어가네

라. 토목 노동요

토목 노동요는 토목 송사 현장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남성 노동요다. 횡성 지방의 토목 노동요는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지경다지는 소리'가 3편 전승되고 있다.

횡성군 우천면 지경 다지는 소리(111)

여기영차 지경이오(메기기) 여기영차 지경이오 (받기)
여기영차 지경이오 여기영차 지경이오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기영차 지경이오
이내소리 들어보소	여기영차 지경이오
여러분이 힘을 합쳐	여기영차 지경이오
지경다지 하여주소	여기영차 지경이오
이자리에 집터담아	여기영차 지경이오
이리찍고 저리찍고	여기영차 지경이오
좌우로 찍어갈계	여기영차 지경이오
갈지자로 다져본다	여기영차 지경이오
지경다짐 으뜸일세	여기영차 지경이오
여기영차 지경이오	여기영차 지경이오

‘지경다지는 소리’는 집단 남성 노동요다.

그래서 소리가 매우 힘차고 절도가 있다.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일꾼들은 ‘여기영차 지경이오’라는 후렴을 다 같이 받는다. 집단 노동요는 호흡이 생명이다.

이 노래는 2음보의 전형적이 4.4조의 음수율을 시종일관 지키고 있으며 일꾼들이 지루하지 않게 선소리꾼은 앞소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마. 길쌈 노동요

길쌈이란 삼을 삼고 물레로 실을 잣고 베틀에 실을 걸어 베를 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남정네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간 사이 부녀자들은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물로 삼을 삼고, 한숨으로 물레를 돌리며 한으로 베를 짰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노동의 힘듦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황성 지방의 길쌈 노동요에는 『물레 소리』 2편과 『베짜는 소리』 4편이 전승되고 있다.

황성 물레 소리(114)

물레야 자세야 비리빙글 돌아라
 물레야 자세야 비리빙글 돌아라
 우리집 서방님 찬이슬 맞을라
 북두성자로 돌아 서천을 가르치니
 벽오의 떼기러기 찬이슬을 재촉한다
 신선한 조석기운 추위가 완연하다
 늙으신 우리부모 따뜻하게 하시고
 반달같은 개똥이 고이고이 길러서

우리가문 영화로세 영화로세
물레야 자세야 비리빙글 돌아라
물레야 자세야 비리빙글 돌아라

황성 갑천면 베틀노래 (118)

오늘날두 하심심한데
베틀노래나 불러볼까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옥난간에다 베틀을 놓고
이리저리 잘도편다
어허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신님의 눈물인가
어허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어허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일광단 월광단 다짜가지구
어느님의 옷을 짓나
어허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바. 가사 노동요

가사 노동요는 주로 부녀자들이 가사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황성 지방의 가사 노동요에는 『아이 어르는 소리』, 『아이 재우는 소리』, 『제분일 소리』등이 있다.

‘아이 어르는 소리’에는 ‘시상 달강’과 ‘부라 부라’가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으며, 자장요인 ‘아이 재우는 소리’도 5편이나 채록되었다.

서원면 아기 어르는 소리 - 시상달강 (125)

시상달강 시상달강
할아버지 마당쓸다

동전한뉘 주워서
 밤한말을 사가지고
 이가빠진 노갱이에
 푹푹 삶아내서
 이빠진 조리로
 설렁설렁 건져서
 고무다락에 치뜨렀더니
 머리 까만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 파먹고
 한 톨 남김 밤을 까서
 껍대기는 할아버지 드리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둘이 먹자 둘이 먹자

횡성 서원면 아이 어르는 소리 (123)

등등 등개야 등등 등개야
 먹으나 굶으나 등개야 자나깨나 등개야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등등 등개야 등등 등개야

횡성 청일면 아이 어르는 노래 (122)

불불 불어라
 부리불떡 불어라
 이쇠가 어디쇠냐 경상도 재령월세
 속수는 얼마나 갱피가 두섬에 조피가 한섬이라
 불불 불어라
 부리불떡 불어라

'시상달강'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등개야'는 어린아이를 두손으로 두손위에 올려 놓고 어르는 노래이며, '부랴부랴'는 어린 아이를 세워 놓고 좌우로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아이 어르는 노래는 모두 다 독창 형식으로 불려지며 노래의 가사에는 해학성(시상 달강)이나, 교훈성(등개야), 건강기원(부랴부랴)등의 부모의 속내가 잘 나타나 있다.

서원면 아기 재우는 소리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긴 잘두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자장요는 전형적인 기능성 노동요로 교술민요의 성격이 짙다. 가사는 매우 단순하고 지루하도록 같은 가락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최면에 걸린 것 처럼 아기는 잠이 드는 것이다.

위 노래는 2음보 4.4조의 정형성을 유지하는 민요의 대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수공업 노동요

황성 지방의 수공업 노동요로는 용기를 구울 때 부르는 소리인 『등치기 소리』가 3편 전승되고 있다. 황성에는 대원군의 천주교도 박해에 몸을 피해 숨어사는 천주교인들이 다수 있었다.⁵⁵⁾ 그들은 관의 눈을 피해 가며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굽고, 용기를 구우며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등치기 소리’는 용기 흠을 이길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흠을 나무 메로 치면서 부르는 남성 집단 노동요다. 기능성이 강조 된 노동요이기에 작업과 소리의 호흡이 착착 들어맞았고, 선소리꾼이 먼저 소리를 메기면 일꾼들은 ‘에이 호리 소지야’ 라는 후렴구를 다 같이 받는다.

황성군 우천면 등지기 소리(용기굽는 소리) (136)

에이호리 소지야 (앞소리)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온갖힘을 다해가며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차근차근 이겨보세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황성우뒀 바라골에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용기점말 생겼는데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태백산이 주봉되어	에이호리 소지야(뒷소리)

55) 현재 황성군 서원면에는 강원도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서원면 풍수원 성당이 남아 있고, 곳곳에는 그들이 운둔하면서 삶을 영위한 용기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봉화산이 솟았으니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봉화산의 정기받아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옹기그릇 유명했네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물레돌려 성형하여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1,000도의 소성하여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서민그릇 옹기그릇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얼사좋다 옹기로다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해가드나 달이뜨나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일구월심 비는마음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옹기구면 잘나오게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도부하면 잘팔리게	에이호리 소지야(뒤틀소리)
-종략-	

사설구조는 4.4조의 음수율을 끝까지 유지하는 定形性을 보이고 있으며 1절 2음보의 율격을 지키고 있다. 후렴은 4박자의 받는 소리로 흥과 리듬감을 시종 유지하고 있다.

3. 횡성 노동요의 평면적 접근

1) 횡성 노동요의 내용 분석

고정옥⁵⁶⁾은 일찍이 우리 민요의 내용상 특질로 婦謠의 질적, 양적, 우세 풍부한 해학성, 풍류성, 유교 윤리의 침윤(浸潤), 순종성무상취락적(無常醉樂的) 성격, 생활고(生活苦)등을 꼽았다. 정동화는 한국 민요의 주제를 통계처리 하여 임 생각(14.2%), 노동에 찬(10.2%), 향락(10%), 탄식(9.9%), 해학(9.9%), 인생무상(7.2%), 충효(6.8%)등의 순임을 밝혔다.⁵⁷⁾

횡성 지역의 노동요 136편을 내용별로 분류해 본 결과 남녀사랑, 작업 독려, 축복 주술, 구복욕(口腹慾), 인생무상, 신세 한탄, 해학, 원망, 시집살이의 고달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하위 갈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56) 고정옥, 조선민요 연구, (서울:수선사, 1949)

57) 정동화, "한국민요의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0.

표) 3

횡성 노동요의 내용

구 분	농 업 노동요	벌 목 노동요	채 취 노동요	토 목 노동요	길 씬 노동요	가 사 노동요	수공업 노동요	계	비 율
남녀사랑	5	11	6		1	1		24	17.7%
작업독려	41	2	2	4	4		3	56	41.2%
축복주술	8					8		16	11.8%
구복욕	6	1			1	1		9	6.7%
인생무상	4		1					5	3.7%
신세한탄	2					3		5	3.7%
해학	4	3				2		5	6.7%
원망	4					1		9	3.7%
시집살이고달품	3					1		4	3%
기타	3							3	2.2%
계	80	17	10	4	6	16	3	136	100%

위 표를 보면 작업 독려의 내용이 가장 많고 (41.2%), 남녀사랑(17.7%), 축복주술 (11.8%), 구복욕(6.7%), 해학(6.7%)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요의 절반이 작업 독려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특히 나무 할 때, 밭매기 할 때 즐겨 부르는 아라리의 거의 모든 노래들에게는 남녀간의 사랑이 직·간접으로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심기 노래'의 주제만 가지고 분석한 김무현 58)의 분석결과와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남녀간의 사랑

우리 민요들 중에는 남녀간 은근한 사랑의 표현에서 부터 과감한 성관계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성적 요구를 표현한 내용이 많다.

노동요에서 성적 욕구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지루하고 힘든 노동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를 덜게 하는 구실을 한다. 성의 표현을 금기시 했던 양반과 달리 성을 건강한 삶의 바탕으로 인식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성적 욕구의 표현은 가장 흥미로운 피로의 해소책이었다.

58) 김무현은 그의 논문(앞의 논문)에서 성적 욕구가 55.2%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당신은 나를 보면은 본척 만척 하여도
나는야 당신을 보면은 입맛이 변해진다. (86)

우럭죽박에 능나삼팔로 나를 감지말고
대장부 긴팔로 날감아주게 (88)

홍당목 저고리는 붉어야 좋고 물명주 단속곳은 넓어야 좋드라
칭치마 꼬리에다 소주병을 달고 능라도 수풀속으로 입찾아간다 (89)

울타리 밑에다 넘세워놓고 호박잎이 난줄난줄 넘감춰주소 (90)

문밖에 나가머는 뉘나 도적년이다
같이서 살아도 나는 그런줄 모랐네
열두가지 요분질에 사람이 영판 죽겠네(93)

안방문이 썰러덕 뒷방문이 와지근 지근 마른 차대기 바짝 걸어 들고 난장 치는 걸
내가 담당할거니 아침마등 저녁마등 내방에 놀러 오세요.
삼사 동네 초군넵네들 내배 타러 오세요 (96)

위의 노래들에서 보면 남녀간의 성적 욕구가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노동의 질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나 아닌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꿈꾸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요의 기능성이다.

나. 작업독려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럿이 하는 공동 작업은 일꾼들에게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주면서 행동통일을 기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작업 독려는 노동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독려는 농요를 비롯해 벌목노동요, 채취노동요, 수공업 노동요에서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에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흥을 돋구는 기능요도 다수 전승되고 있다.

기러기떼 날으듯이 길머리를 따라가며 (22)
옆사람의 눈치보며 한칸닫고 한칸찍고
호미목을 자주놀려 흙덩이도 넘겨보고
단호리도 불러보세

어화 열신 단휘리아 (25)

기러기떼 나르듯이 어화 열신 단휘리아
질머리를 따라가며 어화 열신 단휘리아

옆의사람 눈치를보며	어화 열신 단휘리아
한칸닫고 한칸찍고	어화 열신 단휘리아
호미목은 자주놀러	어화 열신 단휘리아
악우맹이도 넘겨보고	어화 열신 단휘리아
팔뚝맹이도 하여가세	어화 열신 단휘리아
단호리참에 눈넘어가네	어화 열신 단휘리아
여보시오 농부님네	어화 열신 단휘리아
갈게사기 함을쓰네	어화 열신 단휘리아

내리막길 나온다	이영차 허이 (98)
앞머리를 허이	이영차 허이
슬슬 돌려 허이	이영차 허이
허영차 하자	이영차 허이
만수갑산 봉황새	이영차 허이
새소리 들리네	이영차 허이
발이 빠진다 허이	이영차 허이
허영차 하여	이영차 허이
허영차 하여	이영차 허이
기운차게 하여	이영차 허이
여보시오 목도꾼들	이영차 허이
기운차게 허영	이영차 허이
잘두나 한다	이영차 허이
얼른얼른 허어	이영차 허이
소리맞춰 허이	이영차 허이
허거정 하여	이영차 허이

다. 축복 주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가장 큰 바램은 풍년이다. 또한 아기를 기르는 부녀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횡성 지방의 노동요에는 풍년을 기원하거나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그런 노동요들이 많다.

천하지대본 농군님네(13)
 우리 기쁨은 귀할지라
 이논자리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시화연풍 좋기로는
 우리마을 영화로다
 봄이되면 진달래요
 가을이면 오곡일세

오실토실 익은곡식
동산밭에서 춤을추세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면
업동설한 걱정없네

풍년가를 부를적엔
심은논엔 벼잘되고
- 종락 -
천하일색 풍년소리
안홍땅에 풍년났네
어화 얼씬 단호리어
- 이하생략 -

어화 얼씬 단호리어 (37)
어화 얼씬 단호리어

어화 얼씬 단호리어
어화 얼씬 단호리어
어화 얼씬 단호리어

(13)은 모내기 소리인 미나리 타령이고, (37)은 두벌 논매기 소리인 단허리다. 이 들 노래에는 풍년을 갈구하는 농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다.

라. 구복욕

보리고개라게 세상 어떤 고개보다도 무서웠던 시절, 서민들의 가장 큰 소원은 이밥에 콩치 반찬으로 밥 먹는 거였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에 그들의 간절한 음식에 대한 소원을 담아 불렀다. 이런 구복욕이 담긴 노동요는 농요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다.

어화 얼씬 단호리아(29)
얼른매고 쉬어매세
콩치잡아 보리밥 준다
어화 얼씬 단호리아
논다매고 한잔먹세
덤덤한 보리 막걸리
어화 얼씬 단호리아

지어가네~ 지어가네 (17)
담배~ 참이 지어가네
지어가네~ 지어를가네
점슴참이~ 지어가네
셋별같은~ 점슴그릇
오종종~종 지끔있네
셋별같은~ 점슴그릇
우리농부 환영이오

(29)는 논매기를 하면서 보리밥에 콩치와 막걸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꾼들의 구복욕이 표현되어 있고, (17)에서는 모내기를 하면서 점심을 기다리는 농부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마. 인생무상

민요를 즐겨 부르던 이 땅의 서민들은 늘 삶이 힘들고 괴롭기만 했다. 그러기에 서민들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소리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그들은 유수와 같이 빨리만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늙어가는 자신들의 젊음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에 인생무상을 담아 부르곤 했다.

상사대를 불러보세 (38)

어릴렷렷 상사대야
우리 인생 늙어지면
어릴렷렷 상사대야
오던임도 아니온다
어릴렷렷 상사대야
낭구라도 고목이되면
어릴렷렷 상사대야
오던새도 아니나온다
어릴렷렷 상사대야
물이라도 건수가되면
어릴렷렷 상사대야
오던고기도 아니나 오네
어릴렷렷 상사대야

이세에 이에에 (52)

아침 만넨~인 동무
해떨어지니까 이별을 하네

이세에 이에에

반달같은 요는미
연지입만큼만 줄어틀쥬요
이세에 이에에
미나리는 가는구먼
받을사람이 전혀없네

그들은 "상사데이" 를 부르며 눈을 매거나, '미나리' 를 부르며 모내기를 할 때 인생무상을 그렇게 노래에 담았다.

바. 신세한탄

신세 한탄은 곧잘 노동요에 나타나 서민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곤 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팔자 소관으로 돌리며 딱딱하기 만한 삶을 한탄하곤 했다. 물론 그리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도 자신들이 처지를 노래에 실어 한 곡조 뽑을라치면 속이 후련해졌다.

매어주게 매어주게 ~에~ (31)
에~ 에~ 에~ 에~
매어주게~
논~ 매어주게
이논자리를~ 매어주게~
놀다가 죽는거는 우물안에 괴긴데~
일하다 죽는거는 우리나라 농부라~

따리따방 따방네야(129)
초세살에 예미죽고
초네살에 아버지죽고
따방 따방 따방네는
돌뻘나게 올라앉아
돌아가며 울면서는
우리아버지 어디갔나
저승길에 가셨거든
신울삼을 바람질이 보내주시오

(31)은 지겨운 논매기를 하면서 농사꾼의 박복함을 한탄했고, (129)에서는 으지가지 없는 따방네의 신세를 눈물겹게 노래에 담아 그렇게 표현했다.

사. 시집살이의 고달픔

옛부터 여인네들의 시집살이는 맵기로 소문난 고초당초에 비유되고 있다. 그만큼 시집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더군다나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그 당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네들은 시집살이의 고통을 혼자 노래로 삭히곤 했다.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한의 소리 처럼 들리곤 했다.

시집 3년 살고보니 (70)
행주치마 죽반으로
눈물 콧물 씻고나니
다쳐지고 흔적없네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땠니까(72)
시집살이 말도말게 고초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가 더맵더라
분질같은 내손길이 각지발로 다되었네
삼단같은 내머리가 피사리춤 다되었네
도화같은 곱던얼굴 외~꽃이 피었구나

아. 해학

민요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노래이다. 그러기에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을 추종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더 충실히 표현하려 애쓴다. 고단하기만 한 일상의 삶을 서민들은 해학이라는 언어의 칼을 가지고 가진 자들과 양반들을 서슴없이 베어 나갔다.

그런 언어의 칼은 노동요에 들어 와 앉아 서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등긁개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

황새야 독새야 느집에 불났다 (53)
쪽박갔다 불꺼라 워워이

우러리(79)
조심해!
늪은이 방구 뿔나무
젊은이 방구 복나무
등등 올랐다 복나무
대화 방림 새초거리
일시도 맘 놓지 말구
발발 떨었다 사시나무
색시집에 부티나무
올러가 한참
내려가 한참
쉬어가민
개다리 심 올랐다

(53)은 밭살맞은 새들을 놀려 주려고 불렀던 동요이고, (79)는 풀썰기를 하면서 익살스럽게 불렀던 노동요이다.

자. 원망

한을 품으면 어느새 가슴에는 원망이 쌓인다. 시앓을 둔 남편에 대한 원망,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시누이에 대한 원망이 어느 샌가 노동요 속에 녹아들어 노래가 되었다.

그네들은 대 놓고 자신의 속내를 내 보이지 못할 때 이런 원망 어린 노동요를 부르곤 했다. 혼자서.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하겠네 (73)
눈에가니 거머리 웬수 밭에가니 바랭이 웬수
집에 오나 수캐같은 시아버지 암캐같은 시어머니
여우같은 시누이년 보기싫어 못살겠네

새벽늦새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력아(54)
울고가면 지나올지 잠든 큰애기 왜깨웠나

새벽늦새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력아
울고가면 지나올지 잠든 큰애기 왜깨웠나

2) 황성노동요의 기능별 실상

♣ 발가는 소리

- ① 소를 이용하는 노동이다
- ② 소를 사람과 동격으로 놓고 의인화하여 대화한다. 일종의 소물이 하는 사람의 독백이다.
- ③ 발갈이 소리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호리소리와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겨리 소리가 있다.
- ④ 방향 지시와 같은 간단한 마은 반복에 의해 소가 감지한다.
- ⑤ 소를 친구로 보는 다정한 말이 표현된다. 소에 대한 강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 발매는 소리

- ① 여성들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래도 여성적이다.
- ② 노동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③ 가정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④ 단독창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보여주고 있다.

♣ 논매는 소리

① 선창과 후창을 할 수 있도록, 후렴이 꼭 따른다.(어화 얼싸 단허리아, 어럴럴 상사 디야)

②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집단적 박자를 철저히 맞춘다.

③ 선소리꾼의 수준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심하고 선소리의 내용은 즉흥적이다.

④ 선창자가 상층문화의 영향을 받게되면, 노래의 내용이 수직화 한다. 순수한 노동요에서 이탈하기 쉽다.

⑤ 횡성 지방의 논매기는 보통 세 벌을 매는데 첫 번째는 호미로 풀을 뽑으며 눈을 매고 이때는 단허리를 부르며, 두벌 세 벌은 손으로만 매는데 두벌일 때는 상사데이, 세 벌 맬 때는 땡이소리를 부른다.

♣ 모심기 소리

① 비교적 고된 노동으로 다수의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 노동요이다.

② 주제가 밝은 편이고 주로 작업 독려와 풍년을 기원했다.

③ 횡성 전 지역에서 미나리가 고루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④ 모심기는 동작(약 50초)과 거의 일치한다.

⑤ 남성들이 주로 부르는 남성창으로 긍정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다.

⑥ 노래가 짧은 편이고 교환창에 알맞게 분련체로 되어 있다.

♣ 나무하는 소리

① 정선 아라리보다 곡이 빠르고 경쾌한 아라리 가락을 구사한다.

② 주제가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 하고 있다.

③ 주로 혼자 하는 노동에 수반되는 노래이기에 독창을 많이 한다.

④ 다기능요로 이 소리는 발매기나 가사 노동요에도 함께 쓰인다.

♣ 운재, 목도소리

① 남성들의 집단 노동요로 리듬과 속도가 중시된다.

②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과정의 소리이기에 사설이 짧고 간단하다.

- ③ 교환창으로 선소리꾼이 즉흥적으로 사설을 만들어 매기고 일꾼들은 한 목소리로 받는다.
- ④ 호흡의 일치에서 온, 형제의식의 기초가 된다.

♣ 나물캐는 소리

- ① 주로 여자들이 혼자 부르는 독창 형식이다.
- ② 횡성 아라리 가락을 주로 구사한다.
- ③ 남을 그리는 남녀간의 간절한 메시지가 가사 전반에 깔려 있다.
- ④ 후렴이 거의 없으며 분련체이다.

♣ 지경다지는 소리

- ① 남성들의 집단 노동요로 매우 힘차고 절도가 있다.
- ②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노동요다.
- ③ 2음보 4.4조의 음수율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 ④ 교환창으로 선소리꾼이 사설을 매기면 뒷소리꾼은 '어기영차 지경이오'로 받는다.
- ⑤ 선소리꾼은 일꾼들의 지루함과 고됨을 잊게 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사설을 이어 나간다.

♣ 베짜는 소리

- ① 부녀자들이 베를 짤 때 부르는 소리이다.
- ② 베짜기가 혼자 하는 작업이므로 노래도 독창곡이다.
- ③ 베를 짜는 일의 공정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
- ④ 후렴이 없는 분련체이다.
- ⑤ 연속체로 대부분 긴 노래가 많다.
- ⑥ 단조로운 노동일 뿐 아니라, 시간의 소모가 많은 것이라 서사민요의 색채가 농후하다.

♣ 아이 어르고, 재우는 소리

- ① 어린아이를 어르거나 재울 때 부르는 소리이다.
- ②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독창이며 후렴이 없다.

- ③ 아이 어르는 노래로는 '시상달강, 부라 부라, 둥개야' 가 많이 불린다.
- ④ 아이에 대한 주술성이 강하다.
- ⑤ 음역이 대단히 좁고 같은 가락이 지루하도록 반복된다.

♣ **옹기 구울 때 하는 소리**

- ① 옹기를 굽기전 흙을 나무뿔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 ② 남성들의 집단 노동요로 노래와 일의 동작이 일치한다.
- ③ 사설구조는 4.4조의 음수율을 끝까지 지키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 ④ 후렴은 4박자의 받는 소리로 흥과 리듬감을 시종 유지하고 있다.

V. 마무리

민요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들을 살살이 살피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을 총망라해서 민요의 종류 단위로 어느 한 종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이다.

이 연구는 황성지역의 전승되는 노동요의 분류 및 전승양상, 황성 노동요의 성격을 입체적 접근 방식과 평면적 접근 방식으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황성 노동요의 형성 배경이 되는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검토하였다.

지리적으로 황성은 강원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군(農業郡)으로 대부분이 산지이지만 서남방은 산지가 완만하고 비옥한 평양지대이다. 이런 지역적 특징 때문에 이 지역에는 농업노동요가 발달했을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황성은 구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터 잡고 살았던 곳으로 도내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으며, 일제침략기 때는 일본 상인들이 한 명도 받을 못 붙이는 등 독립심이 강하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은 곳으로 고장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계승됐으리라 추측되나 농촌의 이농화(離農化)와 70년대의 화전정리 사업으로 인해 전통문화의 해체와 함께 노동요도 많이 소멸됐으리라 추측 할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 대회에서 '회다지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 하는 등 문화적 기반이 튼실한 이곳에는 '정금 민속예술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고장의 민요를 발굴, 계승하는 등 민요의 전승기반이 굳건함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황성 노동요를 분류하고 전승양상을 살펴 보았다.

황성의 노동요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농업 노동요, 어업 노동요, 벌목 노동요, 채취 노동요, 토목 노동요, 길쌈 노동요, 가사 노동요, 수공업 노동요 등으로 분류되며, 농업 노동요는 논농사요와 밭농사요 기타 농사요로 다시 분류되며 논농사요에는 모심기 소리인 미나리와 아이 논매기 소리인 단허리, 두벌 논매기 소리인 상사태이가 다수 채록되었고 밭농사요에는 호리소와 겨리 소를 부리는 밭가는 소리와 부녀자들이 많이 부른 밭매기 소리인 시집살이 노래가 채록되었다. 벌목 노동요에는 나무하러 갈 때 부르는 소리와

나무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다수 채록되었으며 주로 나무 할 때는 횡성 아라리를 많이 불렀다. 채취 노동요는 나물 뜸을 때 부르는 소리로 주로 부녀들이 부른 부요(婦謠)가 대부분이었다. 토목 노동요는 집터 다질 때 부르는 지경다지는 소리가 몇 편 채록되었다. 길쌈 노동요도 부요(婦謠)이며 물레소리와 베짜는 소리가 채록되었다. 가사 노동요도 주로 부녀자들이 부르는 소리로 아이 어르는 소리와 자장가, 그리고 제분일 할 때 부르는 맷돌 소리와 연자매 소리가 채록되었다. 수공업 노동요에는 옹기 굴 때 부르는 등치기 소리가 채록되었다.

횡성 지방의 노동요는 136편이 채록되었으며 그 중 농업노동요가 80편이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속 마을이 있는 우천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요가 채록되었고 농요는 전 지역에 걸쳐 고루 채록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작업으로 급격한 이농화와 국제화로 사라져 가는 이 고장의 노동요가 문서화, 기록화 된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전통문화 차원에서 보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Ⅳ장에서는 횡성 노동요의 각편들을 기능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횡성 노동요가 가지는 성격을 고찰해서 각각의 노동요가 가지고 있는 사상미학을 탐구했다. 또한 각각의 노동요들이 갖는 문학적성과 노동요의 기능성을 심도 있게 고찰해 입체적으로 횡성 노동요에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면적 접근방식으로는 노동요의 내용과 기능별 실상을 파악해서 횡성 노동요만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 정리했다. 횡성 노동요의 각 편별 내용 요소를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횡성 노동요는 작업 독려, 남녀간의 사랑, 축복 주술, 구복욕, 해학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횡성 노동요의 구체적인 구현현장을 기능을 중심으로 그 실상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횡성지방의 노동요는 자료로서는 총체적인 정리가 일단 된 셈이나 연구자의 음악적 식견 부족으로 採譜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최근 안흥면에서 분리된 강림면에 대한 채록이 제대로 안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이소라, 한국의 농요, 현암사, 1990
- 민속원, 한국의 농요, 민속원, 1990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대계 2-6, 2-7, 한국정신문화원, 1984
-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 임동권, 한국 민요, 일지사, 1980
- 송진규, 한의 소리 삶의 노래, 복원, 1995
- 임동권, 한국 민요사, 집문당, 1964
- 임동권, 한국 민요 연구, 일지사, 1980
- 조동일, 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 좌혜경, 민요시학 연구, 국학 자료원, 1996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
-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77
-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1980
-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 신경림, 민요기행, 한길사, 1989
- 최 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문학사회학적 해석, 집문당, 1986
-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 민요학회, 민요론집(1호~2호), 민속원, 1992~1993
- 최 철, 한국 민요학, 연세대 출판부, 1992
- 한국역사민속학회, 민요와 민중의 삶, 우석출판사, 1994
- 한국민요학회, 한국 민요학(1집~3집), 1993~1995

〈참 고 논 문〉

- 박창원, 포항지역의 노동요 연구, 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1997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 서병하, 아리랑요의 연구, 춘천교대논문집, 1986
- 김선풍, 횡성 회다지 연구,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86
- 이회동, 정금회다지 소리 연구, 상지대 석사 학위 논문, 1996
- 이창식, 한국 유희요 연구, 동국대 박사 학위 논문, 1991
- 김현선, 농노사 민요의 지역적 분포와 상관관계, 국립민속박물관, 1996
- 손종흠, 민요에 반영된 삶의 의식연구, 연세대 박사 학위 논문, 1993
- 좌혜경, 한국민요의 사설구조 연구, 중앙대 박사 학위 논문, 1992
- 고혜경, 전통민요사설의 시적 성격 연구 -농업 노동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 학위논문, 1990
-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정동화, 한국민요의 연구, 명지대 박사 학위 논문, 1980
- 김진순, 강원도 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관동대 석사 학위 논문, 1996
- 이상신, 경기 농악 연구, 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1997
- 송연선, 강릉지방의 민속음악 연구, 성신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80
- 이금주, 한국민요에 나타난 해학성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유근, 현대민요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현대시에의 지속성,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오한식, 농요의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정우택, 정선아라리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전개, 성균관대 석사 학위 논문, 1985
- 이청학, 강원도 민요의 기능성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현숙, 바리공주 무가 연구, 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1994

〈참 고 자 료〉

-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 MBC
횡성문화원, 향토사료집(5호~7호), 1987,1990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2-6,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강원도, 민속지, 강원일보사, 1989
둔내면지 편찬위원회, 둔내면지, 도서 출판 산책, 1998
횡성군,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강원문화사, 1995
횡성교육청, 우리고장횡성, 강원일보사, 1996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편), 집문당, 1997
횡성군, 횡성군지, 1986
정재영 외 3인, 화성의 옛터, 강원일보사, 1997
정재영, 고향, 성광사, 1987

횡성의 동쪽마을

공근면 수백리 韓山 李氏, 횡성을 남산리 原州 元氏, 서원면 옥계리 淸州 韓氏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공근면 수백리 韓山 李氏

수백리는 옛부터 무리 또는 무리개라고 불려왔는데 무리란 '물'을 뜻하며 산위에서 이 마을을 보았을 때, 낮에는 물이 희게 보이고, 밤에는 달빛에 모래가 희게 보인다는 데서 수백이라 불리어졌다. 1914년 검은돌, 대성, 버덩말, 영당 등을 합하여 상수백리와 하수백리로 나누었다가 그 후 수백리로 합쳐졌다.

수백리와 청곡리에 동쪽마을을 이루는데 300여년전 이곳에 낙향 정착하였으며 1932년 이원직이 주선하여 목은 영당을 건립하고

존영을 봉안하였다.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영당 전면에는 한산이씨화수친목회에서 쓴 「기」와 박인춘이 짓고 안승철이 쓴 현판이 걸려있다.

이색(1328~1396)의 후손인 이원직이 건립한 영당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중 정일과 9월 중정일에 제향을 올리는데 여기에는 한산이씨 문중은 물론 부근의 유생들이 참사하여 선생의 덕을 추모한다.

이색은 고려말의 문신이자 대성리학자이다. 찬성사 이곡의 아들이다. 14세에 성균시 십운과에 합격하고 공민왕 2년(1351)에 등과하여 내서사인, 성균대사성, 정당문학 등을 지냈으며, 공민왕 22년(1373) 한산군에 피봉되었다가 우왕3년(1377) 다시 추중 보절동덕찬화공신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가 되었다. 정몽주가 피살되자 관련되어 금천, 여흥, 장흥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조선왕조 개창후 태조 4년(1395) 한산백으로 봉하고 출사를 종용당하였으나 끝까지 고사하였다.



「한산이씨의정공휘지란파보」에 따르면 한산 이씨는 고려 숙종 권지호장직을 세습하면서 지방의 호족으로 기반을 닦은 이윤경을 선조로 효진(2)-창세(3)-자성(4)-곡(5)-색(6)-종선(7)-계전(8)-우(9)-장운(10)-질(11)-지란(12)으로 연결되며 의정공파를 형성하게 된다. 지란의 묘는 원주 지정면 간현에 있다.

이후 13대에 일부가 원주에서 갈려 나와 황성읍과 공근면으로 옮기게 되며 이 가운데 송와공은 원주 간현마을의 입향 시조가 된다

이후 규자 항렬이 25세, 구자는 26세, 복자는 27세, 원자 항렬이 28세에 이른다. 공근면내 한산이씨 동족마을은 청곡리와 수백리를 들 수 있는데 1999년 12월 현재 청곡리의 경우 1리와 2리에 포함 11세대가 거주하며 수백리의 경우 1반 1세대, 2반 7, 3반 5, 4반 4, 7반 4, 8반 4세대등 2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군내에서 논이 가장 많고 쌀의 생산량이 높은 곳이며 이곳 주민들은 미질에 있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수백리 일대에 韓山李氏가 집성을 이루며 살고 있다.

황성읍 남산리 原州 元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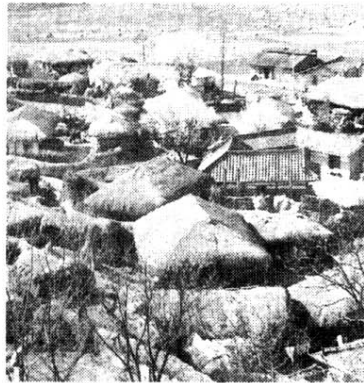
남산리는 마을 뒷편에 있던 남산사라는 절과 마을 뒤의 큰 덕고산을 이 지역에서 남산이라 부르는데서 연유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옛부터 사찰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사찰만 보더라도 범홍사, 남산사 등 절이 있고 지금도 보광사가 있으며 승방골, 벽절, 절골 등 절터와 관련된 자연촌락의 명칭이 있다.

이중 벽절은 생운리와 경계 부근의 동네에 있었던 절이다.

남산리는 본래 황성군 청룡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에 우천면에 소속되었고 다시 1973년 황성면이 되었다.

이곳에 사는 원주 원씨는 시중공계 음성공후참판공파에 속한다. 주지하듯 원주 원씨



(1960년대 남산리)

는 본을 같이하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하나는 경을 시조로 하는 운곡파이고 다른 한 파는 克猷를 시조로 하는 원성백파이며 마지막으로 익겸을 시조로 하는 시중공파가 있다. 익겸은 고려 신종때 문과에 급제하고 우시랑을 역임하였다.

시조 원익겸을 1세로하여 현재 동은 30세, 섭은 31세이며 횡성으로의 이전은 14세 후대이었다. 후의 졸년이 1588년(선조21)이므로 적어도 임란 전에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를 떠난 원씨들은 먼저 향너머에 정착하였으나 터가 좁아서 남산리로 이전하였다. 이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후손들이 밋 자리를 어디에 썼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후부터는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산19번지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후손들의 묘가 남산리 일대에 규정됨으로써 후손들이 이곳을 세거지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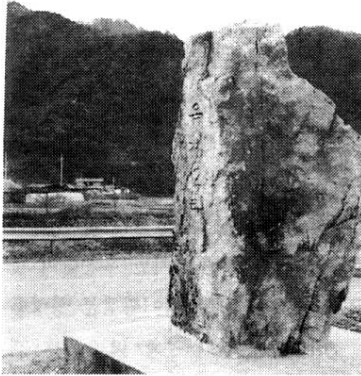
현 남산리 동쪽마을이 활성화된 것은 1936년 종손 28세 종락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활성화 되었으며 1999년 현재 남산리 총호수 63세대중 원주 원씨가문이 38세대에 달하며 문중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시중공계 27세, 28세, 2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무엇보다도 종종 소유인 남산리소재 부지 5만평을 대학유치에 회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송호대학이 설립 개교 하게 되었으며 원주원씨는 지난 400여년 동안 남산리 일대에서 집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서원면 옥계리 淸州 韓氏

옥계리는 이곳에 있던 玉지기 마을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옥지기 마을에서 玉자를 취하고 이 마을을 흐르는 2리천의 맑은 계곡물을 인용하여 溪자를 써서 옥계리라고 하였다. 옥지기 마을은 이 마을에서 옥이 생산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나 또는 '玉堂자리'라 해서 붙여졌으리라고 추측한다. 이 마을에는 호암이라는 옥색이 나는 바위가 있고 계곡물이 마치 옥류와 같이 맑고 깨끗해서 가히 옥계리라 불릴만 하다.

청주 한씨의 시조 韓蘭은 箕子의 후예이며 友諒의 31세손으로 전한다. 그는 고려 태조 11년(928)에 후백제 진휼을 정벌할때 장검을 들고 함께 출정하여 후삼국 통합에 공을 세워 개국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태위에 올랐으며, 청주 방정리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은 청주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옥계리의 동족마을과 관련된 節制公派는 14세에서 기인한다.

14세 仲孫은 세종 7년(1425)에 태어나 무과에 급제한 뒤 충청좌우도절제사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후 단종 2년(1454) 권간의 용사를 보고 벼슬에 대한 생각을 접고 남원 어은동에 내려가 학문과 농사를 짓다가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산매리로 자손과

함께 옮겼다고 한다. 후손들은 1983년 3월 이곳에 제실과 묘비를 건립하였다.

제차 17세 삼걸과 18세 준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원덕산에 밭자리를 사용하였다. 원주로의 이전은 성균진사를 지냈던 19세 계승이었다. 선조12년(1597)에 태어나 인조 22년(1644)까지의 그의 생몰년대를 감안할 때 17세기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승의 묘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운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후 23세 일선에 이르기까지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에 밭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광터(복금동)라 불리는 곳이 1차 이거지로 보인다. 이후 25세 득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옥계리 대산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이후 후손들은 대산에서의 정착이 확실함을 보이는 밭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옥계리의 전경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농토가 적었던 만큼 외지인의 정착이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몇 안되는 타성씨도 대개는 외손에 해당되었다. 이로 인해 동족마을에서도 보기 드문, 거의 완벽한 청주 한씨 단일 성씨가 거주하는 진풍경이 50여년 동안 연출되었다. 34세 한만천의 증언에 따르면 기미년 3·1운동 때는 물론 6·25전쟁 시기에도 마을이 파괴되지 않은 채 살아 왔으며 범죄없는 마을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현재 옥계리의 청주 한씨는 1반에 10세대, 2반에 16세대 등 총 43세대 가운데 26세대에 이르른다.

어사매 (제15호)

IV.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어사매 문화마당

- 隨 筆
- 詩
- 漢 詩
- 鄉土文化踏查記

이젠 창가에서



권 용 환

1952년! 6·25전쟁이 터진지 2년이 흘렀구나!

산은 온통 방공호로 두더지가 파고 다닌 듯 하고 논바닥 한길 가에는 폭탄 흔적의 큰 웅덩이가 많았으며 길가 초가집들은 불탄 잿더미와 무너지고 부서진 폐허의 마당에서 녹슨 쇠붙이가 뒹굴고 있었다.

횡성시장과 읍내 집들은 다 불타 잿더미 위에 불 먹은 함석조각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웅크리고 살고 있었다.

읍내 큰길가에는 불탄 군용트럭이 시체처럼 누워있었고 시체가 벗어 던진 군화 짝은 여기저기 뒹굴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12동란때 죽은 중공군 인민군을 양지쪽 산비탈에 묻고 가버린 후 봄기운으로 해토되니 흘러내린 사태 밭에 시체의 무릎과 발이 드러나 뼈죽이 내미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개구쟁이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였다.

하필이면 외아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부대 쓰레기장을 뒤지며 먹고 놀던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해 넘어가는 줄도 몰랐다. 먹다버린 과자조각 초코렛 깡통속에 먹다 남은 썸, 그리고 여자 나체 그림의 야한 잡지 책 쓸만한 손목시계 등등... 많은 물건을 뒤지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얼굴이 누렇게 뜬 양갈보들이 애국자이던 그 시절 우리는 횡성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광복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한 것으로 만든 검은 교복은 참으로 볼품 없었으나 그 당시 새옷을 입은 기분은 하늘을 날것 같은 기분이었다.

노란 단추와 모자의 중자가 자랑스러웠고 지금의 육군사관생도의 그것과 견줄만 했다.

마산리 진양원자리 지금 쉼 제약회사 자리에 중고등학교가 자리했는데 풀밭 들판 가운데 가건물이 모자라 교실이 부족했다.

12동란 때 다 부서지고 타버린 학교는 미처 건축되기 전이었다.

3월에 입학하여 공부는 하는 등 마는 등 매일 작업이 많았다.

운동장 정리 흙벽돌 교실을 짓기 위한 터 닦기 작업이 북한의 강제노동 같은 상황들이었다. 오전 수업을 하고는 모자란 교실을 건축하기 위해 매일 흙벽돌을 찍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시멘트가 귀하기 때문에 흙벽돌로 건축하는 것이 새로운 건축의 양상이었으며 단시일 내에 반듯한 집을 짓는 것이 흙벽돌 집이었다.

운동장 한 구석에 나란히 흙벽돌을 많이 찍어 놓아 3~4일 말려야 하는데 때로는 비가 내려 다 무너져 버리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석가래도 집에서 가져오게 했고 이영도 짙어지고 등교했다.

움집 같은 교실을 여러칸 지었다.

어두컴컴한 흙바닥 교실 그곳에서 우정과 지식을 꽃피웠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등교하니 썩는 냄새와 축축한 습기 가득한 교실은 교실이 아니라 시궁창이었다.

책상 위에 짙 썩은 뭉치가 떨어지니 노내기(노래기) 덩어리가 확 헤어지곤 했었다.

냄새가 지독한 노래기 덩어리를 치우며 세상이 다 그런 줄말 알고 뛰어 놀고 자란 중학 시절 이었다.

비 오는 여름이면 그냥 비를 맞고 뛰다가는 나무 밑이나 처마 밑에서 낙수에 하염없는 시선을 주다가는 비가 좀 그치면 또 뛰었다.

그때는 우산이 아주 귀했다. 비닐도 없었다.

레인코트는 물론 없었다.

삿갓이나 도롱이는 있었으나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집에서나 사용했지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미군부대 담요기지를 몰들여 그 천으로 모자를 만들어 팔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서 썼었다.

비를 맞아 빗물이 모자에서 흐르면 검은 물감이 얼굴로 흘러 굴뚝에서 나온 족제비 같았다. 교복도 마찬가지로, 흰 속옷이 검은 물로 얼룩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었다. 얼굴은 흑인이 되었고 몸은 아프리카인이 되었다.

집에 와서 벗어 헛간 빨래줄에 말리기 위해 널면 어머니께선 막 웃으셨다.

또 검은 운동화도 질이 나빠서 며칠 신으면 뒤꿈치 밑바닥이 다 달아 구멍이 났다. 운동

화도 젖으면 검은 물이 진흙과 함께 질척거리며 발은 온통 곰 발바닥 같이 되었다.

그 날밤 구멍난 운동화를 실로 꿰메어 주시는 아버님의 손길은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였다. 또 그때는 읍내에 내려와 썰기대회가 아주 많았다. 일주일에 세네번은 썰기대회를 했다. 휴전반대, 북송반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등 별것을 다 정부에서 시도하는 대로 썰기대회를 했다. 그리고는 시가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돌아 다녔다. 그러면 그날은 수업을 하는 등 마는 등했다.

학교로 다시 올라 올때는 뺑소니 학생이 많았다. 뺑소니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오십리 삼십리는 보통이며 전교 학생이 40%는 삼십리 이상 걸어서 통학을 하는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주군과 공근면, 서원면, 갑천면, 우천면, 안흥면 지역에서도 다 걸어서 통학을 했다. 그 당시 고등학교는 각 면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가 불손하면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오십리 사십리를 걸어서 등교하니 지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은 오후만 되면 집에 갈 걱정과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읍내에서 썰기대회가 끝나면 뺑소니를 하여 집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3학년이 되었다.

뒤편에 새 교실로 옮겼고 나는 여학생이 있는 반으로 편성이 되었다.

내 자리는 남쪽 창문 쪽 이었는데 창문 밖 50m밖에는 허름한 종축장이 있었다.

뿔이 무서운 빨간 큰 황소가 늘 콩 한 말 지고 오는 발정하는 암소를 기다리고 있었고 몸집이 아주 큰 검은 미국산 수돼지 서너 마리가 돼지우리에서 항상 어른거렸다. 그 옆 마당에는 교미틀 옆에 하얀 닭 몇 마리가 늘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점심시간에는 여학생 몇 명이 돼지 우리 담벽 옆에 수군거리며 재미있게 웃고 웃으며 모여 있었다.

종축장 기사 아저씨가 바쁘게 움직였다. 콩 한말 둘러메고 암소를 급히 따라오는 농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모소인 황소가 씩~씩~ 거리면 눈이 시뻘개졌다.

암소가 다급하게 황소 있는 쪽으로 갔다. 종축장 기사 아저씨가 황소 고삐를 풀어 놓았다.

황소가 암소 뒤를 살피더니 냄새로 가늠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씨~!웃는다. 한참을 하늘을 향해 웃었다. 암소는 서둘러 올 때와 달리 침착해지며 앞전해 하며 수줍

은 듯이 탄성을 부린다. 그리고는 꼬리를 여유 있게 흐뭇해하며 흔든다.

저만치 여학생들은 수군거림을 그치고 호기심으로 앞 여학생 어깨에 턱을 대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어색함을 감추려는 모습이다.

피식~! 피식~! 웃는 여학생도 있고 이성의 눈이 떠지는 호기심으로 진지하게 보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드디어 한참만에 분위기를 잡던 황소가 암소 뒤를 돌며 경충 솟구쳐 뛰어 올라 앞다리로 허리를 끌어 안는다. 조준이 빗나가 실패하였다. 암소 주인은 고삐를 바투 잡고 등어리를 긁어 주고 있고 종축장 아저씨는 재시도를 부추긴다. 종묘 소는 거품을 품으며 다시 올라탔다. 종축장 아저씨는 얼른 손으로 조준을 하여 주었다. 일은 금방 끝났다. 갑자기 싱거워졌다. 좀 긴장했던 여학생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고 말았다. 못 본 척하는 친구를 꼬집어 주는 학생도 있었다. 무엇인지 모르게 부끄러운 듯이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며칠 후 햇살이 강렬한 날이었다. 밀이 부어 오른 암돼지를 뒷다리 발목을 끈으로 묶고 긴 몽둥이로 좌우를 조종하며 몰고 종축장을 향해오고 있었다. 첫 새끼를 갖기 위해 수돼지를 찾아온 것이다. 종축장에 들어서니 우리 안에 있던 수돼지들은 부산함이 그리고 공연한 흥분과 설렘이 종축장을 흔든다. 오늘은 여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섬이 확실했다. 적극적인 도전이 활개치고 있었다. 부끄럽고 이상한 창피함을 잊은 것 같았다. 종축장 아저씨가 한 수돼지 문을 열었다. 손살 같이 달려 나오는 수돼지는 발정난 처녀 돼지를 향해 달려갔다. 종축장 수돼지는 덩치가 크고 다리와 허리가 긴 잘생긴 돼지였다. 암돼지는 겁이 난 듯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하고 있었다. 수돼지는 암돼지 뒤로와 애무를 시작했다. 종축장 아저씨가 나무로 만든 교미틀로 몰고 가서 교미틀 위에 들어서게 했다. 첫 새끼의 처녀돼지라서 그런지 틀에 들어서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주인과 종축장 아저씨는 애써 붙잡고 다리를 매고 하여 틀에 얹드리게 했다. 수돼지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숙달된 자세로 달려 들었다. 암돼지는 묶은 다리가 아프고 큰 숫놈이 무서운지 소리를 지르고 뛰어 벗어나려 하였다. 숫놈은 의젓하게 뒤쪽으로 올라탔다.

연분황색의 꼬불꼬불한 통송곳 같은 신(腎)이 보였다. 여학생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다. 처음 보는 것에 대한 신기함이 그들을 긴장하게 했을 것이다. 동물적인 행위가 시작되었다. 종축장 아저씨가 조준을 하여 소보다는 어렵게 일이 끝났고 시간도 소보다는 길게 지연되었다. 아랑곳하지 않고 끝난 교미는 또 심잡기가 한이 없었다. 주위는 조용해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았다. 수돼지는 제 우리로 들어갔

고 암땀지는 지게꼬리 끈으로 옆 말뚝에 매여져 있었다. 암땀지를 끌고 온 이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더니만 종축장 주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암땀지는 저 멀리 사라졌다. 다시 조용해진 종축장은 한가하고 한적함이 맴돈다. 여학생들도 교실로 들어갔다. 저희끼리 별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교실에서 성교육이란 단어가 있기 전이었다. 6.25전 후 세대는 성이라면 무조건 감추어진 것이며 알아서는 안되는 것 같은 무서운 것이라는 의식 속에 자라 왔다. 여자는 남자를 무서워했고 여자는 길을 건너면 재수가 없다는 시대에 살아 왔다. 자연에서 터득한 성지식 은밀히 어머니께서 해주신 성교육 지혜로 경험과 체험과 본능으로 인한 성교육으로 우리 세대는 건전하게 잘 살아 왔다.

그 해 겨울이었다. 점심 시간에 난롯가에 죽 둘러서서 떠들고 있었다. 난로는 드럼통으로 만든 것으로 나무 장작을 넣는 것이었다. 반쯤은 여학생들이 예쁜 손을 앞으로 하고는 불을 쬐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손에 성냥이 집혀있었다.

나는 성냥 통에서 성냥개피 하나를 난로 위에 꽂아 놓았다.

성냥 개피에 불이 확 붙어 타올라 오더니 불똥이 꾸부러지며 쓰러졌다. 둘러섰던 남학생 몇명이 “와~!” 소리치며 막 손뼉을 치고 웃고 놀리는 것이었다. 불똥이 쓰러진 방향의 남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욕을 하고 떠난 곳으로 가버렸다. 어리둥절한 몇 학생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귀여다 대고 『불똥이 쓰러진 쪽의 학생이 ××가 제일 크다고 하며 하는 놀이판 말이야. 이 바보야!』라고 하였다. 그도 막 웃으며 재미있어 했다.

어느 친구가 또 하라고 부추겼다. 나는 또 성냥 개피를 꺼내 또 난로 위에 세웠다. 불이 붙고 타기 시작했다. 『와~! 와~! 아~! 어~!!』 손뼉을 치며 환호를 하며 교실이 매우 소란했다. 불똥이 쓰러지는 쪽을 예상하며 소리를 질렀다. 『야~! 누구냐! 누구야! 와~! 와~! 어~! 오~!』 여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상하게 환호하는 남학생들을 보며 이상해 하였다. 여학생들은 그 내용을 아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것 같았다. 불똥이 비틀어지며 넘어가려 한다. 『야~ 누구냐~ 야~! 오~! 아~! 어~! 야!!』 우리는 정신없이 난로 위 성냥 개피 불똥에 시선을 집중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때 좋은 척건만 종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전규태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몇 학생은 선생님이 오신 것을 알고 슬금슬금 책상으로 간 학생도 있었다. 나는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아 다시 보는 순간 선생님의 지휘봉이 내 머리에 와 “딱~” 하는 소리가 나며 벌이 반짝했다. 난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확 헤어지며 자기 자리로 손살 같이 달아났

다. 『이리 나와~!』 『여기 옆드려 뺨쳐~!』 나는 교탁 옆 빈자리에 옆드려 뺨쳤다. 『난롯가에서 성냥 개피로 장난한 사람 다 나와』 눈치를 살피며 장난을 시작한 나를 원망하며 네 명이 나왔다. 『너도 이리와~』 나까지 다섯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무서운 처벌과 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용환 너 그 성냥 놀이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해봐~』 『……』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학생 몇이 『킵 킵~! 킵!』, 『낄낄~! 낄! 낄낄~!』 웃음을 참느라 코방귀가 여기 저기서 터지자 『팻~! 파~!』, 『와~! 핫~! 화~! 하~! 와!』

책상 밑으로 얼굴을 내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웃는 학생이 여럿이었다.

『야! 이 자식! 쓸데없이 장난만 치고~!』

출석부가 내 볼때기에서 버락치는 소리와 함께 출석부가 왔다갔다 했다.

나는 얼굴이 빨갱게 돌아오르며 정신이 없었다.

『너희 다섯 명은 단단히 혼나야 돼~!』 우리는 창피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무서웠다.

『밖에 나가 맨발로 얼음 위에서 손들고 서있어~!』 다섯 명은 꾸물꾸물 밖으로 나갔다.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이 새끼야!』 밖은 영하 십 도는 되는 듯 매섭게 추웠으며 교실 뒤쪽이라 그늘로 눈과 얼음이 있었다. 선생님이 뒤따라 나오셨다. 『야. 임마! 양말 벗어~!』 우리는 신과 벗은 양말을 앞에 놓고 맨발로 얼음과 눈 위에 서서 손을 들고 벌을 받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팔은 저리고 발은 얼어 들어와 아프고 견딜 수 없었다. 손을 들은 허리로 찬바람은 사정없이 파고 들어 온몸이 얼어들어 왔다. 맨발 밑에는 얼음과 눈이 녹아 물이 흥건했다. 전선생님은 가끔 유리창 너머로 벌 서는 태도를 확인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장난을 시작한 나에게 눈을 흘기며 원망하는 눈총을 받으며 나는 벌을 서야 했다. 끝 종이 울렸다. 딱 반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벌받는 우리를 보고 막 웃으며 구경들을 하는 것이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다. 특히 더 못 견딜 일은 하급생들이 쭈군거리며 입을 가리고 웃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수업을 끝내고 전선생님은 우리 앞으로 오시더니~

『종례 후에 교무실로 와~!』 하시며 교무실로 가셨다.

빠근한 팔과 뻥뻥한 다리는 잘 움직이지질 않았다.

그러나 운동화와 양말을 들고 교실로 들어 왔다. 여학생들과 함께 견딜 수 없이 돌아서서 웃는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장이었다. 종례 후 교무실로 갔다.
전 선생님은 갑자기 부드럽게 대하시며 『아까는 손발이 몹시 시렸지!』, 『네!』
『앞으로는 그런 장난하지 말아라! 여학생이 있는데서 그런 장난은 더욱 나빠요!』, 『네!』
『그래 그 불똥이 여학생 쪽으로 쓰러지면 어떻다는 거야! 임마!』, 『...』, 『앞으로 정말 조심해! 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뛰어나오듯 해방의 기쁨으로 나와 집으로 향하였다. 겨울의 짧은 해가 어느새 서쪽 산등성에 걸려 있었다.

그 외에도 “백지동맹사건”, “교내 배구대회”, “수학여행”, “소풍”, “패싸움”, “전후깡패사건”, “여학생과 연애사건 이야기”, “가을이면 친구 결혼식 참석이야기”, “미군 부대 하우스 뺨이 이야기” 등등 전후의 잿더미에서 구호물자와 떨어진 군복을 입고 아름다운 추억과 재미있는 기억들을 만들며 살아왔다.

그 당시 유행어도 많았다. 아이러니컬한(Ironical) 그리고 전후의 가난하고 외로움과 본능적인 면과 미군과 양공주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서

『밥만 먹곤 못살아~~!』, 끝을 민요조로 울리며 소리치며 돌아 다녔다.

약간 시니컬(Cynical)한 유행어

『혼자 손에 그개 어디야~!』, 등등은 전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서부 영화 건넌을 닮은 나팔바자와 모자 창을 작게 하고 딱 벌어진 가슴을 곳곳이 세우고 건넌을 닮은 걸음걸이가 그때 멋쟁이었다.

6.25전후 세대는 그렇게 살아 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고 일하며 부서지고 깨진 국토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했다.

미군이 몰고 들어온 서구문화를 여과장치 없이 뒤집어 쓴 우리들은 괴롭게 공장 건설에 몰두했다.

밤을 새워가며 수출을 했고 청춘을 새마을 운동에 그리고 휴전선에서 보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이룩되었다. 누가 뭐라도 우리 전후 세대는 큰 일을 해냈다. 앞으로 역사 학자들은 전후세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나는 지금의 학생 후배를 본다.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학용품, 그 많은 책, 그 좋은시설 호화로운 의상, 그 많은 비디오, 그 좋은 노래, 그 좋은 공부방, 그 좋은 교통, 그 좋은 빵집, 그 좋은 음식, 왜 불평하는가? 왜 부모는 눈치를 살피나? 진리는 가리워 지고 돈만 크게 보이는가? 이상한 차림의 젊은 외국인 가수의 노래에 왜 까무러치는가? 왜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것인가?

후배들이여!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를 책임져다오~!
선배들의 주름살의 역사를 헤아려다오!
부모 앞에 자식은 늘 측은함이 있듯이 선배도 후배를 보면 측은함이 있구나!
사랑하는 후배들아~!

권용환

황성문학회 회원, 황성문학회회장 역임

수필집 「똥 밟은 하루」 발간

주부 가을 나들이를 다녀와서...

김미애 (북천리 중앙아파트)

10월 4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때 나는 남편과 상의도 없이 간다고 했다. 그리고 퇴근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MBC 여성시대 주부나들이에 초대를 받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런 망설임없이 갔다오라고 하는것이다.

사실 주부나들이에 갈 사항은 아니었다. 이사갈 날이 정해진 상태였고 발에나가 고구마도 캐고 깻단도 베어야 하고 그리고 고추대도 뽑아내야 하는 등 할일이 많은 사항속에서 1박2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내게 많은 시간이였다.

하지만 난 꼭 가고 싶었다.

7일 토요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부지런히 해놓고 휘닉스파크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갔을때 그 유명한 김정수 프로듀서와 한재희 프로듀서 그리고 진행진들이 콘서트 야외장을 꾸미기에 한창이였다.

한참을 기다리면서 집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떠날수 있도록 해준 남편이 고마웠다. 그리고 멀리되는 산야의 움직임이 아련한 현기증으로 돌아올때 차가 한대 두대 들어오더니 21대의 버스가 들어서더니 각지에서 온 주부들이 까맣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나는 혹시 옛날 친구라도 만날까 싶어 사진도 몇장 가지고 갔고 혹시 나를 알아볼 친구가 있을까 800명의 주부들이 앉은 의자사이를 왔다갔다 했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창의 가을은 황성의 가을과 별다른바 없었다.

밝은 하늘에 금방 쏟아져 내릴것같은 바닷빛 물방울색의 흰구름이 또박또박 수제비를 떼어놓은 듯이 간결했다. 그 간결함 속에서의 혼자라는 생각이 자유를 느끼게 했다.

자유란 항상 자기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어떠한 울타리를 벗어나 내가 지배

하는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것을 느낀 자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놀아주기만 하는것에 대한 야만인같은 생각이 나를 엄습해왔다.

콘서트. 이 얼마만인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울살때는 친구들과 가끔씩 콘서트에 가곤 했는데 야릇한 감정속에 꿈틀거리는 먼추역과의 만남도 잠시 열맞춰 있는 하이얀 의자들은 가을빛의 싸늘함을 반짝이고 있었다.

양희은 김승현의 여성시대 공개녹화방송이 시작되면서 기분이 한층 더 고조된 주부들의 웅성거림은 굉장했다.

나는 운 좋게 앞에서 두번째 줄에 앉아서 콘서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박상민 심수봉 핑클 등의 가수가 나와 노래와 울동 입담을 할때는 합성과 함께 마치 고교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처럼 흥분되어 있었다.

20대 아니 10대 철없는 소녀로 돌아가 합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고 목이 따라왔지만 정말 그 순간 만큼 행복했다.

요즘 인기있는 김종환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 열광하는 소녀팬들처럼 아줌마 부대 또한 굉장했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주부가 말했다.

“여기 안왔으면 어쩔까 잉”

나는 그말에 장단을 맞춰서 “그러게 말이에요”

내 노년이 되어도 이러한 추억이 있었노라 지금의 이순간 이곳에서의 모든것들을 놓칠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수들이 나올때마다 서로 싸인을 받는다igo 난리들이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만 태진아, 양희은씨 싸인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리고 2부에서는 주부들의 장기자랑과 촛불의식을 거쳐 모닥불을 피워놓고 성화식도 했으며 맥주 몇만cc와 안주 그리고 따스한 오뎅국물이 준비된 사항속에서의 콘서트 분위기는 한창 열기가 더해갔고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18세라는 현실을 실감했다.

행복한 밤은 짧다고 누가 그랬나? 순식간에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양희은씨의 아침이슬을 함께 따라부르며 촛불의식을 거치면서 하루를 접해야 했다.

다음날을 위해 오렌지타운 1109호로 돌아왔다. 그리고 213호에서 놀러오라는 연락

을 받고 2층으로 내려가서 부산, 인천, 안산, 서울에서 온 엄마들과 즐거운 시간속에 사진촬영 한것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주소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다시 1109호로 돌아왔을때 맥주파티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맥주를 한잔씩 하면서 대전에 명숙씨, 광주에 명숙씨, 부천에 만임씨, 일산에 문신씨 그리고 황성의 나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면 언니 적으면 동생이라고 불리거나 우린 금방 친해졌고 헤어져도 서로 연락도 하고 정보도 주고 받으며 서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주고 받았다.

대전의 명숙씨는 20년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20년동안 누워만 있다가 처음으로 주부나들이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명의 명숙씨는 장애인 친구를 함께 따라온 언니였다. 이름도 똑같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던데...

그들은 너무나 다정한 친구였다. 절실한 3명만 있어도 세상 부러울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인연이란 현생, 전생, 후생 3생에 걸쳐 이루어 진다고 했나?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서의 인연의 끈이 남아있어 이곳에서 만날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콘서트 열광속에서 우연히 장애인 명숙언니에게 시선이 갔을때 조금 미안했다.

한없이 선해보이는 명숙아줌마의 모습은 가을 코스모스와 같이 여린 소녀와 같아 보였다.

그리고 가슴아픈 장면을 목격한 것은 나와 명숙언니가 장애인 언니를 앉아서 번기에 앉혀올때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허벅지를 척척내려쳐야만 소변을 볼 수 있다면서 밝은 미소로 불편한 오른팔로 허벅지를 척척 내려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왔다.

몸은 정상이어도 마음이 장애인이 많은 세상, 생활에 대한 불평과 비신뢰와 욕심으로 생을 일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나는 이렇게 가깝게 장애인을 대하기는 처음이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도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글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작은 목소리에 나는 이곳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자신의 욕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조금은 철이 들어왔다.

다음날 끈드라를 타고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 휠체어를 밀어보니 마음처럼 잘 굴러가지 않았다.

같은방 식구들은 어젯밤 맥주를 많이 마신타에 음주운전을 한다면서 한바탕 깔깔깔 웃음소리에 휘닉스파크가 넘어가는줄 알았다.

콘드라를 타고 산정상을 올라서는 나 자신이 세상의 작은 미립자 같은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희망의 종을 치면서 자신에 대한 메세지도 남기고 아주 익숙한 사인을 하고 내려왔다.

한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안정된 가을로 찾아오는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욕심이 내등을 밀고 있을때 어느새 그곳을 다녀온지 24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내아이가 떨어트린 물감이 번지듯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산야를 바라보며 그동안 나는 이사를 하여 정리도 했고 고구마도 쟤다.

섬강의 맑은물로 엷은 빛을 삼키는 저산의 아름다운 단풍이 다 지기전에 휘닉스파크에서 만남 여성시대 청취자이자 친구들, 대전에서 전라도에서 일산에서 부산에서 보내준 사진과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야 쟤다.

끝으로 시장안 300번 떡집 이홍자 언니, 바쁜데 그날 휘닉스파크까지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김장하는 날

이 순 자 (음상리)

온 산에 단풍이 들고 거리의 사람들이 저마다 두꺼운 옷으로 갈아 입기 시작하면 해마다 내게 맡겨진 큰 숙제로 근심이 생긴다.

몇 해 전부터 오래된 지병으로 늘 몸이 편찮으신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서 친정집 김장 담그는 일은 내게 맡겨진 일이 되었다. 직장에 다니는 나로서는 김장때 필요한 것갈만 준비해서 퇴근후 원주에서 영월에 있는 친정집으로 간다.

친정집 김장량은 보통 가정보다 더 많이 해야한다. 종가집으로 가끔 많은 손님도 치러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많기 때문이다. 김장은 아버지께서 가을내내 손수 가꾸어 놓으신 배추가 어렵잡아도 오백여 포기 정도는 되는데 이를 모두 담가야 한다.

요즘은 핵가족과 맞벌이가 많기에 아예 김치를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그 집안만의 독특한 김장 맛 보다는 김치 공장에서 똑 같은 맛에 길들여 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김치를 사 먹거나 조금씩 담그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량의 배추가 넓은 합지마다 산더미처럼 절여있는 것을 보면 보는 순간부터 엄두가 나지않고 질려 버린다. 아버지께서는 미리 배추는 소금에 절여 놓으시고 마늘 다지는 일이며 고춧가루 장만등 필요한 것은 며칠전부터 준비를 해놓으신다.

나는 밤이 늦도록 깎두기를 썰고 무채를 썰다보면 손바닥이 부르토고 약한 손목에는 여지없이 파스를 붙이게 된다. 다 썰고 나서 늦은 잠을 청해 보지만 고단한 탓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도꼭지에 길게 호수를 연결한 다음 전등불 밑에서 배추를 씻다보면 어느새 마당가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을 맞는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대신하는 내가 안스러움에 어쩔줄 몰라 하시면서 투박한 잔에다 커피를 타다

주신다. 시린 발을 동동 거리며 배추를 씻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추위를 녹여준다.

문득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본다. 몇 포기 안되는 배추로도 김장하는 날은 친구들과 함께 잠깐 동안이면 다 버무려 놓고 수다를 떨며 하루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난 쌓여있는 배추를 보는 순간 여유로운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배추를 버무려야 한다. 혼자 애쓰는 것이 안스럽다고 동네 아주머니 두 세분이 와서 도와 주시지만 배추더미와 붉게 물들여 놓은 배추양념이 줄어들어 갈 때면 내 몸은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축 처진다. 하루종일 허리 한번 펼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 보니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은근히 짜증도 난다.

미안한 마음이라 서인지 김치 담그는 주변을 서성 거리며 빈 그릇을 치우시는 어머니 손의 주름이 더욱 깊어진걸 알았다.

내년에는 사람을 사서 김장을 할테니 오지 말라고 애써 웃어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었다.

太宗臺



박 순 호 (갑천면 매일리)

雉岳山 험준한 山勢
감돌다 멈춘 후미진 산자락
맑은 물 劫年을 굽돌며
다듬어 펼친 溪石에
이끼 바랜 駐蹕臺 자리하니
帝王의 발자취 완연하구나.

人倫을 짓밟고
權座를 달취한 芳遠
師事의 情을 빌어
開國의 國亂을 平靜코저
三顧草廬 마다 앓았건만
隱士의 節概앞에 한숨지었네.

壯하다 耘谷의 忠節이여
富貴功名 뿌리친 氣象이라
千年歲月 松竹에 푸르데
이로인해 老古沼에 몸 던진
밭 매던 할미의 원혼은
어느 누가 달래 주었던고.

-
- 1) 방원 : 조선조의 4대왕 태종
 - 2) 운곡 : 원천석, 고려말의 거유, 방원의 스승
 - 3) 노고소 : 원천석의 거처를 묻는 방원에게 거짓으로 알려준 죄책감에 農婦가 투신한 소의 이름

가 을



박 현 숙 (황성음)

햇살들 한 곳에
모인……

낮게 엮드린 구름조차 아름답고
툭툭 떨어져 버린 색깔들이 무너져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다.
비상하던 햇살들이 옷자락마다
걱정에 싸이면
이따금 추억들 엮치락 거린다.

더위에 익숙해졌던 잎새들은
길어 올린 분화산 같은 정열로 흔들리고
바람은 나뭇잎에 떠들썩하다

들판에 꽃혀있는 대낮들은
누구의 분신인지
그리웠던 고독의 알몸 바늘인가
가슴 드러내고 밤은 夜氣에 젖어있을
푸른깃 호화로운 숲으로 몸달아있을
……………

사랑을 기다리는 망부석일는지
…… ……

이산의 슬픈노래



정 금 자 (횡성군 북천리)

- 이제는 너를 만나고 싶어 -

I.

아주 오래 전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얼굴

언제나 마음 안엔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 소리가
떠다니고

네(四) 계절의 모퉁이를
서성대는 작은 몸짓
火印처럼 선명히 새겨진 그 모습은

컷가 오래도록 흔드는 마른 나뭇잎 소리로 다가와
통곡하며 이름 부르게 했네

II.

아주 오래 전
어둠 속에서 놓아버린 손

언제나 가슴 안엔
그리움이 젖은 깃발처럼
펼럭거리고

뒤척이는 밤마다
어둠 휘젓던 흰 손가락
꿈 보다 선명한 그 손짓은

오래도록
눈 앞 어지럽히는 빈혈로 찾아와
뜨거운 이마를 스치고만 지나갔네

Ⅲ.

젊은 날, 등 보이며
돌아선 아픈 결별

쇠잔한 기억 속
슬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꼭 너와 해야 할 것 같아

희어진 머리카락
굽은 등어리 어루만질
주름진 손등으로
한여름의 햇살을 가리면

그 햇살 가장자리 드러나는
검은빛 실루엣

눈물 묻은 웃음 한 번
웃어 보이며

이제는 너를 만나고 싶어

※ 시작노트

지난 8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온 겨레의 마음을 울린 그 만남으로 남북통일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한 어느 노모의 눈물을 보면서 다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의 아픈 심경이 되어 보았습니다. <제2회 『한민족통일협의회』주최 문예작품 공모전 차장 수상작>

祝 新千年



厚堂 宋寅錫

慶 祝 千 年 新 紀 元	경 축 천 년 신 기 원
祥 雲 瑞 日 暎 川 原	상 운 서 일 영 천 원
惟 祈 槿 域 平 和 樂	유 기 근 역 평 화 락
更 望 農 村 幸 運 繁	갱 망 농 촌 행 운 번
進 學 門 中 書 滿 架	진 학 문 중 서 만 가
詠 詩 席 上 酒 盈 樽	영 시 석 상 주 영 준
願 言 南 北 分 疆 舍	원 언 남 북 분 강 함
國 泰 民 安 復 舊 痕	국 태 민 안 복 구 흔

천년에 새기원을 경축하니
 상운과 서일이 천원에 비치도다

오직 근역에 평화의 즐거움을 기원하고
 다시 농촌에 행운이 번창하기를 바라네

진학하는 문중에는 서책이 시령에 가득하고
 영시하는 석상에는 술이 잔에 가득하도다

남북에 분강이 통합되어
 국태민안하고 옛 흔적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厚堂 宋寅錫 / 橫城郡 屯內面 永浪里

향토답사를 다녀와서

손 선 철 (횡성고 2학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향토 답사반 아이들은 학교앞에 나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향토답사반 모두와 함께 하루동안 답사를 다녀오는 날이다. 직접 걸어다니며 답사하는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돌아 다니며 하는 답사도 나름대로 재미 있을 것 같았다. 이윽고 담당선생님이 나오시자 출석을 부르고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인 즉슨 시간사정상 애초에 의도했던대로 다 답사하지는 못하고 몇군데만 중심으로 답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심은 횡성문화원 근처의 식당에서 먹기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속으로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야 할텐데... 라며 은근히 점심시간이 기대됐다. 그후 횡성문화원까지 모여서 걸어가자 그 곳에 버스 한대가 대기중이었다. 버스에 오르자 나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 답사할 곳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조충묘, 태종대, 의병총, 삼층석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틈에 어느새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를 잡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의 일정을 얘기하시며 오늘 하루 동승한 어떤 남자분에 대해 소개하셨다. 횡성문화원에서 오셨다는 그분은 사람 좋게 생기신 배가 좀 나오신 분이였다. 그분의 소개가 끝나자 우리는 차에 오르며 받았던 유인물과 책을 보며 선생님 말씀을 경청했다. 그나저나 여기 오기전에 조사해 놓았던 '횡성향교'는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횡성의 연혁(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며 나에게 유인물에 횡성 지명의 변천과정을 아이들에게 잘 들리게 마이크로 읽으라 하셨다.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도 있지만 잘 모르던 내용도 있어서 열심히 읽으려고 했지만 생각만큼은 잘 읽지 못했다. 왜 하필 내가 읽을 때 집중적으로 흔들렸을까? 그 후 선생님은 횡성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조충장군'에 대해 얘기하셨다. 횡성조씨의 시조라는 이 분은 내 친구중에도 횡성 조씨가 있고 그 아이의 시조도 조충장군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사

실 약간 부럽다. 나의 시조는 우리 집안의 족보에 보면 '손사달' 이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전 분이 시란다. 어쨌든 차가 멈추자 우리들은 내려서 조충장군의 묘를 구경하러 갔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거라 사실 제대로 구경하지는 못했으나 대신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 근방에 횡성 고씨 시조의 무덤이 있던 것이다. 그 분은 조선시대 때 지금의 '영동고속도로' 길을 뚫으신 분이란다. 그 공로로 횡성 고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들이 빨리 쳐들어 오는데 일조를 했다며 사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횡성 조씨의 시조인 조충의 아버지와 조충의 아들까지 대단했었다는데 우리 역사에 삼대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더불어 사람들이 횡성조씨의 시조가 조충이라는 것은 사실 잘 못 알고 있는 거라며 원래는 '조익' 이라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역시 실제로 답사 한번 하니 모르던 사실이 귀에 쑏속 들어왔다. 다시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태종대였다. 그 곳이 어디인지 궁금했으나 우리는 강림면 강림리를 향하는 잠깐 동안 눈을 붙였다. 그리고 도착하자 멋진 경치를 거슬러 올라갔다. 물길에 흐르고 나무가 우거지며 물가가 거의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멋진 곳을 올라갔던 것이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자 지금까지 찌부둥 했던 몸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어떤 표지판을 우리들은 발견했다. 선생님은 곧 설명을 하셨다. 그 곳은 '노고소' 또는 '노구대' 라고 불리며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태종대를 오른 후 내려 오면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결국 태종대에 도착하자, 정말로 여름에 가족끼리 올라와서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먹게 만드는 멋진 경치에 다다랐다. 그리고 비각에 다다르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고려말 4처사의 한분인 '운곡 원천석'은 조선조 태종이 이방원의 스승이었다. 운곡은 고려를 정복하고 조선을 세운 태조의 아들들의 권력다툼에 화가나 이 곳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태종은 1415년 스승인 운곡을 찾아 관직의 복귀와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 곳을 찾았으나 운곡은 만남을 꺼려 미리 피신하였다. 그 후 만나기가 어렵게 된 것을 깨달은 방원은 스승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세 번하고 산을 내려갔다고 한다. 그 때 말을 매놓았던 장소로 '주필대'라 불려오다 방원이 태종이 된 후 태종대라 불리게 되었다. 태종은 비석과 비각을 세웠으며 현재는 1984년에 해체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정말로 원래 비석이 있던 자리에 흙이 있었다. 비각에는 주필대라 써 있었으며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 태종대 아래의 움푹 들어간 바위벽으로 갔다.

그 곳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자가 '태종대' 라고 멋있게 새겨져 있었다. 그 옆으로 여러 가늘고 작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우리들은 그 곳에서 태종대 주위의 검은자국을 보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은 사람들이 글이 좋아서 먹물로 탁본을 하도 많이 떠나서 남은 자국이라는 것이다. 탁본을 했으면 깨끗이 씻고나 갈 것이지 그렇게도 문화유산을 아낄 줄 몰라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는가 말이다. 하여튼 그 후 내려오면서 '노고소'의 설화에 대해 들었는데 이방원이 스승이 사는 산을 알아내어 오르면서 빨래하고 있는 노파에게 원천석이 어디있느냐고 하자 노파는 원천석이 일러 준대로 자기가 간곳의 정반대 방향을 알려주었다.

나중에서야 그 일행이 왕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왕에 대한 불충의 죄로 물이 휘돌아치는 위험한 곳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우리들은 다시 차에 오르고 세번째 목적지인 의병총으로 가기 시작했다. 강림면 월현리에 있는 의병총은 6구의 분묘현상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 분묘를 만들고 [강림리 의병총]이라 비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현재 그 곳은 신축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주위와 뒷부분을 조선시대쯤에 만들어진 것 같은 옛날식으로 담을 치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곳에서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잠시 묵념을 하였다. 그리고 보니 지금까지 목적지에서 우리들은 하나씩의 특별한 일을 해오고 있었다. 처음 조충묘 사당 앞에서 향토답사반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은 일과 태종대에서의 답사반, 여럿이 사진을 찍은 일 그리고 이번 의병총에서의 묵념까지가 각각의 목적지에서 했던 그리고 특별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었다. 의병총에서 내려와 마지막 목적지인 갑천면 중금리의 3층 석탑으로 향했다. 이동중 차에서의 내심경은 자랑스러움으로 뭉쳐져 있었다.

어제 교련시간에 보았던 의병에 관한 비디오가 나의 기억속에서 다시 한번 충성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비디오의 전투장면 중 아까의 강림리와 또 하나의 의병총이 있는 중금리에서의 전투장면이 기억난 것이다. 아까 6구의 분묘는 내가 비디오의 내용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연일 승승장구하던 의병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전투를 하고자 '만금호' 의병장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후퇴하는 의병들의 엄호를 하던 6여명의 엄호조가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의 눈

가에서 눈물이 맺혔다. 나도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물밀 듯이 북받쳤다.

그러데 아까부터 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꼬불꼬불한 길을 다녀서인지 머리가 아프다. 차를 탈 기회가 별로 없는 나는 멀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태로 다니면 정말로 머리가 멍하다. 그렇지만 중금리에 거의 다 왔으니 조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마지막 목적지인 중금리3층석탑에 왔다. 원래는 탑둔리에 있던 것이 횡성댐으로 인하여 수몰지역으로 결정되어 방향의 동산으로 이전한 3층석탑을 우리는 마주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단 면석의 팔부중상과 옥개석등 각 부분의 조각 수법과 와편들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대충 8세기말에서 9세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3층석탑은 쌍탑인데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란다. 강원도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들은 것 같다. 동탑에 비해 서탑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두 탑 모두 1974년에 해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단면석에는 팔부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한면에 두개씩 4면이니 8개의 신상이 조각되어 있는 셈이다.

나중에 석탑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 곳은 작은 박물관 비슷한 곳이었다. 여러 횡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옛날에 쓰던 물건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횡성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 곳을 나오자 아까 보았던 방향의 비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수몰지역으로 인하여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애도하는 글이 적혀있었고 그 방향의 비는 무슨 새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횡성의 군조인 백로나 아니면 왜가리인 것 같았다. 이젠 점심을 먹으러 차를 타자 모두가 횡성에 오기전까지 잠들어 있었다. 오늘 하루의 오전 일정이 의외로 피곤했던 탓인지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횡성에 도착하여 식당에 갔는데 점심메뉴는 학교급식보다 좋은 갈비탕이었다. 공기밥에 말아먹는 갈비탕은 아주 맛있었다. 다행이다. 학교급식보다 잘 나와서,혜혜... 이제 다시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는 정말로 뜻깊은 날이었고, 많은 것을 배운 날이었다. 처음 '향토답사반'에 들어 올때는 좀 망설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는 이 글을 변창수 선생님께 바친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횡성고 향토 답사반 만세다.!!

나의 횡성문화유산 답사기

김 혁 신 (횡성고 2학년)

기다리던 유적지 답사 날이 왔다. 날씨도 답사하기 좋게 더욱 화창했다. 원래 내가 가는 이 향토답사는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을 한 몇시간만 빠지자 하는 것으로 신청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버스에 올라 타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맨날 사진으로만 보던 횡성의 유적지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간곳은 횡성읍 정암리에 있는 세덕사와 조충장군묘에 갔다. 세덕사는 레포츠 공원 옆에 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때 갔을 때도 없었고 그냥 절같은 건물 하나가 잔디 밭 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도 있고 담도 생겼다. 전보다는 훨씬 보기 좋았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현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났다.

기념촬영을 한 후 조충장군의 묘를 답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리 있고 가는길도 힘들어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다. 눈이 안좋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산의 약간 윗부분에 등근묘가 보였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타서 진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강림의 태종대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강림으로 가는데 나는 강림을 처음 가봐서 그런지 눈에 낯설은 풍경이 비쳤다. 우리는 태종대로 올라가서 내렸다.

역시 생각한대로 물도 맑았고, 공기도 막힌 코를 뽕 뚫어 줄 만큼 시원했다. 약간의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 절벽 밑에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절벽위에 한비각이 그 자체를 뿜내고 있었다. 태종대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했다. 태종대 비각 안에 한 비석이 세워져있었다.

비석에는 한문이 많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문을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 일행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태종대 여기저기 둘러 보았다. 그런데 태종대가 세



위진 땅바닥에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한문으로 이름 같은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바위위에 쓰여진이 한문이 무엇이나고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한문을 읽어보시더니 누가 장난을 쳐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보전하지는 못할 망정 훼손시키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우리는 태종대에서 내려와 태종대가 세워진 절벽밑으로 갔다. 절벽 아래에 길이 나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니 절벽에 태종대라는 글씨가 한문으로 크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탁본을 많이 해서 먹물자국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태종대에서 내려와 어떤 비명총이라는 무덤에 갔다가 횡성댐근처 망향의 동산으로 향했다.

망향의 동산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보니 맨날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망향의 동산이 훨씬 컸다. 옆에는 횡성댐으로 인해 가득찬 물이 보였다.

중금리3층석탑도 훼손되어 다른 돌로 부서진 부분을 복원했다. 나는 계속해서 중금리3층석탑의 여기저기를 둘러 보았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타 학교로 향했다. 원래 풍수원 성당도 둘러 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로 들리지 못했다. 그래도 오늘 태종대와 중금리3층석탑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횡성문화답사를 다녀오며

김 남 원 (횡성고 2학년)

11월 24일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하여 우리 학교 1,2,3학년은 향토 답사를 하기 위해 횡성 문화원에서 제공해 준 버스를 타고 첫번째 목적지인 정암리 조충묘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역사에서만 볼 수 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버스안에서 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신 자료들을 보며 답사하기전 답사 할 곳에 대해 알고서 보는게 낫다는 생각에 자료들을 열심히 읽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도착한 우리 학교 일행은 기념촬영등을 하고 가까이에서 볼 순 없지만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한채 다음 목적지인 태종대를 향해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강림면에 위치한 태종대에는 이방원이 머물고 갔다고 하여 기념으로 지어놓은 곳이였다. 30분정도를 달려 태종대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듯 잘 정리 되어 있었고, 태종대에 도착하여 태종대 아래로 흐르는 맑은 강줄기를 보며 내 마음 또한 그 강을 따라 몸을 싣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종대에는 어느 바위에 한문으로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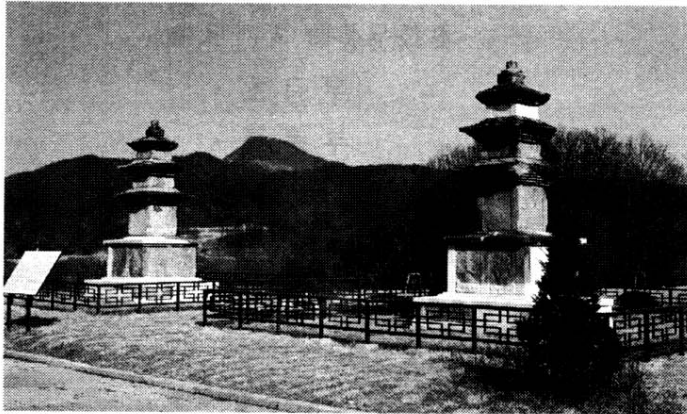
우린 무엇인가하고 선생님께 물어보았는데 외지인이 와서 이름을 파놓고 갔다는 말에 분통이 터졌다. 우리가 아까워하는 문화유적에 이렇게 훼손을 해놓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잘 가꾸고 보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목적지인 중금리 3층석탑을 보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 도착한 우린 댐이 생기는 바람에 자리를 옮긴 3층석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말로만 듣던 그 자태를 눈으로 직접보니 책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고 내 입이 다물어지지않았다.

하지만 그 곳 또한 다른것들과 같이 많이 훼손이 되어 탑 일부에 사람들이 보수공사

를 해 놓은걸 보았을 때 가슴이 메어저왔다. 하지만 탑의 우아함과 그 선은 마치 한 여인이 서있는 듯 우아한 자세를 뽐내듯 망향의 동산을 지키고 서 있었다. 다시 기념촬영을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학교로 돌렸다.

11월 24일 1시 횡성읍에 도착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횡성문화원에서 주신 책을 받고 점심을 먹으며 그 날 하루를 되새기며 많은 것을 알고 배웠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내 가슴 한 곳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망향의 동산(중금리3층석탑)

어사매 (제15호)

V.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향토문화행사

- 제17회 태풍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제14회 태기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이연승시비건립
3주년기념 학생백일장
 - 동시부문
 - 산문부문

내 친구 햇님

이 현 경 (안흥초등학교 4학년)

수줍은 색시볼로
살포시 인사하는
내 친구 햇님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는
엄마뚱처럼 포근하게 다가와요.

포근한 햇님속으로
푸웅덩 빠지고 싶지만

햇님은
아침이슬과
속삭이다가

저 멀리
이사를 가요.

약 속

임 성 호 (우천초등학교 6학년)

모든 우정이나 사랑은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왠지 모르게 처음부터 좋은 느낌이 들었던 아이 진호, 진호와 내가 처음 만났을때는 내가 우천초등학교에 전학온 날 우리집에 처음 가보던 때였다.

우리 옆집에 살았던 진호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아무렇게나 놔둔 더벅머리와 투박하면서도 거친말, 짙은 눈썹 정말 흥미로운 아이였다.

“안녕”

“홍”

그 아이는 난 관심도 없다는듯이 지나쳐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우리들은 옆집에 살면서도 서로 통명스럽게 대하여 지냈다.

우리가 친해지게 된 계기는 장때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에 생겼다. 나는 아빠 심부름으로 가게에 가던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살려줘요! 어푸 어푸푸”

“살려줘!”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진호, 그 더벅머리의 우스운 친구 진호가 물이 불어난 냇가에서 허우적 대고 있었다.

나는 얼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진호를 건져주었다. 우린 둘 다 기진맥진하여 냇가에 지쳐 누워있었고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맙다.”

“됐어 집에 가서 너네 엄마한테 감기약이나 받아서 먹어”

“엄마? 호호호 아아아앙!”

그 더벅머리 녀석은 난데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난 너무 황당했다.

“야 임마 넌 왜 울고 난리야”

“그래! 네 녀석에겐 엄마가 있겠지 그렇지만 난 네게 있는 엄마가 없어 너가 아프고 힘들때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줄 엄마같은 건 없단말이야!”

“미안하다”

“내가 왜 널 싫어 했는 줄 알아! 내가 처음 나와 만났을 때 넌 네 엄마 손을 잡고 오 더구나 난, 난 그것이 싫었어!”

“미안하다”

왜 그때 내가 할말은 그것 뿐이었는지 그 말을 하고 난 진호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밖에는 없었다.

한참을 울고나서 우리는 약속했었지. 난 네 엄마를 꼭 찾아주기로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었고 넌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가 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곤 다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어느새 옛날의 그 더벅머리의 진호는 없고 내 앞에는 훌륭한 초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되어 도시로 전학가는 친구 진호가 서 있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너 약속 잊지마 우리 엄마 찾아서 와야 돼”

“임마 너나 잊지마 국가대표 못 되면 안만나줄꺼야”

“호호호”

“울지말고, 잘 가라 진호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어느새 진호를 떠나 보낸지는 4달이 다 되어간다.

넌 나와 한 약속 잊지 않았겠지 15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말이야 서로의 모습 비추어보며 꿈을 키웠던 옛날을 잊지 않는 멋진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날 너를 그리며 내가슴 한 귀퉁이에 네이름을 새긴다. 박 진 호!

나의 단짝 친구

박 인 영 (안흥초등학교 6학년)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지난 봄, 우리 반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6학년에 한 여자 아이가 전학을 온다는 말에 모두들 떠들썩 했다.

“나는 원주에 있는 일산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박민영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다른 전학생과는 달리 적극적인 말투와 당당한 태도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영이는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 하고, 나 보다 잘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까이 하기가 너무도 부담스러웠다.

“민영아, 우리 있다가 같이 집에 가자.”

“그래”

나는 민영이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조금씩 쌓아 갔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무엇이든 잘 하는 민영이를 못마땅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민영이를 멀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난 민영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난 하루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애들아! 우리 이제 초등학교 시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민영이를 조금 이라도 이해해 주면 안될까?”

친구들에게 민영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부탁도 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영이는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민영아 힘내”

“고마워”

민영이는 그 한 마디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민영이는 이런 학교 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는지 결국은 다시 원주에 있는 우산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민영아! 잘가 편지도 자주 해야돼”

“응, 너도 나를 잊지마!”

민영이 눈에도, 내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 후 난 민영이와 편지도 자주 하는데 그 중 기쁜 소식은 피아노콩쿠르 대회에서 이등을 하고, 시험을 봐서 전교에서 일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고 싶다. 민영이에게 있었던 슬픈 일과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싶다. 슬픔은 반으로 나누고, 기쁨을 늘리는 그런 친구….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커서 어른이 되어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는 그런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민영아! 꼭 날 잊지마!”



아침의 행복

홍 지 은 (횡성초등학교 6학년)

새들이 아침 전주곡을 부를 때
새들의 숨길털 하나
나의 방 창가에 떨어질 때면
나는 행복합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들의 작은 연주회를 들을 때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땀을 비오듯 흘리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
나는 행복합니다.

개구쟁이 내 동생이
나에게 짓궂은 장난을 걸지만
내게는 정말 소중한 내 동생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침이 시작되기에
나의 하루는
행복합니다.

이웃 사촌

이 연 정 (둔내중학교 2학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내 왔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서고 우리는 집안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인터넷을 통하여 주 문해 쓰고 취미, 오락도 컴퓨터 게임으로 대신하여 씀으로써 우리도 이웃과 접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다. 또한 직업의 다양화로 인해 이웃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그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 해지므로써 이웃간에 단절이라는 벽이 생긴것 같다.

요즘 책이나 TV를 보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직업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여 함께할 시간이 많지만 도시의 경우는 직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의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 또한 명절이나 휴일이면 일 때문에 피로에 지쳐 서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기에 정신이 없다.

이것은 이웃간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간에 슬픈 일이 있으면 자기일처럼 슬퍼하고 기쁜일이 있으면 서로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였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촌이란 무엇일까? 이웃사촌이란 말은 우리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것 같다. 이웃에 사는 사촌을 이웃사촌이라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리다가 이웃 사촌이란 말이 사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언제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동네가 나는 정말 좋다. 어느 곳처럼 서로 싸우지도 않고 맛있는 것은 나누어 먹는 우리 동네가...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 까진

이웃간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퇴근시간이면 언제나 길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리가 없으면 남의 집 앞에다 차를 세워서 싸우기도 하였다.

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에 내다 놓을 때도 자기네 집 앞에 버리면 냄새가 난다고 남의 집앞에 내다 놓기도 하였다. 전에는 쓰레기 하나 때문에 경찰에 고소까지 한 적이 있었다. 쓰레기 하나 하나를 다 조사해서 이웃 사람을 신고하고 헐뜯고, 그 당시 어린 내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던지, 벌써 몇년 전의 일이니 지금의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걱정이 된다.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라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웃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옛날처럼 따뜻하고 정이 묻어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곳이 되지 않을까?



가을이 있는 숲 길

유 미 (우천중학교 2학년)

부서지는 듯한 가랑잎
잘 휘날리던 날

해맑은 아이 웃음 같은
많은 물 소리 듣고,

누나의 따뜻한 손길같은
바람 쏘이며,
옷길을 스치고 끌려온
가을이 있는 숲 길,

깊이 더 깊이
파고 보던 숲 속.

단풍나무, 쥐똥나무
쑥부쟁이, 오이나물들.
어머니 치마폭 냄새
물씬 맡고 거닐던
가을 숲 길.

오랜 만에 찾은 길.
그 전날 거닐며 머금던
쏟 웃음이 아닌
할아버지 너털 웃음이
가득 담긴 가을이 있는
숲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김 은 정 (대동여자중학교 3학년)

며칠전 엄마한테 방 청소를 안한다고 꾸중을 들은적이 있다. 하루, 이틀 계절 해가 바뀌어도 방청소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느끼기 보다는 으이구! 저 잔소리! 하는 생각에 하는등 마는등 책상정리부터 시작했다. 서랍 하나 하나 열때마다 나 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도대체 언제 책상정리를 해보았는지 초등학교때 쓰던 수수깡, 열린학습지, 갑동사니 골동품.. 정리하다 말고 한참을 웃었다. 마 무리에 이르렀을 때쯤 사진 뭉치 하나가 나왔다. 한 10장 정도가 넘는 초등학교 수학 여행때 사진과 운동회때 사진들, 지금은 잊어버렸던 그때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그 중에는 또다른 사진 한장이 있었다.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사진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안을 물끄러미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얼마지나면 할머니 제사다. 이맘때? 아니 이맘때보다 좀 더 추울때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아마도 내생각엔 재작년 11월달이었던것 같다. 약간 쌀쌀한 정도, 할머니께선 평소때도 병을 앓고 계신 것도 아니고 불편한 점도 별로 없으셨는데 그 날은 갑자기 몸이 불편하셨는지 통 일어나시지를 않으셨다. 계속 누워 계시기만 할 뿐 우리 가족 모두 평소에도 항상 정정하시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방에서 나오시며

“애미야 어머니방 깨끗히 정리하고, 한복으로 갈아 입혀 드려라” 하셨다. 엄마는 할머니 방을 깨끗히 정리하고 한복으로 갈아 입혀 드렸다. 그리고는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할아버지께서 다시 할머니 방에 들어가셨다 나오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뵈 수 있었다. 그러시며 할머니가 운명하셨다고, 친척들에게 연락하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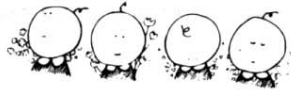
셸다. 나는 그 때 항상 업하시고 우리 집 기둥이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믿기지 않을 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2년이 흘렀다. 할아버지께선 그때 가슴 한쪽이 베어 나가는 것만 같고, 숨이 메지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주위에 동네분들이 안계셨다면 무사히 일을 치루지 못했을 거라고... 주위에 동네분들 내가 생각해도 그날 동네분들이 큰 도움을 주신것 같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충격에 정말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집에서는 할머니께서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집에서 모두 치루었다. 동네분들은 서로들 자신들의 일처럼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많은일들을 도와주셨다. 집에오는 손님들 상도 같이 차리고 치워주시고..., 당일 장례식까지도 상여를 들고 함께 가는일까지, 장례를 마친 후 끝 마무리까지 모두들 도와 주셨다. 정말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할머니 장례식을 무사히 치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 인정이 메말랐다고들 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것 만은 아닌것 같다. 모든사람들이 아닌 어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두들 그런말을 듣는 것 같다.

남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힘든 일을 맞이 하였을 때 곁에서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정이 없다가 보다는 정이 넘쳐난다는 표현이 낫 것 같다.

이렇게 큰 일을 치루고 난 다음에는 더 더욱 이웃사촌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었다. 요즘에도 집에 동네분들이 찾아 오시면 할아버지께서는 술상을 준비해 함께 드시며 그때의 고마움과 당신들의 소중함을 줄 곧 말씀하시곤 한다.

“네 자네들이 그때 없었다면 어떻게 치뤘을까!”

“야~ 앞이 다 깜깜하네!”



우리 할머니

남 혜 수 (우천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할머니께선 '97년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 드리기엔 나 자신이 지은 죄값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할머니와는 달리 우리 할머니는 우리와 놀아주시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누워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다리가 마비되어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께선 항상 할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지극 정성과는 달리 나는 매우 불효를 저지른 손녀였습니다. 내 머릿속엔 항상

'왜 우리 할머니는 저런 분일까'란 생각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 처럼 할머니와 같이 나들이도 가고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며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부터는 할머니를 아예 남처럼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무엇인가 물으시면 할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정도로 지못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서도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내게 해 주신 정성만큼 나는 헤드린게 없으니 아쉬움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섞여 나올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어김없이 공부 잘하고 착한 혜수라고 잠깐 고마웠던 거지 칭찬을 하셨던 분인데…… 할머니는 아마도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나를 위해 감싸주시러

고 그러셨나 봅니다. 모녀의 정만큼이나 따스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할머니는 나를 아껴주셨습니다.

이제와서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왜그리 할머니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실때 더 잘 해 드릴걸... 하는 생각도 함께 나지만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위독한 할머니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만큼은 마음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집뒤에 있는 산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합장릉을 보며 생각도 합니다. 참 쓸쓸히 돌아가신 할머니께 너무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웃할머니께라도 잘 해 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 천국에서 저의 불효를 용서하시고 편하게 고이 잠드세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최 은 하 (정금초등학교 6학년)

새싹이 파릇 파릇 돌아나는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면 우리 할머니의 연세도 어김없이 한 층 높아진다. 나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좋지만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지는 것은 싫다. 할머니의 연세는 그대로 멈추고 나의 나이만 흘러 갔으면 좋겠다. 할머니 연세와 똑 같아지면 그때 같이 늙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살, 힘이 없어 보이는 얼굴, 이런 모습은 나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이처럼 할머니께서는 소중한 분입니다. 지난 겨울 방학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설레이셨는지 우리들을 보시자마자 문을 번개처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좋으시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쓸쓸하다는 것을 더 느낀다고 하더니……. 이 말이 나의 머리 속을 맴돌게 한다.

앗! 우리 할머니께서는 전생에 공주인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초코파이를 드실 때 공주처럼 드십니다. 작은 입속에 쏙 들어가는 초코파이 너무 귀엽고 금방이라도 초코파이를 먹고 싶습니다. 이처럼 할머니께서는 어린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 때 할머니께 뭐라고 하면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와 잘 다투시고 잘 웃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일이 힘들고 살기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이고 어머니처럼 포근해서 할머니가 좋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들이 가는것이 아쉽고 허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멋쟁이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제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오곡밥

이 보 미 (횡성초등학교 5학년)

오곡밥은 곡식들의 모임
조, 콩, 팥 등
한 해 동안 우리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신
곡식들의 모임

오곡밥은 영양소의 모임
탄수화물,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지방같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곡식들이 있으니까
영양소의 모임

오곡밥은 이웃끼리의 모임
이 동네도 저 동네도
오곡밥을 지으려고
한 자리에 모이니까
이웃끼리의 모임

오곡밥은 모든 정들의 결정체,
모두가 쪼르르 둘러앉아
오곡밥을 먹으며,
미안했던 일, 기뻐던 일을 털어놓으며
정을 나누는
정의 결정체
오곡밥은 오곡밥은
지구학교 한 동갑내기인
곡식, 영양소, 사람 그리고 정의 동창회

회초리가 있기에 교육이 있다.

안 보 영 (우천중학교 2학년)

요즘 학생을 체벌했다고 교사가 체포되는 일이 뉴스와 신문에 비취어지고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변하면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하는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군사부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 부모는 한 몸과 같은 것이니 잘 섬겨야 한다 할 정도로 스승의 권위는 높았다 합니다. 스승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스승은 예전엔 덕과 지식으로 제자들을 자식처럼 보살폈으나 지금은 감정에 치우쳐 행동을 하게되어 제자들도 선생에게 반발하거나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자와 스승사이에서도 믿지 못하는데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체벌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말하려 합니다.

첫째로 체벌문제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체벌을 없애도 문제, 있게해도 문제인 상황에서 전 학생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체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는 약하게 누구는 세계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거나 선생이 화난 상태에서 화나게 했다고 더 많은 체벌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체벌이 아닐 뿐 아니라 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께서도 체벌을 할 때 감정을 좀 자제해 냉정하게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체벌을 확실히 한다면 체벌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둘째로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선생님들은 안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반문을 하면 '반항아'라고 낙인찍히는 건 시간문제고요. 그렇기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학생들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서로의 불만을 덜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스승은 지와 덕으로 제자를 이끌고 제자는 지식뿐 아니라 덕을 스승에게 배워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순례였지만 지금은 교육방식이 바뀌었다고해도 그 의미만은 바꾸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김홍도의 그림 작품 중 스승에게 회초리를 맞고 우는 아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초리가 있어야 교육이 있다.”



우리의 소리

남 혜 진 (우천중학교 2학년)

우리는 대중가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가수들의 노래 팝송까지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가요에 익숙해져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고유의 소리를 갖고 있다. 판소리, 민요, 국악등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소리들이다.

하지만 시대에 흐름속에 우리의 소리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대중가요속에 팝송속으로 우리의 소리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래도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많은 민요를 들어보았다. 국악도 들어보고 판소리도 접해 보았다.

그 속에서 나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얻었다. 구슬프게 꺾이는 소리, 우리의 한이 깃든 소리를 통해 감동을 받은 적도 있다.

지금껏 대중 음악속에서 길들여서 살아 온 세월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잠시 나는 다시 이런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

혹시 TV나 라디오에서 듣더라도 처음 듣는 소리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가끔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실기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듣게된다. 그러면 기억은 그때 뿐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한 적도 있다.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다.”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정말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면, “우리의 소리가 우리 귀에 좋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 음식에 잘 적응하듯 우리의 소리와 음악이 우리 귀를 더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금세 우리의 소리와 적용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한다.

우리의 소리는 특별한 행사와 축제 모임이 있을 때만 듣는 특별한 음악이 아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평소에도 접할 수 있는 보편화 된 것이어야 한다. 아직은 우리가 새로운 장르의 음악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소리에 관심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더욱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한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의 소리가 세계속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도 우리의 소리를 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메아리

전 나 래 (성북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토라져
집으로 간날

나 혼자 동산에
올라본다.

“친구야!”
“친구야!”
“네가 미워”
“네가 미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아름 꽃을 꺾어
그리로 간다.

저기저기 보이는
내 동무의 집

우리 집

이 보 미 (황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집은
중학교 앞에 있는
작은 연립
궁전처럼
호화롭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있기에는
아주 적당한
작은 연립

우리 집은
중학교 앞에 있는
작은 연립
넓은 주택처럼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소리도 못 지르지만,
기쁨은 두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연립

우리 집은
중학교 앞에 있는
작은 연립

행복한 삶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15 연립

연립 아파트 입주 1년 10개월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집은 아니지만
이웃간의 믿음으로
더욱 빛이 나는
작은 연립

우리 집은
중학교 앞에 있는
작은 연립
대형 아파트처럼
에르베이터가 없어
오르락 내리락 힘이 들지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정겹게 인사하는
아주 아주 정다운
작은 연립
바로 우리 집

내 친구

박수진 (우천초등학교 5학년)

눈을 감고도
난
알아요.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친구의 목소린걸

울 안에서도
난
알아요.
자박자박
담 너머 들리는 소리
친구의 발자국 소린걸

메아리만 들어도
난
알아요.
숲 속의 다람쥐를 쫓다가도
날 부르는 소린
친구의 목소린걸

하늘과 구름

문 보 라 (안흥초등학교 6학년)

파아란 하늘을 보면
파아란 하늘 처럼
내 마음도 파래지고,
하얀 구름을 보면
하얀 구름 처럼
내 마음도 하얗게 된다.

끝없는 하늘을 보면
내 꿈과 희망이
끝없이 펼쳐지고,

몽게 구름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들도 덩어리가 되어
구름이 된다.

탁 트인 하늘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한 없이 넓어지고,

새털 구름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한 없이 부드러워진다.
하늘과 구름은
내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없애주고,

하늘과 구름은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펼쳐준다.

내 동생 지현이

김진희 (칭일초등학교 6학년)

“달그락, 달그락.”

우리 집의 하루는 엄마께서 만드시는 구수한 밥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오늘도 역시 내 동생 지현이는 부시시한 얼굴로 내게 안긴다. 그럴때면 나는 지현이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해준다. 내 동생 지현이는 나와 열살 차이다. 하지만 지현이와 나 사이의 우애는 누구 못지 않게 두텁다. 가끔씩 베개전쟁을 펼치지만…….

“다녀오겠습니다.” 학교가기전에 부모님께 드리는 나의 인사말이다. 내 동생 지현이는 이 소리만 듣는다면 제일 좋아하는 텔레토비가 나와도 문 앞으로 뛰쳐나와서

“언니, 안녕 뽀뽀”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손을 흔들며 깜찍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난 또 뽀뽀를 해준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만 지현이의 귓속에 들어가면 지현이의 전속력 달리기가 시작된다. 목표지점은 나의 품속, 금새 나의 품속으로 빠진다.

가끔 난 지현이가 미울 때가 있다. 숙제는 많은데 자꾸 귀찮게 할때, 자는데 꼬집을 때,

“저리 안가? 가란 말이야!” 그럴 땐 지현이는 빙그레 웃으며 용서를 받아내곤 한다.

내 동생 지현이는 나보다 예의가 바르다.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하고 정확하지 않게 인사를 한다. 동네 어른들은 그래도 지현이가 귀여운지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신다. 우리 동네에서는 지현이가 예의가 바르다고 소문이 났다. 덕분에 지현이 교육 잘 시켰다고 나도 칭찬을 받는다.

매일 느끼는 건데 내 동생 지현이는 커서 아주 똑똑할 것 같다. 한개를 가르쳐주면 곧 따라 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생 지현아 언니보다 더 예쁘고 착하게 자라나주렴.’

내 친구

이 윤 미 (우전초등학교 4학년)

저는 이제부터 제 단짝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단짝친구는 물놀이를 갔을때 만나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물놀이를 갔을때 서로 같은 편이 되어 언니에게 물을 뿌리고 언니에게 대들면 언니도 물을 뿌리고 즐겁게 놀다가 같이 물놀이를 하여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그 일이 있던 뒤에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4학년에 처음 올라와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더럽다고 생각을 할 때 다정하게 나와 청소를 해주었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던 마음이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깨끗하게 변하고 청소를 도와준 친구에 얼굴도 기뻐보였어요.

내 단짝친구는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머리도 길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요. 또 책임감도 있어서 학급일도 잘해요. 내 단짝친구는 내 뜻을 잘알아 주어요. 학급회의 때도 내가 의견을 내면 내 뜻을 이해해서 의견에 잘 따라줘요. 그래서 저도 친구의 의견을 잘 알아줘요. 또 다른 친구들은 제친구와 제가 너무 친하다고 부러워 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서 저는 제 친구도 덕분에 친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소중한요.

하지만 작은 일로 다툰적이 있어요. 그땐 친구들이 다 날 미워할 것 같고 친구와 다툰것도 후회 되고 내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서 먼저 사과도 못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사과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친구의 책상에 편지를 놓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친구가 나를 보고 웃어서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을 하니 친구가 "나도 몇번이나 사과하려고 했어"라고 말하여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해했었어요. 어때요. 저와 제 친구의 사이가 친한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말이에요.

체육시간과 내 친구들

박 인 영 (안흥초등학교 6학년)

꽃의 향기를 더해가는 푸르른 5월, 6학년 1반 교실에 친구들도 5월의 꽃을 피운다.
오늘은 우리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육시간이 들어있는 날이다. 친구들의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체육 시간이다.

오늘은 5학년과 우리반 아이들이 같이 했는데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를 하였다.
편을 나누어 피구 경기를 시작하였다. '난 피구가 싫는데…….' 하지만 내 친구들은 마냥 좋기만 한가 보다. 공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피해가는 친구들의 얼굴. 무서움에 떨고 있는 나, 공이 나에게 올 것 같은 마음을 감출 수는 없나 보다.

경기는 끝이 났고, 진 친구들의 기분은 매우 심각했다. 마치 싸움이 일어 날 것만 같은 무서운 나의 친구들…….

내가 무엇을 잘못해 혼나는 아이처럼 난 조용해 졌다. 친구들이 화나면 선생님 보다도 무섭다. 나의 우정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살며시 살며시 다룬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다툼은 일어났고 친구들은 모두 편을 나누어 싸우게 되었다. 싸움은 체육시간이 끝이 나도 계속 되었다.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난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느 쪽의 편이 되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난 어느 쪽도 갈 수 없었다. 나에게 있어 친구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난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화해시키기로 했다.

아침 일찍 학교 등교 길의 내 발걸음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가벼웠다.

그런 마음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니, 친구들은 어느새 하나가 된 것이었다. 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친구들에게 물어 보기로 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비록 내가 내린 결정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화해를 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사소한 일로 친구들의 우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 느꼈다. 역시 내 친구들이란 것을…….



VI. 문화원 소식



■ 2000 주요사업

-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시회
 - 음악회
 - 문화예술제
 - 문화 및 향토사 강좌
- ▶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교실운영
 - 문화유적지답사
- ▶ 향토문화보존전승
 - 태기문화제
 - 태풍문화제
 - 향토문화기록촬영
- 전통민속예술경연출연
- 한시집발간
- ▶ 애향활동 전개사업
 - 애향지 "어사매" 발간
 - 문학지 발간
 - 향토인물선양백일장
 -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 ▶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자료수집
 - 향토사연구
- ▶ 기타특별문화사업

지역사회교육사업

전시회

본 문화원에서는 지역주민의 작품발표 공간을 마련하고자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와 함께 병행 개최된 제17회 태풍문화제 행사기간내 향토문인서화전 개최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간 확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제17회 태풍문화제 향토문인서화전 (9/29 ~ 10/1)
-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발표회 (11/28 ~ 29)
- 백합영상회 사진전(12/2 ~ 6)
- 연목회원전(12/8 ~ 10)
- 그림샘전(12/14 ~ 16)



음악회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화합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건전가요제"와 "전통국악예술대공연" 등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제4회 청소년건전가요제 (5/20)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12/6)





문화 및 향토사 강좌

우리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고 각종사료 발굴에 이은 향토사의 강연회가 폭 넓게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조충장군” 선양강연회 (6/29)
- 향토사 강연회 (12/5)



향토문화교육사업

문화학교운영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습득과 감상능력 제고 및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군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우리 문화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서예교실
- 생활외국어교실(일본어·영어)
- 수묵화교실
- 사물놀이
- 호적교실(기초가락)
- 노래교실
- 문화유적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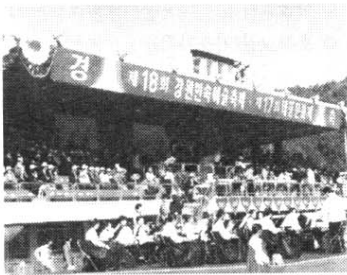


향토문화 보존전승사업

문 화 제

본 문화원은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전승보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제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문화제행사를 통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서 함양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제14회 태기문화제 (2/18 ~ 19)
- 제17회 태풍문화제 (9/28 ~ 10/1)
- 향토 문화기록 촬영 (년중)
- 제5회 사물놀이경연 출연 (6/21)
- 한시집 발간



애향활동 전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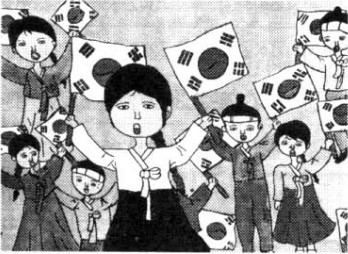
향토애향지 발간 및 기념행사

향토사료 연구 및 문학동호인들의 작품 발표 공간인 향토지 어사매의 발간과 향토인물 선양 사업실시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원에서는 애국의 고장 후손으로서 지녀야 할 고장의 정체성 확립에 목적을 두고 향토인물을 발굴, 선양하는 사업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 “어사매” 15호 발간
- “횡성문화회 문학지” 제7집발간
- 故 이연승 동시비 건립3주년
어린이 글짓기대회 (5/31)
- 4.1 국민만세운동기념 (4/1)
- 학생웅변대회
- 학생그림 공모전
- 풍물놀이 거리시연





향토사료 발굴조사사업

우리고장의 지명유래를 알아보고자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읍 8개면 172개리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지명에 얽힌 전설과 설화등의 사료를 발굴하여 내년상반기 중 향

토사료 제16집 "횡성의 지명유래"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향토사료 조사 사업실시는 관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당위성을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토사료 제16집 "횡성의 지명유래" 자료수집
2000년3월 ~10월
- 향토사료 제17집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횡성" 자료수집
2000년9월 ~12월
- 향토사료 연구발표회 (11/1)

기타 특별 문화사업

우리의 고유문화를 가꾸고 지키면서 선진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진생활 문화강연회가 문화원 문화가족 및 수강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물밀듯 밀려오는 외래문화 속에 경로효친을 선양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본 문화원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12/25)
- 전국순회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12/6)
- 출향저명작가와와의 만남 (12/23)

문화원 임원 및 직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명	직 장	자 택
원 장	심진황	읍하4리 380-6 섬강㉠1동 203호	횡성문화원	343-2271	343-7841
부원장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2687	343-3334
"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이 사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A동 201호 (011-367-3618)	신대분교	345-5124	343-3336
"	우광수	횡성읍 북천리 태우㉠3동 501호 (011-9791-1446)	횡성중학교	343-2241	343-1446
"	이종호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647	342-2854
"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의보공단 강릉시지부		343-7700
"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011-361-3488)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011-371-2618)	백우사장	343-2618	343-5100
"	민경철	횡성읍 북천리 태우㉠3동 308호 (016-378-8781)	청일초등학교	342-5553	343-8781
"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2404	343-0694
"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횡성감리교회	343-1286~8	343-3349
"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의류상업	343-0808	
"	유관종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017-338-2706)	사물놀이강사		342-2706
"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농업		343-2390
"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3	농업		343-3514
"	오세민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011-361-2633)	자영업	342-5888	342-1019
"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3553	343-2670
감 사	도회관	횡성읍 읍상2리 1번 276-3	상업	343-2376	343-2964
"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농업		343-2466
사무국장	홍성진	횡성읍 목계리 102-2	횡성문화원	343-2271	343-3120
간 사	허미선	횡성읍 읍하리 134 1/4	횡성문화원	343-2271	343-2553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성명	주소	직업	주택	직장
고한석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295		343-6336	
구본섭	횡성읍 읍하3리 251-54 동화화원	동화화원	343-2752	343-2752
권상철	횡성읍 읍하4리 274	춘천철물	343-3282	343-2824
권용환	횡성읍 읍하리 383		343-7135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618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3(말미)	농업	343-3514	
김윤수	횡성군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315-8	김약국	343-2707	
김창식	횡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김철호	횡성읍 복천리 영진㉠B동 101호	횡성군청	343-2689	
김현주	횡성군 우천면 상하거리	농업	342-6518	
김남준	횡성군 횡성읍 읍상2리	농업	343-3603	
김진혁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55	농업	342-6019	
김동근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217	농업	343-3959	
김순남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아이세상	342-6925	
이병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467-2		343-6789	
김천수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493	농업	343-3434	
남진향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 409	유미양품점		342-2205
도희관	횡성읍 읍상2리 1반	회원	343-2964	
도광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3동 504호	중고동문화사무국장	원주742-8229	343-0207
류봉만	횡성읍 읍상2리 542-3	자연산추어탕	343-4253	
민경철	횡성읍 복천리 태우㉠3동 308호	교사	343-8781	342-5553
이각구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106		343-2071	
윤만복	횡성군 횡성읍 읍하3리 215-3	농업	343-2575	
박재항	횡성군 둔내면 마암2리	가사		343-6584
박정애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95	가사	343-7814	
박인평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57	한정농장	714-0088	342-2526
박태식	횡성읍 가담1리 468	농업	342-2609	
방규진	횡성읍 복천리 148 총무계	횡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심진황	횡성읍 읍하4리 380-6 석강㉠1동 203호	횡성문화원	343-7841	343-2271
송인석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신구선	횡성군 복천리 115-37		343-1350	

성명	주소	직업	자택	직장
양우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④101동 707호	횡성한의원	343-9526	343-7364
양중하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3	농업	342-2602	
우광수	횡성읍 북천 태우③3동 501호	교사	343-1446	343-2241
원종춘	횡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한림서당	343-3162	
유인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343-8890
윤재택	횡성읍 읍하1리 115-1	형제건설	342-0009	343-3131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자영업	343-3349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343-3518	343-2833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크로커다일	343-0808	
이장우	횡성읍 읍하2리 36	횡성골재	343-2723	343-7618
이제구	횡성읍 읍하1리 308(군청앞)	화성컴퓨터학원	343-2434	343-1202
이종호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854	342-2647
이철우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507	농업	342-2665	
이승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원주763-7386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홍천432-4252	
유관중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342-2706	
안병화	횡성읍 읍상리 원흥④102-505		343-0641	343-6975
김광남	원주시 단구동 142-24 5/1	초등교사	원주763-4890	343-2311
임종홍	횡성읍 읍하4리 6번지	농업	343-2056	
최기섭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170	농업	342-6294	342-8923
신규영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342-5889	
전석희	횡성군 둔내면 둔방1리	가사	342-1403	
양희자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태양미용	342-1884	342-1884
김형래	횡성군 둔내면 우용1리 365-12	사업	344-5500	0342-732-2124
윤국영	횡성군 둔내면 석문1리 168	학원운영		342-0127
김영선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		342-1072	
이대선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280-1	농업	342-2405	
원중훈	횡성읍 읍하1리 67-1	자영업	343-7920	
양기호	원주시 명륜2동 현대2차④ 202동 1007		762-8328	
오세민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상업	342-1019	342-5888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회사원	343-2466	
전인택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409	도의원	343-0601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의료보험조합	343-7700	

성명	주소	직업	자택	직장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0694	343-2404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343-2390	
정삼영	횡성읍 읍하리 214-6		343-3130	
정재영	횡성읍 복천리 영진④A동 201호	교사	343-3336	345-5124
정우철	횡성읍 읍상리		343-2818	
정병유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342-3217	
정왕택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343-6494	
정계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원주761-1063	
정인영	횡성읍 읍하리 읍하택지 550-3		344-1558	
조경택	횡성읍 읍상리 274		343-2742	
장태준	횡성군 서원면 석화3리		342-5077	
박봉순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가사	344-0522	
조규선	홍천군 남면 유치2리 575	농업	홍천432-4802	432-8400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3334	343-2687
채금순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455-2	새마을둔내면부녀회	342-1245	
최혁순	횡성읍 복천리 중앙③3동 408	농협군지부	343-1019	343-2811
정미호	횡성군 둔내면 동산④A동 308	상업	342-0387	342-7892
한상국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82	농업	342-1516	
한상동	횡성읍 읍상리 276-15		343-4019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2670	343-3553
홍성익	횡성군 우천면 정금2리	농업	342-2671	
함기중	횡성읍 읍상리 313-7		344-2543	
김관수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농업	343-6821	
임중훈	횡성군 둔내면 자포2리 643	농업	342-1555	
김두선	횡성군 횡성읍 읍상4리 동원④ 209	건설업	343-2495	345-8504
고명규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11-16	상업	343-3337	345-1013
박동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농업	432-4529	
김용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농업	342-6135	
이영식	횡성군 안흥면 안흥4리 2반 214		342-2094	
최필순	원주시 봉산동 동신④ 101-1203		744-6510	

문화원 회원 입학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어사매 제15호

발 행 일 : 2000. 12.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인 : 심진황

편 집 : 황성문화원

기획·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



황성문화원

TEL. 033-343-2271
FAX. 033-343-7652